차 례

은은한 달빛이 창문안으로 조용히 흘러들고있었다.

여든고개를 바라보는 전순옥은 밤이 이슥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였다.

구름 한점 없는 검푸른 하늘에서는 또글또글 여문 별들이 다투어 반짝거린다.

아름답게 펼쳐진 별바다를 이윽히 바라보느라니 이 땅에 삶의 자욱을 뚜렷이 남기고간 남편생각이 간절하다.

그는 별처럼 빛나게 산 남편 리경행의 모습을 그려보고있었다.

한참만에 창가에서 물러나 전등을 켠 순옥은 책상우에 정히 놓여있는 사진을 마주하였다.

앞가슴에 영웅메달이 빛나는 리경행이 강의한 인상을 주는 눈에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정겹게 마주본다.

망국노의 아들로 태여나 일제침략자들에게 강탈당한 문화재를 되찾기 위한 의로운 길에 뛰여든 애젊은 시절부터 멀고도 험한 애국의 길을 곧바로 걸어온 그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지도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순옥은 지금처럼 사진을 마주하고 마음속이야기를 나누며 늘 함께 있었다.

이밤이 지새면 청명날이다.

날이 밝으면 세간을 난 두아들이 며느리와 손자, 손녀들을 거느리고 아버지의 산소를 보러 올것이다.

순옥은 온 집안식구들이 자리를 같이하게 될 이번 청명날을 류다른 심정으로 기다리고있었다.

속으로 벼르는것이 있었던것이다.

그것은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자식들에게 미흡한 점

이 없도록 부모의 유산을 바로 물려주기 위해서였다.

리경행은 어머니란 이름으로 정겹게 불리우는 귀중한 조국에 고결한 생의 흔적을 남긴 영웅이지만 자식들이 덕을 볼수 있는 재산같은것은 남긴것이 없었다.

얼마전에 마실을 왔던 한 녀인은 순옥에게 한생을 문화재수집에 바친 남편이 안사람한테야 자식들에게 물려줄 값진 유산을 얼마만이라도 남기지 않았겠는가고 한적이 있었다.

오로지 나라에 바칠줄만 안 남편의 고정한 마음을 잘 모르다보니 제나름대로 해본 말이겠지만 무심히 스쳐넘길 일이 아니였다.

혹시 자식들도 그런 미련을 끄물만치라도 가지고있지 않을가 하는데로 생각이 기울어지면 소스라치게 등골이 오싹해진다.

사회의 세포인 가정에 건전한 정신이 깃들지 못하면 자식들도 사람구실을 못하는 법이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바로 여기에 인간의 참된 삶이 있는것이다.

리경행은 이렇듯 고결한 애국심을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하였기에 태양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전통을 빛내이기 위한 애국의 길을 변함없이 걸었다.

바로 그 정신적유산을 자식들의 마음속에 보물로 넘겨주어야 한다는것이 전순옥의 심정이였다.

그는 남편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었다.

—여보, 고귀한 애국의 넋, 우리가 못다한 이야기를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들려주오. …

순옥은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앞두고 한가정

의 3세, 4세들에게 들려줄 곡절많은 인생행로를 더듬으며 추억의 갈피를 번지였다. …

주인공들의 심장속에 굳건히 자리잡은 열렬한 애국심은 어디에 깊은 뿌리를 두고있었던가.

세월을 거슬러…

이야기는 일제침략자들이 태평양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해 미쳐날뛰던 1941년 이른봄부터 시작된다.

빼앗긴 보물

…

어둠을 가시여준
해님이 없었다면
나의 인생은 그 어디에서
시들어버렸을가
피맺힌 그 세월이
이 땅우에 남겨준 소리
가슴을 치네 가슴을 치네
조국이 없어보라
…

—예술영화 《어머니는 포수였다》의
주제가에서—

현해탄

절기로 보면 봄이지만 아직은 입김이 펄펄 날리는 몹시 추운 밤이였다.

어두운 하늘에서는 이지러진 그믐달이 표류하는 난파선마냥 쪼각구름이 어지럽게 널린 구름바다를 누비고있었다.

인적이 그친 전주의 밤거리는 쥐죽은듯 고요했다.

이때 뒤골목에서 한밤중의 얼어든 공기를 흔들어놓으며 개들이 짖어대기 시작했다.

어둠에 짓눌린 뒤골목은 숱한 개들이 덩달아 컹컹 짖어대는 바람에 소란스러워졌다.

다급한 발자국소리와 함께 숨가삐 달려오는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개들을 놀래우면서 비좁은 골목길을 정신없이 내닫는 사내의 입에서는 단김이 헉헉 내불리고있었다.

어둡고 어수선한 세월이여서 문을 열고 내다보는 사

람도 없었다.

골목을 벗어나니 큰길이 나지고 멀지 않은 곳에 벌거우리한 전등불빛이 흘러나오는 2층짜리 벽돌집이 보였다.

큰길을 가로질러 전주려인숙이란 간판이 걸린 벽돌집으로 발걸음을 무겁게 옮기던 사내는 금시 어푸러질듯 비칠거렸다.

가까스로 몸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려인숙앞에 이른 그는 거기에 서있는 목탄차에 쓰러지듯 등을 기댔다.

가쁜숨을 내불며 고개를 젖힌 그는 손바닥으로 얼굴에 질벅하게 내밴 땀을 훔쳤다.

희미한 불빛에 사내의 모습이 드러났다.

남자치고는 작은 키에 고집스러운 눈을 가진 무척 여무지게 생긴 스무살안팎의 리경행이였다.

팔소매로 얼굴의 땀을 쓱 문지르고나서 불빛이 흘러나오는 려인숙을 지그시 노려보는 경행의 눈에서는 무슨 일을 칠것 같은 서리발같은 분노가 번쩍이고있었다.

이윽고 입술을 지그시 깨물면서 차체에 기댔던 몸을 튕긴 그는 려인숙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내짚었다.

현관앞의 돌계단을 오른 경행은 기척도 없이 문손잡이를 잡아챘다.

문은 안으로 걸려있었다.

그는 움켜쥔 주먹으로 문을 두들겼다.

책상을 마주하고앉아 까딱까딱 졸고있던 처녀는 문두들기는 소리에 와뜰 놀라 눈이 커졌다.

《누구세요?…》

가늘게 떨리는 처녀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있었다.

문밖에서 거친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어서 문을 여시오!》
《…》
《빨리!》
문고리를 벗기자 눈에 불이 달린 사내가 단기운을 풍기며 거침없이 들어섰다.
처녀는 무작정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내를 막아섰다.
《서세요. 무슨 일이예요?》
《난 고이시 사부로라는 놈을 만나러 왔소!》
《?!…》
거칠게 내쏘는 목소리에 처녀는 아연하여 뒤걸음질을 쳤다.
무춤 걸음을 멈춘 리경행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다.
《이 려인숙에 단골손님으로 처박혀있는 쪽발이놈말이요!》
처녀는 불이 켜져있는 식당칸쪽에 불안한 눈길을 보내더니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손님은 오후에 떠났어요.》
《뭐라구?… 그놈이 어디로 갔소?》
《려수항으로 간댔어요.》
《그게 정말이요?》
《예, 일본으로 가는 배가 있다면서…》
그러자 경행은 웃이로 아래입술을 지그시 깨물면서 주먹으로 벽을 쳤다.
《엑, 그놈이 끝내…》
갈리는 목소리로 부르짖는 그의 눈에서는 참을길 없는 분노와 증오의 불길이 이글거렸다.
그는 달아오른 얼굴을 들었다.

《판매점주인 진석환은 안에 있겠지. 그를 만나야겠소.》
《그는 서울로 갔어요.》
안으로 들어가려던 경행은 다시한번 놀랐다.
《뭐요?!…》
《주인마님과 수군거리는 소릴 들었어요.》
경행의 얼굴은 무섭게 이그러졌다.
《개같은 놈, 꼬리를 사렸구나.》
말뚝처럼 굳어져서 무거운 한숨을 내불던 그는 문쪽으로 돌따섰다.
그의 입에서는 도끼날같은 목소리가 튀여나왔다.
《고이시… 네놈이 려수로 갔단 말이지.》
들어설 때처럼 문을 와락 열어젖힌 그는 씽하니 밖으로 나갔다.
처녀의 목소리가 그를 멈춰세웠다.
《저… 이 밤중에 려수로 가시렵니까?》
《…》
돌아보니 처녀가 종종걸음으로 다가오더니 걱정스럽게 말끝을 흐리였다.
《이 밤중에 그 먼델 어떻게…》
《가야 합니다. 그 쪽발이놈이 배에 오르기 전에 덜미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자 처녀는 려인숙앞에 서있는 목탄차를 가리켰다.
《그럼 이 차를 타고가세요.》
《이 차가 려수로 가오?》
《려수항에서 물고기를 싣고온 차인데 인차 떠날거예요.》

처녀의 진정이 무척 고마왔다.

경행은 격한김에 처녀앞에서 우둘렁거린것을 후회했다.

처녀의 말을 증명하듯 허름한 솜옷을 걸친 나이지숙한 운전사가 밖으로 나왔다.

안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 모양이였다.

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는 처녀의 목소리가 도간도간 들려왔다.

《…고이시라는 왜놈의 뒤를 쫓는걸 보니 분명 급한 일이 생겼나봐요. 려수로 간대요.》

《알겠다.》

이때였다.

《얘, 너 거기서 뭘하냐?》 하는 신경질적인 목소리와 함께 목에 군턱이 진 녀주인이 나타났다.

《네, 들어가요.》

처녀는 쫓기듯 안으로 들어갔다.

그쪽에 마뜩지 않은 눈길을 던진 녀주인은 담배를 붙여무는 운전사에게 말을 던졌다.

《선주님에게 일러요. 며칠안으로 물고기 한차분을 더 보내라구.》

《알겠수다.》

시들한 어조로 건성 대답한 운전사는 경행의 어깨를 툭 쳤다.

《가자구.》

《고맙습니다.》

운전칸에 오른 경행은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려인숙안으로 들어간 고마운 처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전주거리를 벗어난 자동차는 남쪽으로 달렸다.

그믐달을 삼켜버린 밤하늘에서는 이른봄의 차거운 비꼬치가 떨어지고있었다.

이른새벽에 려수항을 떠난 일제의 화물선갑판에 마흔고개를 바라보는 한 사나이가 검은색 코트자락을 날리며 굳어진듯 서있었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손잡이가 달린 지팽이를 짚었다.

배가 불룩한 려행용가방을 어깨에 걸친 사나이의 얼굴은 결핵환자처럼 하얗게 질려있었다.

구름장이 무겁게 드리운 하늘에서는 비방울이 떨어지고있었으나 사나이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상싶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한벌 내돋았다.

먹사마귀가 도드라진 갱핏한 볼편은 이따금 알릴듯말듯경련을 일으키고있었다.

멀어지는 려수항의 부두에 눈길을 박은채 말뚝처럼 굳어진 이 먹사마귀가 바로 리경행이가 뒤를 밟는 고이시 사부로라는 왜놈이다.

야생적인 포악성과 여우처럼 간특한 이놈의 뒤생활을 들여다보면 그 갈피갈피에 역겨운 악취가 슴배여있다.

…

왜구(일본해적무리)의 후손인 고이시는 조선에 주둔한 일제헌병대에서 《총독부》가 주관하는 조선문화재도굴단을 무력으로 보호하는 하수인이 되여 문화재의 도굴과 략탈, 파괴만행에 항거하는 애국적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탄압학살하였다.

대동강일대의 한 고분도굴현장에서 일제놈들의 날강

도적인 도굴행위에 격분하여 마을사람들과 함께 달려온 한 청년의 가슴에 총창을 박은 고이시는 그가 후려치는 곽지날에 찍혀 다리뼈가 부서지는 통에 절름발이가 되여 군적에서 제명되였다. …

도적개처럼 제 소굴로 꽁무니를 빼는 고이시의 불룩한 가방속에는 비렬한 수법으로 강탈한 고려청자기와 수십점의 문화재가 들어있다.

고려청자기는 놈이 문화재도굴단을 따라다니던 헌병대시절부터 눈독을 들이던 보물이였다.

개성지방에서 략탈한 문화재들을 차에 옮겨실을 때에 있은 일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조선문화재의 예술적가치로 하여 큰 돈이 되는 진귀한 보물이라는 리기적인 욕심에만 정신을 팔고있던 고이시는 저도모르게 고려청자기를 집어들었다.

그것을 만지는 그의 머리속에는 당장 훔치고싶은 생각이 굴뚝처럼 치밀었다.

순간 코등에서 불이 번쩍했다.

《악!》

헌병장교의 주먹이 날아들었던것이다.

코피가 터진 낯짝을 두손으로 싸쥐는 통에 고려청자기는 땅에 떨어져 박살이 났다.

한바탕 주먹을 휘두르고난 장교는 스산한 몰골을 한 고이시를 쓰겁게 쏘아보았다.

《아픈가?》

《예. …》

고이시는 피칠갑을 한 상판을 닦을념도 못하고 자세를 바로 잡았다.

장교는 따졌다.

《왜 맞았지?》

《보물이 희한해서 욕심을 냈기때문에…》

《우리가 왜 고분까지 도굴하면서 조선의 문화재를 모조리 털어내는지 아는가? 말해봐.》

《…》

입을 벌리지 못하자 주먹이 또다시 코등을 들이쳤다. 고이시는 땅바닥에 나딩굴었다.

《일어서라!》

비틀거리며 일어서자 딱딱한 목소리가 고막을 울렸다.

《우리 일본이 조선이라는 이 땅의 영원한 정복자가 되자면 민족의 넋을 밑뿌리채 없애버려야 한다. 슬기롭고 문명한 민족임을 말해주는 조선의 민족문화유적, 유물들을 모조리 마스고 불태워버려야 하며 력사적재보들을 일본의 〈국보〉로 만들어야 한단 말이다!》

그때부터 고이시의 머리속에는 문화재의 강탈이 조선민족의 넋을 말살하기 위한데 있다는것을 절감하게 되였다.

돈으로만 계산할수 없는 조선문화재의 가치를 골수에 새긴 고이시는 지팽이신세를 져야 하는 병신이 된 후에도 《골동품애호가》의 허울을 쓰고 현해탄을 넘나들면서 문화재강탈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흉악한 날강도가 되였다.

고려청자기를 손에 넣으려는 굴뚝같은 욕심을 늘 품고있던 고이시는 드디여 그것을 손에 넣는 행운을 지니게 되였다.

능갈친 사기협잡에 리경행이라는 젊은이가 걸려들었던것이다.

서둘러 전주려인숙에서 꼬리를 사린 그는 마침내 일본으로 떠나는 화물선에 몸을 실을수 있었다.

배는 기슭을 떠났으나 죄진자의 심리라고 할가 보이지 않는 불행이 엄습해오는듯한 불안감을 털어버릴수 없었다.

아닐세라 눈이 뒤집히게 놀라운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다.

그것은 닻을 올린 화물선이 고동을 울리며 려수항을 떠나는 순간에 눈앞에 펼쳐졌다.

움직이기 시작한 배를 향해 화살처럼 달려오는 사내를 보았던것이다.

두눈에 불이 펄펄이는 사내가 바로 고려청자기의 임자였던것이다.

(저놈이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왔는가?…)

놀라왔다.

무서운 공포심에 등골이 써늘했다.

다행스럽게도 배는 이미 부두에서 바줄 한기장만치 벌어졌다.

건늘수 없는 물결을 사이에 두고 부두와 갑판에 마주선 주인과 강도의 눈길이 허공에서 부딪쳤다.

리경행의 불을 내쏘는듯한 눈길에 고이시 사부로는 기가 질렸다.

소름이 끼치는 무서운 눈초리였다.

…10여년전, 고분도굴현장에서 총창에 찔려서도 높이 쳐들었던 곽지로 자기를 내리찍던 젊은이의 눈초리가 바로 저랬다.

그렇듯 불이 이글거리는 눈길이 무섭게 노려보고있는것이다.

어느덧 배는 기슭에서 퍼그나 멀어졌으나 그자리에 얼어붙은 고이시는 속이 떨렸다.

눈에 불이 달린 그 청년이 현해탄을 건너오는 날에는 무슨 벼락을 맞을런지 알수 없는 일이였다.

고이시는 턱이 비틀어지게 이발을 갈았다.

《망할 자식, 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봐라. 개처럼 목을 달아매고 깝대길 벗길테다!》

왜구의 후예인 강도의 눈에서는 그 어떤 악행도 마다하지 않을 무서운 적의가 번뜩이고있었다.

철썩 처절썩…

잔물결이 기슭을 치는 부두가에 리경행은 화석처럼 굳어졌다.

으스러지게 틀어쥔 두주먹이 진정을 못하고 후들후들 떨린다.

그는 검푸른 수평선너머로 멀어지고있는 일제의 화물선을 뚫어지게 쏘아보고있었다.

속이 온통 무너져내리는듯한 신음소리를 토한 경행의 두눈에서는 여전히 증오가 이글이글 타번지고있었다.

《고이시 사부로, 온 일본땅을 뒤져서라도 도적개같은 네놈을 기어이 찾아내여 모가질 비틀어놓을테다!》

철문처럼 꽉 다물린 그의 입은 이렇게 부르짖고있었다.

울컥울컥 치미는 분노를 걷잡지 못하며 발길이 닿는대로 터벅터벅 걸음을 옮기던 경행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에 얼굴을 들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물고기시장입구였다.

술한 사람들이 선술집담벽에 나붙은 광고앞에 몰켜서서 웅성거리고있었다.

《속는셈치고 함께 가보지 않겠나?》

《쪽발이놈들의 수작은 믿을게 못돼.》

…

경행이도 그들속에 끼여들었다.

광고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씌여있었다.

…하루 임금은 5원, 식사는 백미, 의복과 신발은 무상으로 공급. 널리 지망할사.

일본 북해도탄광에서 인부를 모집한다는 왜놈들의 광고였다.

내용은 화려해도 그것을 믿는 사람은 없었다.

제나름으로 술렁거리던 사람들은 왜놈쪽발이들이 꿀발린 수작을 한다면서 뿔뿔이 흩어졌다.

광고에 눈길을 박은 경행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물론 간사하고 악착한 왜놈들의 광고는 믿을것이 못된다. 나 역시 왜놈의 사기협잡에 넘어가 대를 물려오던 집안의 가보를 빼앗기지 않았는가.

하지만 일본으로 갈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싶지 않았다.

마음에 걸리는것이 있다면 집에 알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이때 등뒤에서 그의 어깨를 툭 치는 사람이 있었다.

돌아보니 사복형사인듯한 두 사나이가 싸늘한 눈길로 뚫어지게 지켜보고있었다.

그중 한놈이 물었다.

《야, 넌 어디서 굴러온 뜨내기야?》

싱거운 수작질에 경행은 밸이 살아났다.

《뭐라구? 난 뜨내기가 아니요.》

《이게 어따대구… 묻는 말에 대답해!》

《순창사람이요. 그래, 어쨌단 말이요?》

그러자 키가 껵두룩한 사나이가 그의 팔을 거머잡았다.

《알아볼게 있으니 주재소로 가자.》

《이걸 놓소!》

경행은 그놈의 팔을 뿌리쳤다.

그러자 두놈이 량켠에서 그의 팔을 꽉 붙들었다.

《잔소리말고 가자!》

경행은 영문도 모르고 강제련행을 당하였다.

죄를 지은것도 없거니와 려수에는 아는 사람조차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알아본단 말인가?…

경행은 자기가 징용의 올가미에 걸려들었다는것을 알수 없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 밤.

하늘과 바다가 맞붙은 캄캄한 어둠속으로 발동선 한척이 동쪽으로 흘러가고있었다.

려수항을 떠나 일본의 시모노세끼로 침로를 잡은 일제의 련락선이였다.

어슬막에 부산앞바다를 지나친 련락선은 일본의 규슈섬 북서해안과 쯔시마섬사이의 파도 사나운 바다여울인 현해탄을 가까이하고있었다.

밤이 깊어지면서 물결이 높아졌다.

갑판우에는 개털외투깃에 목을 움츠린 경찰놈들이 얼어드는 발을 구르면서 배를 순찰하고있었다.

배밀창의 무덤속같은 짐칸안에는 수백명의 청장년들이 빼곡이 들어앉았다.

징용으로 끌려가는 조선사람들이였다.

천정에서는 대추씨같은 불꽃이 가물거리는 남포등이 향방없이 흔들리고있었다.

희미한 불빛에 희끗희끗 드러나군 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일제놈들에 대한 분노와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할수 없는 절망감이 뒤엉킨 불길한 그림자가 무겁게 비껴있었다.

그들속에는 벽에 등을 기댄채 천정에서 위태롭게 건들거리는 남포등에 눈길을 던지고있는 리경행도 들어있었다.

그는 현대판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한 수난자들의 가슴찢기는 목소리를 듣고있었다.

…나무짐을 지고 장보러 갔다가 순사놈들에게 붙잡힌 시골총각이 있는가 하면 집에서 자다가 문을 걷어차고 달려든 놈들에게 습격을 받아 옷도 갈아입지 못한채 부모처자와 생리별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다.

잔치날 색시를 데리고오다가 길목을 지키고있던 놈들에게 걸려들어 코등을 얻어맞으며 물건짝처럼 자동차에 처실린 청년도 있었다.

그뿐이 아니였다. 《창씨개명》을 하지 않는다고 주재소에 불리여갔다가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선자리에서 끌려온 사람도 여럿이였다.

일제의 강제련행은 《노예사냥》을 방불케 하는 공개적이며 대규모적인 방법으로 감행되였다.

1938년 2월 22일에 조선의 청소년들을 전쟁대포밥으

로 끌어내기 위하여 《조선인륙군특별지원병령》이라는것을 만들어 4월 3일부터 실시하여온 일제는 뒤이어 《국가총동원법》이라는것을 공포하여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전쟁수행에 총동원할수 있는 《법적》, 《제도적》장치를 마련해놓았다.

그리고 1939년 7월 8일에 일본에서 《국민징용령》을 공포실시한데 이어 10월 1일부터는 조선에서도 《국민징용령》을 시행하여 조선사람들에게 징용과 징병을 의무화하였다.

당시 조선주둔 일본군과 헌병, 경찰놈들은 자동차를 몰고 도시와 농촌을 싸다니면서 대낮에 길가는 사람이건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건 깊은 밤에 잠자는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마구 잡아서 포승줄로 수십명씩 묶어싣고갔다.

일제는 장정들뿐아니라 로약자들과 부녀자들 지어 만삭이 된 임신부들과 고령의 늙은이로부터 어린 소녀에 이르기까지 조금이라도 로동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남녀로소를 가리지 않고 최후발악적으로 강제련행해갔다.

일제의 강제련행—랍치행위는 고대, 중세암흑시기의 《노예사냥》보다도 원시시대의 야만인들이 산과 들에서 짐승을 마구 덮쳐 잡던것에 더 류사하였다.

일제놈들에게 이렇게 잡혀서 련행되여간 조선사람의 인원수는 문건기록에 남은 자료에 의한것만 하여도 륙해군 징병이 24만 847명, 륙군《지원병》이 1만 7 664명, 《학도병》이 4 385명, 륙해군《군속》이 15만 4 186명으로 모두 합하여 41만 7 082명에 달한다.

이밖에 일제놈들에게 랍치되여간 징용자수는 778만 4 800여명이나 되였다.

일제는 조선의 모든 인적자원을 침략전쟁수행에 강제동원하기 위하여 《국가총동원법》, 《로무징용령》 등 수많은 파쑈악법들을 조작한데 이어 조선《총독부》안에 《조선로무협회》라는 기구까지 내왔으며 각 도에는 그 《지부》를, 군과 면들에는 《분회》를 두어 그 조직망을 조선각지에 거미줄처럼 늘어놓았다.

이밖에도 일제는 도청과 군청, 면사무소, 경찰서, 주재소 등 식민지통치기구들을 총발동시켜 조선사람들을 닥치는대로 끌어갔다.

리경행도 그들중의 한사람이였다.

그의 곁에 앉은 나이지숙한 청년이 조용히 말을 건넸다.

《무슨 생각을 하오?》

《…》

그는 서글서글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젠 죽든살든 사지판을 함께 헤쳐야 할 처지인데 알고 지내자구. 차인석이라고 하네.》

《리경행입니다.》

차인석은 첫눈에 믿음이 가는 사람이였다.

그는 광주철공소에서 철판을 주무르던 제관공이였는데 고향인 남원으로 어머니의 병문안을 가다가 순사놈들에게 붙들려 이 꼴이 되였다고 했다.

가늘게 한숨을 내뿜는 경행을 이윽히 지켜보던 인석은 《후회란 항상 때늦게 오는 법이지.》 하면서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에게 좋은 친구가 한사람 있었소. 대바르고 다감하고 머리가 비지 않은 정열가였지. 후에 안 일이지만 그는 놈들의 눈을 피해다니는 사람이였소. 그가 신문에 써낸 글이 놈들의 신경을 건드린 모양이요.

놈들의 촉수가 철공소에 미치게 되자 몸을 피했는데 헤여지기에 앞서 그 친구는 내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하더군. 왜놈들이 망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 나라와 민족앞에 부끄럽지 않게 떳떳이 살자고말이요.

그런데 이 꼴이 되고보니 뜻있는분들을 찾아떠난 그를 따라서지 못한 후회가 막심하네.》

그의 입에서는 괴로운 한숨이 흘러나왔다.

잠시 동안을 두었던 인석은 말머리를 돌렸다.

《언제인가 그 친구는 내 고향 남원에도 가고 자기 고향에도 가자고 하면서 희한한 보물을 보여주마 했는데 그 날을 보기나 할런지…》

입을 꾹 다문채 듣고만 있던 경행이 물었다.

《그 보물이라는게 어떤건데요?》

《고려청자기라더군.》

경행은 저도모르게 눈이 커졌다.

《그 친구의 고향이 어딘데요?》

《순창군의 어느 산골마을이라더군.》

《예?!…》

놀라움이 한껏 어린 경행의 눈길은 인석의 얼굴에 못박혀 움직일줄 몰랐다.

어둠때문에 그의 눈빛에 비낀 이상한 기미를 가려보지 못한 인석은 흔연히 말을 이었다.

《그 친구의 자랑이 어찌나 방불하였던지 난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고려청자기의 은은한 비색에서 말쑥하게 개인 가을날의 푸른 하늘을 보았고 깊은 산골짜기에서 구슬처럼 굴러내리는 수정같은 물소리를 들을수 있었네. 고려청자기가 얼마나 우아했던지 고려시인 리규보의 입에서는 이런 시가 흘러나왔다는구만.》

차인석은 푹 잠긴 목소리로 시를 읊었다.

얼른거림은 푸른 옥의 빛이요
령롱함은 수정의 모습이다
치밀한 옥은 살결과 같고
손을 대이매 옥살결을 만지는것과 같아라
…

꿈결에서처럼 들려오는 시구절…

경행은 허탈상태에 빠진 사람처럼 맥없이 벽에 등을 기댔다.

눈앞에선 천정에 매달린 남포등이 향방없이 그네를 뛴다.

…이글거리는 화로불, 거기에 올려놓은 약탕관에선 씁쓸한 냄새를 풍기면서 흰김을 느물느물 내뿜는다.

화로앞에 나앉은 아버지의 푹 꺼진 두눈에서는 퍼런 불이 철철 흐른다.

험하게 모지라진 손으로 아들이 내놓은 돈을 와락 구겨쥔 아버지의 입에서는 온몸을 얼어들게 하는 벼락이 터졌다.

《얼빠진 녀석, 돈 몇잎이 그리도 욕심나더냐!》

아버지는 손에 쥔것을 화로불에 처박았다.

불이 확 달린 돈은 순식간에 재가루가 되여 흩날렸다.

《아버지, 그건…》

《아버지?…》

아버지는 창끝같은 손가락을 문쪽으로 쭉 내뻗치면서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쳤다.

《이 집안엔 너처럼 쓸개빠진 놈이 있을 자리가 없다. 나가라!》

《?!…》

《썩 나가란 말이다!》

경행은 고개를 푹 떨구면서 두손으로 머리를 싸쥐였다.

《아…》

화로불은 눈앞에서 그냥 이글거린다. …

《왜 그러오. 몸이 편찮은게구만.》 하는 차인석의 목소리에 리경행은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그제야 그는 눈앞에서 이글거리던 불길이 천정에 매달려 건들거리는 남포등불빛임을 알아보았다.

차인석이 근심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멀미가 나오? 얼굴에 무슨 땀이 그렇게…》

《아니, 아닙니다.》

경행은 아무렇지도 않은듯 태연한 미소를 지어보이려고 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의 속내를 알리없는 인석은 제나름으로 위로의 말을 꺼냈다.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마음을 모질게 먹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경행의 입에서는 다기찬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이미 현해탄을 건늘 잡도리를 했댔으니 두렵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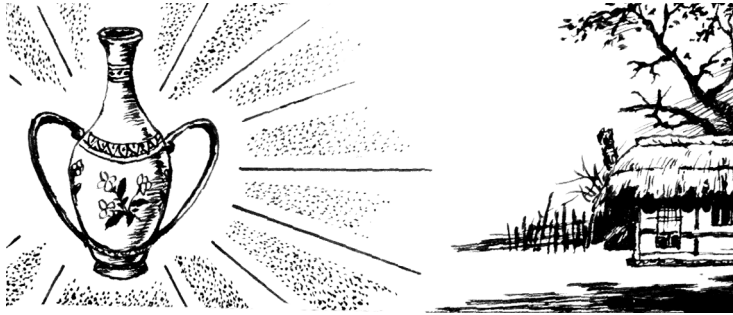
인석은 경행의 심상치 않은 어조며 눈빛에서 가슴속에 쉽사리 끌수 없는 불꾸레미를 품고있다는것을 짐작했다.

가물거리던 남포등이 꺼졌다.

먹물을 뿌린듯 한치앞도 가려볼수 없는 어둠이 숨막히는 《감옥》안을 무겁게 짓누르고있었다.

나라없는 민족의 원한이 서리고서린 현해탄의 거친 물결은 사납게 끓어번지고있었다.

캄캄한 밤, 지옥같은 어둠속…

새날은 아직 멀리에 있었다.

고려청자기

련락선이 일본 시모노세끼항에 닻을 내린것은 어둠이 채 가셔지지 않은 이른새벽이였다.

항구에는 차거운 서리바람이 사납게 불어치고있었다.

우중충한 창고건물지붕우를 가로지른 고압선들이며 앙상한 나무가지들이 창살에 찔리운 맹수처럼 울부짖는다.

검푸른 하늘에서는 바람에 날려 꿈틀거리는 구름장들사이로 뭇별들이 오돌오돌 떨면서 가까스로 깜박거린다.

절망감을 자아내는 스산한 풍경이였다.

청장년들을 호송해온 놈들은 그들을 명단과 대조하면서 부두에 대기하고있던 경찰대에 인계하였다.

징용자들을 넘겨받은 경찰놈들은 사형수들을 호송하듯 커다란 창고앞으로 몰고가더니 줄을 서라고 분주탕을 피우며 법석 고아댔다.

놈들은 걸핏하면 귀쌈을 때리고 구두발로 정갱이를 걷어찼다.

두줄로 늘여세운 놈들은 매 사람에게 번호를 붙이였다.

차인석은 236번, 그와 나란히 선 리경행에게는 237번이라는 번호가 붙었다.

이윽고 대구처럼 주둥이가 툭 삐여진 경찰대의 상관놈이 나타나 대렬을 둘러보았다. 싸늘한 뱀눈을 두릿거리던 대구주둥이는 비린 목청으로 피대를 돋구었다.

《에— 번호를 잘 기억하라. 이 시각부터 너희들의 이름은 없다. 알았는가?》

《…》

왜놈의 땅에 끌려온것만도 분통이 터질 지경인데 이름마저 빼앗기고 노예취급을 당한 사람들의 입에서 대답이 나올리 만무했다.

대답을 받아내겠다는 자체가 인간에 대한 멸시였고 죄악이였다.

《대답해, 알았는가 말이다!》

《…》

《개자식들, 대일본제국에 대한 반항인가? 앙!》

약이 오른 대구주둥이는 본성을 드러냈다. 놈은 둘러선 놈들에게 버릇을 떼주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이리떼처럼 달려든 놈들은 닥치는대로 사람들을 두들겨팼다.

치고 차고… 비명소리가 터지고 피가 튕겼다.

소용돌이치듯 엉켜붙은 청장년들과 놈들사이에는 몸서리치는 란투가 벌어졌다.

맨주먹뿐인 조선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덤벼들었던 놈들은 무서운 소용돌이속에 휘말려들었다.

경행은 피묻은 총창을 휘둘러대는 경찰놈의 아래도리를

발로 드세게 걷어찼다.

새우처럼 허리를 꺾으며 콩크리트바닥에 코를 박은 놈의 몸뚱이를 무수한 발들이 지리밟았다.

호각이 울리고 총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이어 서슬푸른 총창을 거머쥔 놈들이 악악 고함을 지르며 흙탕물처럼 밀려왔다.

청장년들은 끔찍한 봉변을 당하였다. …

놈들은 그들을 부두창고에 걷어넣었다.

창고안에는 하루전에 부산항에서 관부련락선에 실려온 수백명의 징용자들이 갇혀있었다.

창고안은 술렁술렁 끓었다.

누가 듣고 누가 대답을 하는지 알수 없다.

《우릴 밤차로 끌어간대유.》

《어디… 어디로?》

《혹가이도 해군기지래유.》

《아니요. 〈다꼬베야〉랍디다.》

《거긴 또 어떤 곳이요?》

《쪽발이말로 〈문어방〉이란 소린데 숨이 붙어선 세상밖에 나오지 못하는 생지옥이라우.》

…

들리느니 험악한 소리뿐이다.

경행의 명치끝엔 무거운 납덩이가 매달렸다.

차인석의 곁에 슬며시 다가앉은 그는 속에 품고있던 결심을 내비쳤다.

《도망칩시다.》

《?!》

《난 려수항을 떠날 때부터 이 한가지 생각뿐이였

습니다.》

차인석은 새로운 눈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나도 그 말을 하고싶었소.》

《밤차로 호송한다는데 그때…》

《그러세!》

손을 으스러지게 마주잡은 두사람은 목소리를 낮추고 탈출계획을 의논하였다.

마음이 한결 거뜬해졌다.

잠시 동안을 두었던 차인석이 침착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탈출하여 고국으로 돌아가거든 친구도 만나고 고려청자기도 보러 가야지. 경행군도 함께 가자구.》

얼굴에 그늘이 진 리경행의 입에서는 뜻밖의 목소리가 무척 괴롭게 흘러나왔다.

《그의 고향엔 고려청자기가 없습니다.》

《응?… 내 친구인 문형군을 아는가?》

《그는 나의 형님입니다.》

인석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랬댔군. 그런데 고려청자기는?…》

《그 이야길 하자면 길지요.》

《어서 말하게.》

경행은 괴로운 심정을 묵새기지 못하였다.

《말은 듣는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는데 굳이 들어야겠습니까?》

《나를 형님처럼 믿어도 좋네.》

차인석의 진정이 담긴 말을 들으니 눈굽이 찌릿해졌다.

경행은 갈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고향을 떠나게 된 사연부터 말해야겠군요. 지난해 마가을이였습니다.》

고려청자기에 깃든 수난자의 비극적운명에 대한 슬픈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

천성이 다감하여 가난한 살림에도 집안식구들에게 웃음을 주던 둘째(리경행)는 점점 딴사람이 되여가는가싶었다.

요새는 늘 시무룩해가지고 입이 얼어붙었는지 통 말이 없었다.

그를 두고 손우의 누이와 동생들은 물론 어머니는 둘째가 과묵한 아버지의 성미를 닮아간다고들 하였다.

달이 바뀌여 여름 한철도 다 지나가고 날씨는 쌀쌀한 기운을 풍기였다.

둘째는 짬만 있으면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다.

남의 집에 얹혀 곁방살이를 하는 신세여서 땔나무는 해마다 둘째네가 도맡아했다.

그는 하루에도 서너탕씩 나무짐을 지고 땀을 철철 흘리면서 마당으로 들어서군 하였다.

어느덧 마당가녁에는 두집이 한겨울을 날만큼 나무더미가 가려졌다.

둘째의 소꿉시절이 흘러간 고향은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고장이였다.

숲이 울창한 금산에 올라서면 세개의 봉우리가 기묘하게 솟구친 적성산이 눈뿌리를 뽑는다.

적성산의 깎아지른 절벽밑으로는 검푸른 섬진강이 기슭을 어루만지며 금산을 에돌아 무연하게 펼쳐진 들을 적셔

주면서 시원하게 흘러간다.

일곱살때였던지 둘째는 산나물을 뜯으려 집을 나선 어머니의 치마자락에 매달려 아득히 올려다보이는 금산봉우리에 올라갔던적이 있었다.

그때 눈아래 펼쳐진 고향의 모습은 신비스러울만치 아름다왔다.

차차 철이 들면서 나무를 하러 다닐 때에도 둘째는 볼수록 정든 고향산천을 접도록 지켜보군 하였다.

하지만 가까스로 소학교를 마치고 부모를 도와 농사일에 부대끼면서부터는 그렇게도 황홀하던 고향의 아름다움이 그의 시야에서 점점 멀어져갔다.

강기슭에는 기름진 벌이 펼쳐져있어도 거기에 자기네 땅, 자기의 집은 없다. 그것은 전부 마을 한복판의 덩실한 기와집에 틀고앉은 일본놈지주의것이였다.

봄내, 여름내 온 식구가 달라붙어 손끝이 닳도록 땅을 허비며 역사질을 하여도 타작마당에서 소작료와 갖가지 세금, 장리빚을 물고나면 멀건 죽물로 겨울이나 넘길지말지 한 낟알밖에 남지 않았다.

그때마다 온 식솔이 혀를 깨물며 소리없는 눈물을 삼켰다.

불행은 꼬리를 물고 덮쳐들었다.

둘째가 열두살 잡히던 해에 시름시름 앓던 만희누이가 숨을 거두었다.

한창 필 꽃나이에 싸늘하게 식어버린 누이를 목놓아 부르며 어머니는 제대로 먹이지 못해 죽였다고 슬피슬피 눈물을 쏟았다.

여덟남매도 엉엉 소리를 내며 울었다.

둘째는 그때 사람이 죽는것을 처음 보았다.

이듬해에는 지주놈에게 집을 빼앗겼다.

매운 바람이 울부짖던 동지달에 열명이나 되는 온 식구가 한지에 쫓겨나 눈물을 떨구던 광경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뭇새들도 아늑한 보금자리가 있건만 둘째네는 제 집 한칸없이 고달픈 곁방살이를 하고있다.

집없는 설음, 둘째는 이것이 늘 가슴에 맺혀 내려가지 않았다.

어느날 저녁이였다.

아버지는 둘째를 불러앉히였다.

순박하고 어질고 착실한 농사군인 아버지는 원체 말이 없는 사람이였다.

《보아하니 너도 집을 떠날 잡도리같은데 어디 말 좀 해봐라.》

이미전부터 아들의 속내를 들여다보고있은 아버지였다.

아들 역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기다리고있은것 같았다. 둘째는 갑자르지 않고 선선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남의 집 곁방살이라도 면해봅시다. 어디 가서든 일자리를 얻어가지고 집을 마련할 밑천을 장만할가 합니다. 제 집을 가지는것이 소원이니 허락해줘요.》

묵묵히 담배를 태우던 아버지의 목소리는 무뚝뚝했다.

《제 한입 건사하기도 어려운 세월에 되돌아설 길은 떠나지 않는것만 못하니라.》

《그야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음…》

그러자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어머니의 입에서는 서

글픈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에그, 그저 키워놓으면 다 빠지는구나.》

세해전에 일자리를 잡아보겠다고 집을 나간 후 감감 소식이 없는 맏이인 리문형이를 두고 하는 소리였다.

둘째마저 그렇게 될가봐 근심이 산같은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덮치듯 둘째의 손을 꽉 잡았다.

《얘야, 이 시골구석에서 30리를 벗어나보지 못한 네가 무슨 고생을 사서 하자구 안달이냐. 철두 없지. 딴생각일랑 말구 꾹 박혀 농사나 짓자꾸나.》

《…》

《그렇게 하지? 응?》

하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다.

《여보 그만하우. 저애를 끼고있어야 지주집머슴신세를 면치 못하오.》

그러면서 둘째에게 얼굴을 돌렸다.

《떠나거라. 사내가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그만이지. 하지만 반드시 명심할게 있다. 사람이 돈에 빠지면 량심을 잃게 되니라. 그리되면 짐승이 되는게고… 한걸음 잘못 내디디면 천리길을 에도는 법이니 매사에 처신을 잘해라.》

《알겠어요.》

《그래 언제쯤 떠날 작정이냐?》

《래일이라도 떠났으면 합니다.》

아버지는 벌써부터 눈물이 그렁한 어머니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여보, 래일밤 떠나게 길차비를 해주.》

《아니, 하필이면 왜 밤길을 걷게 한단 말이요?》

아버지는 둘째에게 이르는 말로 대답을 대신하였다.

《전주에서 자그마한 인쇄소의 주인을 하는 리만익이란 사람을 찾아가거라. 너한테 삼촌벌이 된다.

네가 어릴적에 우리 집신세를 적지 않게 진 사람이니 일자리쯤은 쉬이 잡아줄게다. 예서 전주까지 하루길이 남는 곳이니 밤중에 문을 두드리지 말고 미리 일찌감치 떠나는게 좋을것 같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나직하면서도 무척 부드러웠다.

오래전부터 별러오던 문제였으나 정작 집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그날밤엔 잠이 오지 않았다.

어머니도 궁싯거리며 온밤 잠들지 못하였다.

밖에서는 겨울을 불러오는 마가을의 찬바람이 앙상한 감나무가지들을 마구 흔들어대고있었다.

다음날.

온 마을이 잠든 한밤중에 둘째는 집안식구들의 눈물에 젖은 바래움을 받으며 소문없이 결방집마당을 나섰다.

동구밖의 새초잎이 설레는 강기슭까지 따라나온 어머니는 크지 않은 보짐을 들려주면서 저고리고름으로 눈굽을 찍었다.

《얘야, 자리를 잡거들랑 이내 기별해라. 집에서 걱정하지 않게…》

《예. …》

《그리구 몸건사를 잘해라. 객지에서 앓아넘어지면 돌봐줄 사람도 없을게다.》

보짐을 어깨에 걸친 둘째는 허리를 굽혔다.

《어머니, 편히 계세요.》

《오냐, 몸성히 다녀오너라.》

가볍게 떨리는 어머니의 음성은 눈물에 젖어있었다.

서러움에 목이 꺽 메는 작별이였다.

몇걸음 못가서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의 모습은 짙은 어둠속에 묻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경행의 눈앞에는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서계시는 어머니의 측은한 모습이 자꾸만 밟혀왔다.

아지많은 나무 바람잦을새 없듯이 언제한번 변변히 입지도 잡숫지도 못하고 고생속에 시들어가는 어머니였다.

어느해였던지… 리경행이가 소학교 2학년때였으니 10년전 일이다.

순창읍에서 떡장사를 하는 동무네 집에 놀러 갔던 그는 그 집에서 싸준 송편 몇개를 어머니에게 가져다드린적이 있었다.

점심밥을 모르고 자란 아들이 쥐여주는 송편을 받아든 어머니는 너나 먹으라고 사양했다.

그것을 어머니의 입에 넣어주면서 아들은 물었다.

《맛있나요?》

《응, 별맛이구나.》

《엄만 제일 잡숫고싶은게 뭐나요?》

《소고기를 실컷 먹어봤으면 원이 없을것 같다.》

《소고기? 어만큼이면 될가?》

《주먹만큼, 허허…》

《아이고 도제 고만큼…》 하면서 그는 두팔을 벌려보였다.

《두고봐. 내가 크면 엄마의 소원을 풀어드릴테야. 이만큼!》

《저런!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구나.》

괜한 소릴 했다면서 웃어넘기던 어머니의 모습이 어제일이런듯 삼삼히 떠올랐다.

주먹만한 고기점… 경행은 아직 어머니의 그 자그마한 소원을 풀어드리지 못하였다.

갑자기 눈이 쩌릿해지면서 설음이 북받쳤다. 뜨끈한 눈물이 두볼을 적시며 굴러떨어졌다.

(무슨 일이든 손발을 부지런히 놀려 내 손으로 집을 마련하고 어머니의 소원도 풀어드리자.)

이렇게 되뇌이면서 그는 강기슭을 따라 내처 걸었다.

소리없이 흐르는 강물우엔 하늘에서 쏟아져내린 뭇별들이 잔물결에 부딪쳐 끝없이 부서지고있었다.

날이 푸름푸름 밝아올무렵에 순창군지경을 벗어난 경행은 지름길을 물어가면서 걸음을 다그쳤다.

그는 아직 해가 서발이나 남아있을 때 전주거리에 들어설수 있었다.

전주는 퍼그나 번화한 도회지였다.

전주의 모악산에는 고려때 주성을 일시 강점하였던 왜놈들이 어느 한 절간에 진을 치고있다가 그곳을 들이친 애국적인민들에 의하여 멸살된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깃들어있다.

전주일대에서 제일 유명한것은 닥나무종이이다.

일명 《전라도닥지》로 불리우는 이 종이는 그 종류만 하여도 10여가지나 되는데 그것을 사려고 국내는 물론 일본의 장사치들도 적지 않게 이곳으로 찾아들었다.

리경행이 찾아가는 사람도 크지 않은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학용품과 사무용품, 장판지나 도배지 같은것을 만들어 주문자들에게 팔아넘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였다.

그의 집은 번잡한 큰길에서 얼마간 떨어진 변두리에 있었다.

벽돌담장을 두른 아담한 기와집이였다.

대문앞에서 주춤거리는데 인기척이 났다.

《임잔 누군가?》

이렇게 묻는 사람은 어디서 한잔했는지 낯이 벌겋게 익은 중년이였다.

《저… 이 집의 리만익이란분을 찾아왔습니다.》

《나를 말인가? 처음보는 젊은이군.》

반가왔다.

리경행은 인사를 하고 자기 소개를 하였다.

《그런즉 네가 진우형님의 둘째 경행이구나.》

리만익은 경행의 실팍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여간 반가와하지 않았다.

《네가 이렇게 자란걸 보니 세월이 흐르긴 흘렀구나. 허허… 집에서는 다들 편안하시냐?》

《예.》

《어서 들어가자.》

방안에 들어선 만익은 젊은 안해에게 경행을 소개했다.

아래목에 앉아 어린애에게 젖을 물린 그 녀자는 인사를 차리는 상대의 외모를 재빨리 훑어보며 알릴듯말듯한 눈웃음을 지어보이는것으로 알은체를 하고는 눈덕을 내리깔았다.

가난한 시골총각이 찾아든것을 귀찮아하는 눈치였다.

만익은 자리를 권하고나서 집안소식을 물었다.

《그래 집에서는 어떻게들 지내느냐?》

경행은 기울어진 집안형편을 간단히 말해주었다.

머리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듣고있던 만익은 문득 말머리를 돌리였다.

《참, 집에 아직 고려청자기가 있는지?》

《예.》

《음, 요즘 세월에 그거라도 팔면 살림에 도움이 될텐데… 하지만 너의 아버지성미에 입에 거미줄이 쳐도 그걸 내놓을 사람이 아니지.》

편안치 못한 자리에서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언짢았다.

고려청자기로 말하면 대를 물려오는 집안의 가보였다.

몇해전 어느날, 경행은 아버지에게 고려청자기를 팔면 돈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가고 물어본적이 있었다.

그때 아버지와 아들사이에는 이런 말이 오고갔다.

《이것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진귀한 보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래서 섬나라 쪽발이놈들이 눈독을 들이면서 강탈을 서슴지 않는게다.

둘째야, 내 하나 물어보자. 누가 너에게 돈을 한달구지 주겠다면 어머니를 팔아먹겠냐?》

《어머니를요?!… 안돼요. 한달구지가 아니라 돈을 산더미만큼 준대도.》

《옳은 말이다. 고려청자기로 말하면 너희들을 낳아 젖먹여 키워준 어머니못지 않게 귀한거라고 말할수가 있다.》

《?…》

《왜 그런고 하니 거기엔 돈으로 흥정할수 없는 민족의 얼이 깃들어있기때문이다. 사람이 눈동자없이 살수는 있어도 앞을 보지 못하는것처럼 얼을 떼놓으면 허울만 남은 병신짝이 되는거나 마찬가지란다. 그래서 제정신을

못가진 사람을 가리켜 얼빠진 놈이라고 하는거다. 왜놈들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의 무리들이 바로 그런 놈들이지.》

그런 일이 있은 후 경행은 고려청자기에 대한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집안에 그렇듯 귀한 가보가 있는것을 남다른 자랑으로 간직하고있었다.

그는 불쾌한 마음을 누잦히며 찾아온 사연을 터놓았다.

일자리를 부탁하니 리만익은 선선히 입을 열었다.

《알겠다. 마침 절단공을 한사람 받으려던 참인데 잘됐다. 불편한대로 숙식은 우리 집에서 하면 되는게고…》

《고맙습니다.》

《고맙긴…》

만익의 아량은 고마왔으나 어쩐지 마음은 무거웠다.

그날밤이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굳잠이 들었던 리경행은 미닫이너머 아래방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귀를 강구었다. 량주가 다투고있었다.

《…순창서 온 총각말이예요. 하숙방을 구해가지고 그리로 나가라고 해요.》

《또 그 소리요?》

안주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에구— 오지랖두 넓수다. 우리 집에서 남좋은 일이나 하라구 인쇄소를 당신에게 맡기고 이 집이랑 마련해준줄 알아요.》

돈냥이나 있는 처가에서 뒤를 대주어 밥술이나 뜨는 리만익은 찍하면 그 재세를 하는 녀편네에게 축잡혀사는 사람이였다.

그 녀자는 그냥 바가지를 긁었다.

《나중엔 별것들이 다 기신기신 코를 들이민다니까.》

《여보, 어려서 외토리가 된 나를 데려다 한가마밥을 먹이면서 돌봐준게 그의 부모님들이란 말이요. 사람이 그러면 못쓰오.》

《흥, 사돈에 팔촌까지 한구들 끌어들이구려.》

《나중엔 못하는 수작이 없군.》

《듣기 싫어요!》

《엑, 이걸 그저…》

…

(아, 내가 오지 말아야 할데를 왔구나.) 하는 후회가 경행의 머리를 마구 휘저어놓았다.

당장 자리를 차고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가고싶은 역겨운 생각에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삼촌이란 사람이 불쌍했다.

이튿날 아침, 몇술 뜨는둥마는둥 아침상을 물린 경행은 안주인이 자리를 뜨자 조용히 입을 열었다.

《시골에서 흙이나 주무르던 나에겐 절단공일이 적당치 않을것 같습니다. 다른 일자리가 없을가요?》

짓수굿이 앉아 담배를 태우던 만익은 부엌쪽에 마뜩지 않은 눈총을 쏘면서 김빠진 소리를 하였다.

《지난밤에 녀편네가 양양거리는 소릴 들은 모양이구나. 돈보구 세상에 나온것하구 살자니 나살이나 건사한게 면목이 없구나.》

《…》

《뭐니뭐니해도 마음이 편해야지.》

집을 나선 만익은 갖가지 간판이 내걸린 점포며 가게방,

음식점들이 비좁게 늘어선 큰길가에 자리잡은 종이판매점으로 그를 데리고갔다.

종이판매점주인인 진석환은 리만익을 친절히 맞아주었다.

리만익은 리경행을 소개하고나서 일자리를 부탁하였다.

사람의 금새를 가늠해보듯 상대를 찬찬히 뜯어보면서 말을 몇마디 시켜본 진석환은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마음에 드는 젊은일세. 소학교밖에 못다녔다지만 내가 맡아보던 서무처리를 맡겨도 감당할것 같네.》

《많이 가르쳐주십시오.》

《일만 착실히 잘해주게. 손해는 없을걸세.》

석환은 정도이상의 친절을 보였으나 경행은 별로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였다.

개기름이 도는 얼굴에 술독이 오른 검붉은 벌렁코며 웃음속에 감도는 타산적인 눈길때문인지도 모른다.

진가로 말하면 전주지방에서 나는 닥나무종이를 거의나 손아귀에 거머쥐고 각곳에서 찾아드는 장사치들에게 무더기로 팔아넘기는 밑천이 든든한 수완가였다.

세줄이 든든한 왜놈들과의 교제도 깊다.

그는 판을 더 크게 벌려 일본상품을 채운 상점까지 차려놓을 심산이다.

첩을 갈아대면서도 아직 자식을 보지 못한 진가는 얼마전부터 전주려인숙의 주인인 젊은 과부와 눈이 맞아 돌아가고있었다.

자기의 일손을 덜어줄 적임자를 물색하던 진가의 눈에 든것이 리경행이였다.

진가에게 고용된 사람들은 오자마자 주인의 눈에 든 작

달막한 시골총각을 놀라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경행을 눌러앉힌 진가는 장부들을 번지면서 물건거래와 관련한 절차며 묘리, 현금처리와 같은 실무적인 문제들을 세세히 알려주었다.

어지간히 머리가 돌아야 하는 복잡한 일거리였다.

어렵지 않게 묘리를 터득한 경행은 얼마후 빈틈이 없는 일솜씨를 보이기 시작했다. 찾아오는 거래대상들과의 관계도 잘 가졌다.

한푼도 축나지 않는 현금을 정확히 들여놓군 하는 정직한 마음씨를 확인한 진가는 복덩이가 굴러들었다고 속으로 은근히 환성을 올렸다.

진가는 역시 사람을 볼줄 아는 작자였다.

그때부터 그는 마음놓고 제볼장을 보러 돌아쳤다. 경찰나부랭이들과 술판도 자주 벌리였고 일본에서 온 왜놈들과의 교제도 잦아졌다.

눈코뜰새 없는 바쁜 나날이 흘러갔다.

어느덧 설이 지나고 대소한절기도 넘어섰다.

그사이 시골티를 벗은 리경행은 별로 막히는데가 없는 일군으로 자리가 잡혔다.

그동안 진가는 선심이나 쓰듯 양복을 한벌 갈아입히고는 보잘것 없는 로임에서 숙식비와 함께 다달이 그 값을 뜯어냈다.

그러다보니 경행은 아직 제가 번 돈을 손에 쥐여보지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경행은 고향에서 보내온 편지를 받았다.

맏누이인 귀순이가 보낸 편지에는 놀라운 사연이 적

혀있었다.

지난달부터 바깥출입이나 겨우 하던 아버지의 병세가 위급하여 추설 가망이 보이지 않으니 속히 다녀가라는 놀라운 소식이였다.

불의의 타격에 뒤통수를 얻어맞은듯 정신이 아찔했다.

(웬간해서는 앓는 본새를 모르던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되셨단 말인가. …)

저세상문턱에 한발을 들여놓은 아버지를 살리자면 당장 돈이 있어야 한다.

그의 머리속에는 한가닥의 희망을 걸고 자기를 기다리고있을 어머니와 누이, 동생들의 모습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어떻게 할것인가?)

리만익에게는 기대를 걸것이 못된다. 그를 찾아간댔자 린색한 안해와 집안싸움이나 터질것이다.

주인인 진석환은 지독한 노랭이다. 완주군 시골지주의 둘째아들인 그는 몇푼의 돈이 아까와서 제 애비장례에도 발길을 하지 않은 수전노였다. 그것이 바로 지난달에 있은 일이다.

그때부터 경행은 진가를 바로보지 않는다.

골이 지끈지끈 아파났다.

(어떻게 할것인가?…)

이때 얼굴에 웃음을 담은 진가가 술냄새를 풍기며 방에 들어섰다.

《마침 있었군.》

《…》

리경행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색을 느낀 진가는 책

상에 놓인 편지에 눈길을 보냈다.

《내가 좀 봐도 일없을가?》

《보지 않는 편이 나을겁니다.》

《원, 그럴리야 있겠나. …》

편지의 글줄을 더듬는 진가의 눈에는 알릴듯말듯한 미소가 언듯 스쳤다.

《아버지가 안됐군. 하지만 걱정말라구.》

경행은 그 말을 쉽게 번지는 진가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

진가는 편지를 넘겨주었다.

《임자에게 호박이 넝쿨채 떨어졌네.》

《무슨 말씀인지?…》

《일어서게. 가면서 이야기하자구.》

경행은 진가가 이끄는대로 그를 따라섰다.

길거리에 나선 진가가 입을 열었다.

《집에 고려청자기가 있다지?》

《누가 그럽디까?》

《며칠전에 리만익이란 량반의 집에서 한잔했는데 그의 처가 그러더군.》

경행은 걸음을 멈추었다.

《그걸 팔라는 흥정때문이라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속단하지 말라구. 집안의 가보를 팔다니…》

그러면서 경행의 팔을 잡아끌었다.

《가보면 임자도 마다하지 않을걸세. 가자구. 좋은 일은 서둘러야 한댔어.》

진가는 시뿌둥해하는 그를 려인숙으로 이끌었다.

진가와 정분이 났다는 몸집이 풍만한 녀주인이 덩지에 어울리지 않게 새물거리며 그들을 맞아들였다.

분곽처럼 깨끗하게 꾸려진 뒤골방에는 푸짐한 음식상이 차려져있었는데 거기에는 기다리고있는 사나이가 있었다.

진가는 볼에 먹사마귀가 도드라진 사나이에게 허리를 굽석 꺾어보이면서 리경행을 소개했다.

《고이시상, 제가 말씀드린 리군입니다.》

좁은 이마에 하관이 빠른 사나이가 벽에 기댔던 등을 떼면서 반색을 했다.

《알게 되여 반갑소. 고이시 사부로라고 합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왜놈과 맞다든 경행은 기분이 잡쳤다.

그의 기분상태를 감촉한 고이시 사부로는 미리 외워두었던 대사를 외우듯이 자연스럽게 조선말로 혀바닥을 굴렸다.

《리군, 그렇게 날을 세운 눈으로 보지 마오. 난 총칼을 쥔 군대나 경찰과는 인연이 없는 평범한 민간인 〈골동품애호가〉일따름이요.》

접대원을 부르려는 진가를 손짓으로 눌러앉힌 그는 가죽가방에서 시꺼먼 술병을 끄집어냈다.

《내가 가져온 일본술이나 듭시다.》

허리가 잘룩한 유리잔에 술을 붓는 그를 여전히 날이 선 눈으로 뜯어보던 리경행은 담담한 어조로 물었다.

《일본술이나 마시자고 나를 청하진 않았을텐데 용건이 뭡니까?》

《아, 그렇군. 맑은 정신에 그 문제부터 합의를 봅시다. 진상, 당신이 설명하오.》

《래일모레쯤 고이시상이 주관하는 〈골동품전시회〉가

전주바닥에서 열리게 되네.》

이렇게 말꼭지를 뗀 진가는 경행의 곁에 바싹 붙어앉아 손세를 써가면서 입을 놀렸다.

《그런데 전시회에 내놓을 문화재들중에 고려청자기가 없으니 닭알 노란자위가 빠진것처럼 아쉽기가 그지없단 말일세. 내 그래 들은 소리가 있어서 리군네 집에 고려청자기가 있다는 말을 비쳤더니 그걸 하루만 전시할수 있게 빌려준다면 사례를 후하게 하겠다는거야. 어떤가?》

경행은 대답을 기다리는 고이시 사부로를 쳐다보았다.

《일본사람이 일본것이 아닌 조선의 력사유물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연다는것이 리해되지 않는데요?》

정통을 찌르는 질문이였지만 그에 대한 대답도 할줄아는 먹사마귀였다.

《예리한 질문이군. 력사가 짧은 일본은 자랑할만한게 없습니다. 내가 체험한데 의하면 조선 〈골동품전시회〉를 이미 여러 지방에서 진행하였는데 그에 대한 조선사람들의 인기는 대단했소. 솔직히 말해서 인기가 높으니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이 잡화상이나 약장사 같은데 견줄수 없으리만치 크더란 말이요. 그런데 방금 진상도 말했지만 닭알의 노란자위와도 같은 유명한 고려청자기가 있어야 인기가 더 올라가겠더란 말이요.》

잠시 동안을 두었던 그는 말을 이었다.

《만일 고려청자기를 빌려주는 아량을 보인다면 선금 10원에… 40원을 약속할 용의가 있소.》

진가가 그 말에 꼬리를 달았다.

《지금 장마당에서 소 한짝에 50원정도인데 고려청

자기 하루 빌려주고 그게 어딘가. 나같으면 마다하지 않겠네.》

《…》

경행은 생각이 깊어졌다.

왜놈의 주머니를 채워준다는 점에서는 속이 켕긴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민족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인 문화재를 보여줄수 있으니 이놈이 바라는것보다 훨씬 더 큰것이 아니겠는가. …

당장 돈이 필요한 그로서는 쉽지 않은 이 기회를 놓치고싶지 않았다.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한 먹사마귀는 제편에서 섭섭한 태도를 보였다.

《정 난처하다면 그만두어도 일없소. 날자를 며칠 미루면서 수소문하면 다른 적임자가 나질테니까. 그럼 술이나 듭시다.》

례사롭게 던진 그 수작은 로회한 날강도의 마지막주패장이였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드디여 경행은 눈을 들었다.

《그 약속을 무엇으로 담보하겠소?》

《당신의 주인인 진상이 보증하는 계약서면 만족하지 않을가요?》

그러면서 그는 진가를 바라보았다.

《진상, 계약을 담보하는 보증을 서주겠소?》

《여부가 있습니까. 량자간에 리로운 일인데 목을 내대고 보증합시다그려. 하하…》

합의가 이루어지자 계약서가 만들어졌다.

계약서에는 고려청자기를 전시장에 하루 진렬하는 대가로 선금 10원을 즉시 내주며 나머지 40원은 고려청자기와 함께 어김없이 정히 돌려준다는것을 담보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그동안 계약서를 통한 신용거래를 적지 않게 해온 경행은 이번 일도 드팀없이 담보되리라고 믿었다.

세사람은 계약서에 맞도장을 찍었다. 그런 다음 리경행은 계약서와 함께 선금 10원을 받았다.

진가는 큰 공이라도 세운 사람처럼 빙글거리면서 잔을 들었다.

《자, 경행군 쭉 들자구.》

먹사마귀도 흡족하여 잔을 들었다.

사소한 실책이 비극적인 사태에로 번져지는 경우가 있는 법이다.

이번일이 바로 그랬다. 남을 속일줄 모르는 고지식한 성품을 물려받은 경행에게는 속에 칼을 품고서도 웃을줄 아는 악한들의 진속을 들여다볼줄 모르는 순진한 약점이 있었다.

그러니 고이시가 《골동품애호가》라는 간판을 내걸고 일제경찰의 비호를 받는 날강도일줄이야 상상이나 하였겠는가.

그것을 깨닫기에는 아직 먹은 나이가 적다고 해야 할것이다.

받아든 술잔을 그대로 놓기에는 자존심이 허락치 않아 한모금 들이킨 그는 뜨끈한것이 금을 그으며 속으로 흘러드는것을 느끼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날이 어뜩 밝자 경행은 자전거를 타고 고향으로 내달렸다.

낮전에 마을에 들어선 그는 땀을 훔치면서 마당으로 들어갔다.

《아이구 둘째가 오는구나.》

물동이를 끼고 나오던 주인집아낙네였다.

《아버지의 병세가 어때요?》

《달구지에 싣고 읍거리 고려의원한테 갔단다. 막냉이 오행이까지 울면서 따라가더구나. 아무리 말려도 어디 말을 듣더라구.》

순간 걷잡을새없이 눈물이 괴여올랐다.

《너무 상심말아. 단단하던 사람이 앓아누우면 되게 앓는다더라. 일없을게다.》

경행은 갈리는 목소리로 당부했다.

《내 전주에 다시 갔다가 그길로 돌아설테니 어머니가 오시거든 그렇게 전해줘요.》

《가만, 끼때가 다됐는데 있는대로 한술 뜨고 가거라.》

《그럴새가 없어요.》

방으로 들어간 그는 낡은 장농을 열어젖히고 맨 밑창에 깊숙이 건사한 고려청자기를 꺼냈다.

기쁜 일이 생겼을 때에도, 재난이 겹쌓일 때에도 아버지는 그것을 보면서 자식들을 대바르게 키워왔다.

고려청자기를 이윽히 들여다보던 경행은 그것을 보자기에 정히 싸서 어깨에 단단히 둘러멨다. …

여기까지 이야기한 리경행은 참기 어려운듯 입술을 꽉 깨물었다.

차인석이 침묵을 깨뜨렸다.

《그렇게 되여 고려청자기가 왜놈의 손에 들어갔군.》

《내가… 정신이 쑥 빠졌댔지요. …》

…그가 다시 고향집에 들어선것은 어스름이 내려앉은 그날저녁이였다.

집안에 들어서니 그사이 반쪽이 되여버린 어머니가 《네가 왔구나.》 하면서 눈굽을 훔쳤다.

그를 바라보는 형제들의 얼굴에는 먹구름이 떠돌고있었다.

기척없이 누워있는 아버지의 손을 만져보니 산 사람 같지 않게 선뜩했다.

《어머니, 의원이 뭐랬어요?》

《원기가 빠져서 그리됐다면서 약을 몇첩 지어주더라. 곰열을 함께 쓰면 알도리가 있다구 하더라만…》

어머니는 말끝을 흐리면서 화로우에서 흰김을 느물느물 피워올리는 약탕관을 물끄러미 들여다본다.

《동네에 곰열이 없을가요?》

《마름네 집에 있긴 한데 그 좀두상이 소 한마리값을 부른다니 어디 엄두나 내겠니.》

《어머니, 그걸 가져오자요.》

어머니는 말을 잘못 듣지나 않았나 해서 아들을 놀랍게 쳐다보았다.

아들은 어머니앞에 10원짜리 한장을 내놓았다.

《이걸 가지고가서 나머지값은 이틀안으로 치르겠으니 곰열을 달라고 합시다.》

어머니는 눈이 국사발처럼 커졌다.

《너 이 돈 어디서 났니? 그리구 이틀후엔 무슨 수로 돈이 생긴단 말이냐?…》

《됐어요, 어머니.》

《되다니?…》

어머니는 아들의 눈을 붙들고 놓아주질 않는다.

거짓말을 해본적 없는 경행은 아버지쪽을 돌아보고나서 목소리를 낮추었다.

《저… 고려청자기를 하루 빌려주기로 하고…》

《아서라. 그걸 말이라고 입에 올리느냐?》

어머니 역시 아버지쪽에 두려운 눈길을 보냈다.

《걱정말아요. 래일 이맘땐 고려청자기와 함께 돈을 가져온단 말이예요.》

《아니, 그럼… 벌써 그걸 밖에 내갔단 말이냐?》

《그렇게 됐어요.》

어머니는 불안한 눈길을 이쪽저쪽으로 허둥거리면서 성급히 물었다.

《그걸 어떻게 했니. 응?…》

경행은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사연을 터놓지 않을수 없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대번에 노기가 서리였다.

《그걸 왜놈의 손에… 네가 미쳤구나. 응!》

이때였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놈의 자식, 다시 말해봐라!》

어느새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는지 눈확이 푹 꺼진 아버지가 두팔을 방바닥에 벋디딘채 쏘아보고있었다.

경행은 낯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아직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를 본적이 없었다.

돈을 와락 구겨쥔 아버지는 그것을 휴지쪼박던지듯 불이 이글거리는 화로에 처박았다.

화약처럼 불이 확 달린 돈은 순식간에 재가루가 되여 날

아났다.

《아버지, 그건…》

《아버지?…》

아버지는 후들거리는 팔을 문쪽으로 내뻗쳤다.

《이 집안엔 너처럼 쓸개빠진 놈이 있을 자리가 없다. 나가라!》

《?!…》

《썩 나가란 말이다!》

그다음은 신음소리를 토하며 맥없이 쓰러졌다.

집안에는 울음판이 터졌다.

누이와 동생들은 아버지의 팔다리를 주무르며 눈물을 쏟았다.

《아버지, 정신차리세요.》

《아버지, 눈을 뜨라요. 흑흑…》

경행은 두손으로 머리를 쥐여뜯으며 고개를 푹 떨구었다.

뚫어지게 아들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둘째야, 얼굴을 들고 내 말을 들어라.》

《…》

《땅과 집을 빼앗기고 만희마저 잃으면서도 왜놈지주에게 내놓지 않은 고려청자기였다. 왜놈들이 무엇때문에 무덤까지 파헤치면서 보물을 털어가고 우리 말, 우리 글, 이름까지 없애버리지 못해 악을 쓰는지 그걸 모른단 말이냐. 우리 민족의 얼을 깡그리 뿌리채 뽑아버리자는게야.

사람이 넋을 잃으면 뭐가 남겠니.

…그래서 사람구실 못하는것들을 가리켜 얼빠진 놈이라고 욕을 퍼붓는게다.》

무던하고 눈물이 헤픈 어머니의 목소리는 준절하였다.

(아, 내가… 무슨 얼빠진짓을 했는가.)

어머니를 쳐다볼수 없었다.

《당장 가서 찾아오겠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겠어요.》

《그래라. 그러면 아마 아버지가 거뿐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실게다.》

그밤으로 경행은 집을 떠났다. …

《…허나 그때는 이미 고이시 사부로놈이 려수항으로 꼬리를 사린 뒤였습니다.》

리경행의 이야기는 끝났다.

악착하고 철면피한 강도 일제의 문화재강탈행위의 일단을 엿보게 하는 수난자의 슬픈 이야기였다.

《그러니 난 고스란히 징용에 끌려가서 왜놈들의 일을 해줄수도 없거니와 고려청자기를 찾기 전에는 고향으로 돌아갈수도 없는 불효자식입니다.》

인석은 경행의 손을 꽉 잡았다.

《그걸 꼭 찾자구. 나도 힘껏 돕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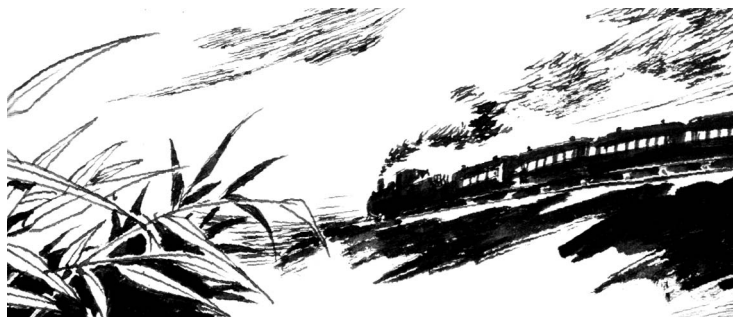
《형님, 고맙소!》

손을 굳게 마주잡은 그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뜨겁게 어려있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굶주린 늑대의 울부짖음같은 기적소리가 울려왔다.

시모노세끼역에서 울려오는 기적소리였다.

얼마후 육중한 창고문이 열렸다.

밖에는 징용자들을 역으로 호송할 경찰놈들이 좌우에 늘어서있었다.

탈 출

…무겁게 짓눌린 어둠속으로 무수한 반디불이 꼬리를 저으면서 어지럽게 날아다닌다.

숨이 턱턱 막히고 불로 지지는듯한 갈증에 목이 탄다.

경행은 육체를 괴롭히는 악몽에 시달리고있었다.

그렇게도 마시고싶던 물이 타드는 입술을 적시며 속으로 흘러들었다.

먹물을 풀어놓은것처럼 시커먼 어둠속에서 어지럽게 날아다니던 반디불같은것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추더니 차츰 앞이 훤히 트이였다.

어둑시근한 낮은 천정이 올려다보였다.

(여기가 어디일가?…)

이때 먼곳에서 들려오는듯한 목소리가 들린다.

《정신을 차렸구만.》

목소리의 임자는 수염이 더부룩한 걸늙은 낯선 사람

이였다. 그는 숟가락으로 물을 떠넣어주면서 느슨한 웃음을 지었다.

《천명일세. 임자는 닷새만에야 눈을 떴네.》

(닷새라니?…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

경행은 물그릇을 밀어놓는 그에게 물었다.

《여기가 어딥니까?》

《도꾜에서 얼마간 떨어진 토목공사장일세.》

사경에 처한 리경행을 구완해준 사람은 토목공사장에서 인부들의 숙식을 맡아보는 김창구였다.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기차에서 탈출한 리경행이 자기와 한고향인 전라도 순창사람이라는것을 알게 된 김창구는 친혈육을 만난것처럼 기뻐하였다.

그는 징용탈출자들에 대한 체포령이 내린 때여서 마음을 놓을수 없으니 《함바》(로동자들의 숙박소)에 곁달린 창고안에 꾹 박혀있으라고 당부했다.

밖으로 나간 그는 창고문에 쇠를 잠그었다.

경행은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그의 머리속에서는 기차에서 탈출하던 닷새전날 밤의 몸서리치는 광경이 되살아났다.

…

밤중에 시모노세끼역을 출발한 기차는 히로시마, 오까야마, 고베역을 지나 일본렬도에서 제일 큰 섬인 혼슈를 가로지르면서 동쪽으로 달렸다.

징용자들을 호송하는 렬차안의 경계는 삼엄하였다. 차칸마다 무장한 헌병놈들이 승강대로 통하는 문을 지키였고 감때사나운 장교놈들이 수시로 차칸을 순찰하였다.

목적지를 알수 없는 비밀공사장으로 끌려가는 청장년들

의 얼굴은 그믐밤처럼 어두웠다.

어느덧 두번째 밤이 깊어가고있었다.

장단치듯 가락맞게 울리는 차바퀴소리는 《빨리 뛰라, 빨리 뛰라.》고 쉽없이 재촉하건만 놈들의 경계가 어찌나 심한지 탈출의 기회는 생기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리경행과 차인석은 점점 마음이 조급해났다.

탈출에서 성공하자면 이밤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것이 두사람의 생각이였다.

눈을 지그시 감은채 방도를 모색하던 인석은 경행을 건드리며 나직이 속삭이였다.

《아무래도 결심을 바꾸어야겠네.》

《?》

《임자만 먼저 탈출하게.》

경행은 머리를 가로저으며 딱 잘라맸다.

《아니요. 난 혼자 가지 못하겠소.》

인석은 눈총을 쏘았다.

《고집부리지 말라구.》

《글쎄 우린 함께 가야 합니다.》

《제길, 우물쭈물할 때가 아니야.》

인석은 태연한 미소를 보내면서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죽지 말고 다시 만나자구. 아무렴!》

경행의 두볼로는 석별의 정이 담긴 뜨거운 눈물이 걷잡을새없이 흘러내렸다.

탈출방도를 귀속말로 알려주고난 인석은 어서 행동하라고 눈짓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눌수 없는 가슴이 찢기는 리별의 순

간이였다.

마음을 다잡은 경행은 알릴듯말듯 고개를 끄덕이는 차인석에게 눈인사를 보내고나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헌병놈들이 지켜선 문쪽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그를 본 놈들은 대뜸 신경을 곤두세웠다.

《237번, 제자리에 앉으라. 개새끼!》

그러거나말거나 경행은 급한 시늉을 하면서 들이댔다.

《배탈을 만났는데 참지 못하겠소. 변소를 좀…》

《건방진 놈!》

주먹이 날아들고 눈에서 불이 번쩍했다.

다른 놈은 구두발로 배를 걷어찼다.

《꾀병이다. 개자식!》

허리를 꼬부린채 얼굴을 싸쥔 경행의 손가락짬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다.

무지막지한 놈들은 사람을 개 때리듯 했다.

이럴 때 인석이가 놈들의 앞을 막아섰다.

《때리지 마시오! 이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소.》

그러자 놈들은 인석에게 달려들었다.

《이놈의 새끼, 무슨 참견인가!》

인석은 모두매를 맞으면서도 숙어들지 않았다.

격분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벌떡벌떡 일어서고 차칸안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이건 뭐야, 무슨 란동인가?》

꽥소리를 지르며 순찰장교놈이 달려왔다.

차인석은 그놈에게 항의를 들이댔다.

《배탈난 사람을 두들겨패면 차칸바닥에 변을 보라는거요?》

말문이 막힌 장교놈은 그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이놈이 도망치면 네놈이 모가질 내놓겠는가? 대답해!》

인석은 쓰겁게 웃으며 놈의 손을 뿌리쳤다.

《걱정마오.》

《좋다.》

다짐을 받아낸 장교놈은 졸개들에게 소리쳤다.

《이놈이 도망치면 얼어뒈지게 옷을 벗기고 변소에 보내라.》

불호령이 떨어지자 놈들은 경행의 옷을 벗기였다. 신발도 벗기우고 몸에 걸친것은 배꼽아래를 가리운 속옷뿐이였다.

인석은 자기에게 미칠 후과가 우려되여 주밋거리는 경행의 등을 떠박질렀다.

《뭘 꾸물거려.》

그것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차인석의 사내다운 당부였다.

이제는 모든것이 경행에게 달려있었다.

총창을 거머쥔 헌병놈이 그의 뒤에 붙어섰다.

《문을 닫지 말아.》 하는 소리를 들으며 변소칸에 들어선 경행은 헌병놈이 코를 싸쥐는 순간 놈의 사타구니를 걷어차고나서 번개같이 문을 닫고 안으로 문고리를 걸었다.

그리고는 우로 밀어올려 열게 되여있는 창문을 올리밀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창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놈들은 호송도중에 빈번히 일어나는 징용자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창문을 열수 없게 고정시켰던것이다.

밖에서는 문짝을 탕탕 두들겨대면서 고아대는 놈들의 고함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문열라!》

《뛰면 쏜다!》

경행은 발바닥으로 두터운 차창유리를 내찼다.

《짱!》 하고 유리가 깨지면서 칼날같은 찬바람이 안으로 쓸어들었다.

경행은 차창가녁의 삐죽삐죽한 유리쪼각에 살을 찢기면서 밖으로 몸을 던졌다.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다.

뿌려던진 돌멩이처럼 어둠속에 날아떨어진 그는 자갈판에 어깨를 짓쪼으면서 철길뚝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땅을 차고일어난 경행은 어둠속에 무연하게 펼쳐진 키를 넘는 새초숲으로 뛰여들었다.

그는 머리가 터지고 오른쪽어깨뼈가 부서진것도 느끼지 못한채 초인간적인 힘으로 내달렸다.

잠시후 아무 일도 없었던듯 사방은 쥐죽은듯 조용했다.

갑자기 디디고선 땅이 무너지듯 곤두서면서 별많은 하늘이 쑥 기울어졌다.

기력이 빠진 경행은 허공을 그러안으며 새초밭에 푹 꼬꾸라졌다. …

악몽과도 같은 생각에서 깨여난 경행의 머리속에 맨먼저 떠오른것은 자기를 위해 몸을 내댄 차인석이였다. 악착한 놈들은 그를 그냥두지 않았을것이다.

(차인석… 그는 어떻게 되였을가?)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창고안으로 김창구의 뒤를 따라 두사람이 들어섰다.

나이지숙한 사람이 경행을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이마를 짚어보고나서 한참이나 맥을 짚어보았다.

《창구형님, 급한 고비는 넘겼수다.》

《그렇다면 마음이 놓이네.》

《제때에 어혈을 풀었으니 뼈가 상한 어깨만 말썽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내 추설거요.》

《〈정의원〉이 큰일했네. 사람을 살렸거든.》

《정의원》이란 사람은 안주에서 고려의원을 하는 아버지에게서 의술을 물려받아 침대를 만지던 정길수이다.

그는 함께 온 청년을 돌아다보았다.

《사람을 살린거야 이 석근이지요.》

잘 닦은 퉁방울처럼 눈이 부리부리한 우석근이가 퉁명스럽게 입을 놀렸다.

《말두 마우다. 〈미친개〉를 살려둔 생각을 하면 아직도 밸이 꿈틀거리우.》

실없는 소리를 한다고 뒤통수를 가볍게 쥐여박는 창구에게 눈을 찔 흘긴 석근은 경행을 보면서 벌씬 웃었다.

《어서 상처를 털구 성큼 일어서우.》

《고맙습니다.》

석근은 손을 내저었다.

《내 그런 인사를 받자는게 아니라 임자가 자리를 털구 일어나야 내 직성이 풀린다는거요.》

창구가 뒤를 이었다.

《석근이가 욱욱하는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네.》

그 사연인즉 이런것이였다.

…닷새전이였다.

여름이면 큰물이 나는 강기슭에 동뚝을 쌓는 역사질을 벌려놓은 공사장은 이른아침부터 분위기가 살벌했다.

공사가 어방없이 늦어지는데 골머리를 앓던 왜놈들은 사람잡이에 이골이 난 불량배들을 그러모아 감독으로 내몰았다.

그놈들은 허가받은 강도무리가 되여 공사판을 휩쓸면서 조선사람들을 가혹하게 몰아댔다.

그가운데서 제일 못되게 노는 악한이 바로 《미친개》라는 별명이 붙은 오다라는 감독놈이였다.

그날도 석근이는 길수와 한조가 되여 강바닥에서 파낸 자갈을 목도로 운반하고있었다.

이른새벽부터 어깨를 파고드는 목도를 메고 가파로운 먼 구간을 쉴새없이 뛰여다니자니 목구멍에서 겨불내가 나고 다리가 휘청거렸다.

너무 지쳐서 달리는 속도를 조금만 늦추어도 오다놈의 채찍이 살점을 물어뜯었다.

눈깔이 시뻘개서 날치는 오다놈을 노려보면서 석근은 옥별렀다.

《두고보자. 저놈의 〈미친개〉는 내 손에 죽을 놈이다.》

이때 휘친거리던 목도채가 뚝 부러졌다.

그런데 어느새 달려왔는지 오다놈의 채찍이 휘파람소리를 내면서 석근의 머리를 내리쳤다.

우석근은 채찍을 휘두르는 놈의 손목을 거머잡았다.

《왜 때리는가?》

《건달이나 부리는 놈은 개처럼 맞아야 한다.》

석근은 부러진 목도채를 쑥 내들었다.

《이게 보이지 않소?》

목도채로 치려는줄 알고 뒤걸음치던 오다놈은 돌뿌리에 걸채여 뒤로 벌렁 자빠졌다.

놈은 목에 걸었던 호각을 불었다.

호각소리를 듣고 10여명의 감독놈들이 까마귀떼처럼 쓸어왔다.

오다놈은 큰 변이라도 난듯 침방울을 튕기면서 고아댔다.

《조선놈의 새끼가 목도채를 꺾어들고 반항이나 한다. 죽여라!》

《죽여라!》

놈들은 먹이를 본 야수처럼 달려들었다.

석근은 더 말할것도 없고 놈들을 말리려던 길수와 다른 사람들도 죽도록 매를 맞았다.

그날밤이였다.

창구가 물지게를 지고 나서는데 저녁밥도 먹지 않고 《함바》에 누워있던 석근이가 불쑥 나타났다.

《창구형님, 잘 계시우.》

《임자 그건 무슨 소린가?》

《내 오늘 〈미친개〉의 목대를 비틀어놓고 여길 뜨겠수다.》

《석근아, 그깐놈이나 하나 제낀다고 한이 풀리겠니.》

《그만하시우. 분해서 못참겠단 말이요!》

이 말을 남긴 석근은 어둠속으로 잦아들었다.

공사장을 슬그머니 벗어난 석근은 도네강쪽으로 뻗은 철길을 따라 내처 걸었다.

달려오는 기적소리를 들으며 철길에서 벗어나 인적없는

도로에 접어든 그는 새초숲에 이르자 으슥한 굽인돌이에 몸을 숨기였다.

오다놈의 집은 공사장에서 10여리 떨어진 주택지구에 있었다.

석근은 그놈이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는 길목을 지킬 작정을 했다. 그가 몸을 숨긴 새초숲은 《미친개》를 처리하기에 안성맞춤한 곳이였던것이다.

방금전에 지나간 렬차의 기적소리도 아득히 멀어지고 주위에는 정적이 깃들었다.

얼마간 꼼짝않고 있느라니 싸늘한 추위에 온몸이 얼어들었다.

오다놈이 나타날 도로쪽에 눈길을 박고있던 석근은 뜻밖에도 뒤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에 놀라 등골이 서늘해졌다.

와삭와삭… 새초숲을 헤치는 소리가 거침없이 가까와지고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갈마들었다.

(어떤 놈이 냄새를 맡고 뒤를 밟았구나.)

새초숲사이로 자기를 겨누고 다가드는 적수를 보는 순간 석근은 소스라쳐 놀랐다.

그의 눈앞에 나타난것은 무덤속에서 뛰쳐나온 산송장같았다. 온몸에 피칠갑을 한 알몸뚱이였던것이다.

겁이 없는 석근이였지만 끔찍한 모습을 보니 속이 떨리였다.

머리칼이 곤두선 그는 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쥐였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놀라운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다.

덮칠듯이 면바로 접어들던 상대가 불시에 우뚝 멈춰서더니 단칼에 밑이 잘리운 나무처럼 그자리에 푹 꺼꾸러

진것이였다.

《?!》

숨을 죽이고 눈앞에 어푸러진 적수를 쏘아보던 석근은 다시한번 눈이 커졌다.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들은것이다.

《물… 물…》

석근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 조선사람이구나.)

그제야 그는 자기를 놀라게 한것이 방금전에 지나간 기차에서 도망친 조선사람이라는것을 알았다.

징용에 끌려가다가 탈출한 조선청장년들이 한밤중에 《함바》에 나타나 구원을 청하는것을 여러번 목격한 석근이였다.

그는 손바닥뒤집듯 생각이 달라졌다.

《미친개》같은 왜놈 하나때문에 한지에서 죽어가는 조선사람을 외면하는것은 사람이 할짓이 아니였던것이다.

술에 취한 오다놈이 자전거를 끌고 비틀거리면서 그곳을 지나친것은 그로부터 잠시후였다.

멀어져가는 그놈을 쏘아보며 석근은 부르짖었다.

《오늘은 무사했지만 너는 내 손에 뒈질 놈이다!》

그는 의식을 잃고 늘어진 청년을 둘쳐업었다.

이럴 때 석근이를 찾아떠난 창구와 길수가 달려왔다. …

《…독을 보구 쥐를 못친다고 〈미친개〉를 없애치우면 공사장에 소동이 일어날것이고 일이 그렇게 번지면 임자에게 화가 미칠것 같아 이 석근이가 어서 상처를 가시고 일어서라는걸세.》

창구의 이야기를 듣고보니 경행은 자기를 살려준 이

들이 고마왔다. 이들이 아니였다면 그는 찬바람부는 새초숲에서 얼어죽고말았을것이다.

날이 갈수록 경행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회복이 빨랐다.

성한데없이 찢기고 터졌던 상처도 아물고 속으로 곪으면서 지끈지끈 쏘던 오른쪽어깨의 아픔도 피고름을 한웅큼 쏟더니만 숙어들기 시작했다.

부서졌던 뼈가 되는대로 붙는 바람에 아직은 오른팔을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그만한것도 다행이였다.

길수는 한창 젊은 나이여서 회복이 빠르다고 했지만 실은 그를 위해 기울인 창구네들의 성의가 극진했기때문이였다.

며칠이 지난 어느날 밤이였다.

그날도 고달픈 하루일을 마친 세사람이 창고로 찾아왔다. 그들을 기다리고있던 경행은 말하였다.

《그동안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어디 가든 여러분의 고마운 성의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어조에서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은 세사람은 의아한 눈으로 마주보았다.

《나는 곧 떠나자고 합니다.》

김창구는 놀라와했다.

《그건 갑자기 무슨 말인가?》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탈출한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렇게 허두를 뗀 경행은 왜놈에게 강탈당한 고려청자기에 대한 가슴아픈 사연을 말해주었다. 그의 이야기속에는 차인석의 모습도 들어있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고이시 사부로란 놈을 찾아내

여 목대를 비틀어놓고 고려청자기를 꼭 찾아야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난 창구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음, 그런 기막힌 사연이 있었구만.》

성미급한 석근이가 목청을 돋구었다.

《듣고보니 〈미친개〉보다 더한 놈이군. 그런 놈은 품을 들여서라도 목대를 꺾어놔야 해!》

이윽고 창구가 신중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지금 백두산에서는 민족의 걸출한 위인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왜놈들을 족치고계신다오.》

꿈같은 이야기에 경행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요?…》

《지금 항간에서는 멀지 않아 조국이 해방된다는 소문이 널리 나돌고있네. 나라찾는 일에 보탬은 못할망정 민족의 넋이 깃든 귀한 유물을 쪽발이놈에게 빼앗기고도 가만있어서야 안되지.》

창구는 경행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계속했다.

《경행이, 임자의 뜻이 장하네. 고려청자기를 꼭 찾으라구.》

《알겠습니다.》

경행은 고려청자기를 찾는것이 결코 제 집안의 가보를 되찾는 일이기 전에 나라의 재보를 지켜내는것이라는것을 새롭게 느끼였다.

석근은 자기도 그 일을 돕겠다고 했다.

《고이시 사부로라고 했지. 볼따귀에 먹사마귀가 붙어있는 절름발이라니까 그놈이 내 손에 걸려들런지도 모르지. 〈미친개〉를 시궁창에 처박고는 나도 이곳을 뜰테니까.》

《석근이, 고맙네. …》

말없이 앉아있던 정길수가 잦아드는 목소리로 말했다.

《뼈가 부서졌던 어깨를 제대로 고쳐주지 못해 안됐네. 이렇게 헤여지자니 그것이 마음에 걸리누만.》

《공연한 말씀입니다. 〈정의원〉이 아니였다면 필경 오른팔을 잃었을겁니다.》

밖에서는 비끄치가 떨어지고있었다.

그날밤, 리경행은 그들과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은 주머니를 털어 얼마 안되는 돈을 로자로 쓰라고 저마끔 그의 손에 쥐여주었다.

주먹밥이 들어있는 작은 꾸레미를 들려주는 창구의 목소리는 갈리였다.

《조국이 해방되는 날까지 떳떳이 살아 다시 만나자구.》

《…》

경행은 설음이 북받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눈물을 삼키면서 걸음을 내디디였다.

세사람은 비발이 굵어지는 어둠속으로 멀어져가는 경행을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구정물이 고인 개울창에 처박힌 오다놈의 시체가 발견된것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였다.

그무렵 공사판에는 어디론가 종적을 감춘 우석근이가 그놈에게 응당한 벌을 내렸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세상은 좁다

어슬어슬 땅거미가 지기 시작한 보소반도의 해안거리로 무거운 짐을 실은 손수레가 느릿느릿 굴러가고있었다.

손수레에 실린 배불뚝이 나무통에서는 물고기비린내가 풍겼다.

사람들은 땀을 철철 흘리면서 손수레를 끄는 리경행에게 눈을 흘기면서 코를 싸쥐였다.

냄새가 역해서라기보다 조선사람들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섬나라족속들의 고약한 악습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손수레는 붐비는 사람들의 물결을 헤치면서 거리를 벗어났다.

얼마간 걸으니 올리막길이 나졌다.

땀에 푹 절은 경행은 속이 빈 배에 힘을 주면서 손수레를 끌었다.

무겁게 매달린 손수레에는 어장에서 하루종일 따낸 고

기밸이 실려있었다. 그것을 가공하여 집짐승먹이를 만드는 배합사료공장까지는 아직 10여리길이 남아있었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가까스로 옮겨디디며 올리막길의 중간쯤에 이른 경행은 숨이 턱에 닿았다.

바퀴에 돌을 고인 그는 길가에 서있는 나무에 등을 기대면서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구름속을 헤염치는 쪼각달을 올려다보느라니 고생속에 흘러간 나날들이 되살아났다.

토목공사장에서 김창구, 정길수, 우석근과 헤여진 때로부터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국살이설음은 아흔아홉가지가 넘는다는 말이 있다.

당시 일본에 끌려간 조선사람들은 로동조건이 제일 험한 탄광들과 비밀공사판들에서 마소처럼 고역에 시달렸다.

참기 어려운 고통은 빈주먹뿐인 리경행에게도 사정없이 들씌워졌다.

역한 악취가 코를 찌르는 감탕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지하도공사도 치르었고 썩은 동발짬으로 석수가 떨어지는 탄광에서 등짐도 졌다.

경행은 이를 악물고 자리를 옮겨가면서 고이시 사부로놈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어느 구석에 들어박혔는지 도무지 알길이 없었다.

산설고 물설고… 천대와 멸시가 그칠새 없는 이역의 하늘아래서 제일 그리운것은 정든 사람들이였다.

(아, 이런 때 곁에 차인석이나 김창구, 우석근이네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 같은 일을 해도 지금처럼 힘겹지도

외롭지도 않을것이다.

입술을 깨물며 허기진 몸을 일으켜세운 경행은 다시 손수레를 끌었다.

진땀을 빼면서 무진애를 쓰는데 뒤를 밀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고마왔다. 손수레는 올리막길을 가볍게 치달아올랐다.

수레채를 놓기바쁘게 경행은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돌아섰다.

《고맙습니다. 아니?!…》

경행은 흠칫 놀라면서 돌처럼 굳어졌다.

그와 눈길을 마주친 사나이도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다.

《아니, … 경행이 아닌가?!》

《인석형님!…》

《경행이!》

와락 부둥켜안은 그들은 한덩어리가 된채 눈물을 걷잡지 못했다.

《살아있었구나. 엉, 이렇게 만나다니…》

《형님…》

기쁨도 한순간이였다.

경행은 속이 철렁했다. 인석에게 한팔이 없었던것이다.

속이 빈 왼쪽 팔소매를 쥔 경행의 손은 우들우들 떨리고있었다. 억이 막혀 말을 할수가 없었다.

인석은 쓸쓸히 웃어넘겼다.

《왜놈의 칼에 찍혀 이꼴이 되였네. 사람들이 무리로 죽어나가는 도살장같은데서 무슨 일인들 없었겠나.》

인석은 성한 손으로 수레채를 잡았다.

《가자구. 가면서 이야기하세.》
《그걸 이리 주.》
경행은 펄쩍 뛰였으나 인석은 채를 놓지 않았다.
《외팔이가 되였지만 절구공이처럼 단단하네. 징용에서 탈출한게 작년 이맘때였는데 내 손에 걸려든 쪽발이새끼들은 무사치 못했거든. 허허…》
오가는 사람들이 눈에 뜨이자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한켠으로 개울물이 흐르는 다리밑에 자리잡은 판자집에서 희미한 불빛이 흘러나오고있었다.
낡은 상자우에 신문지를 펴놓은 경행은 간이매대에서 사온 음식을 내놓았다.
그는 병을 기울여 법랑고뿌에 술을 부었다.
고뿌를 받아쥔 인석은 꺼칠한 얼굴에 서글서글한 웃음을 담았다.
《배꼽 떨어진 이래 입에 대보지 못한 술대접을 임자한테서 받는구만.》
쓰거운 술을 달게 들이킨 그는 경행에게도 권했다.
《화김에도 마시고 기쁜김에도 마시는게 술이라던데 기쁘게 들자구.》
이렇게 마주앉고보니 경행은 저도모르게 눈굽이 달아올랐다.
《기차에서 탈출한 나는 그 악귀같은 놈들에게 형님이 잘못된줄 알았습니다.》
《죽도록 맞았지. 혹가이도의 비밀공사장에 끌려가서도 사흘만에야 정신을 차렸으니까.》
두사람은 시간가는줄 모르고 회포를 나누었다.
이윽고 경행은 아까부터 머리속에서 맴돌던 이야기를 끄

집어냈다.

《그런데 난 아직 먹사마귀놈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에 인석은 경행의 무릎을 탁 쳤다.

《내가 그놈을 찾았네!》

《예?!》

눈이 커진 경행은 자기 귀를 의심하듯 벙벙해있다가 다우쳐물었다.

《그놈이 지금 어디 있소?》

《들어보라구.》

…

비바람 사나운 밤에 보초놈을 까눕히고 비밀공사장에서 탈출한 차인석은 위험이 뒤따르는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기며 달포만에 쯔가루해협을 넘나드는 화물선에 숨어들었다.

곳곳에서 놈들이 《징용기피자》들에 대한 눈을 밝히는 때여서 멀리로 몸을 피해야 했던 그는 아오모리역에서 남쪽으로 가는 석탄화차에 기여올랐다.

지치고 굶주린 인석은 의식을 잃은채 석탄가루를 들쓰면서 남쪽으로 실려갔다.

그를 발견한것은 석탄부리는 작업에 내몰린 조선사람들이였다.

탄덩이나 다름없는 외팔이가 숨이 붙어있는 조선사람이라는것을 알게 된 그들은 감독놈들의 눈을 피하여 슬그머니 빼돌렸다.

그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극진히 위해준 사람은 윤성우라는 중년이였다.

성우의 소개로 조선사람 이주민들이 많이 모여사는 구레다군으로 간 인석은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되였다.

그곳 경찰놈들의 심상치 않은 눈초리에서 자기의 뒤를 캐는 기미를 감촉한 그가 간또지방으로 자리를 옮긴것은 한달전이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억수로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하여 사꾸라차집이란 간판이 걸린 처마밑으로 뛰여든 인석은 비를 긋고있었다.

망국노는 어디에 가도 제 집이 없다는 서글픈 생각을 굴리던 그는 무심결에 차집안을 들여다보게 되였다.

유리창너머로 목이 밭은 작달막한 놈팽이와 마주앉아 수군거리고있는 사나이의 볼에 도드라진 먹사마귀가 보였다.

순간 그의 머리속에는 경행이가 말한 그 먹사마귀가 아닐가 하는 예감이 뇌리를 쳤다.

(이름은 고이시 사부로, 지팽이를 짚고다니는 절름발이라고 했지.)

생각을 가다듬으며 차집안으로 들어간 인석은 가슴이 후두둑 뛰였다.

그 사나이가 앉은 식탁에 기대놓은 지팽이를 보았던것이다.

자리에 앉은 인석은 경행이를 생각했다.

놈의 덜미를 잡자면 고려청자기의 주인인 그가 있어야 했던것이다.

이때 얼굴에 주근깨가 다문다문 박힌 녀인이 그의 앞에 김이 몰몰나는 차잔을 가져다놓았다.

인석은 창문쪽을 가리키면서 녀인에게 물었다.

《저 사람을 아는가요?》

《고이시 사부로입니다. 찾아드릴가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것 같은데 천천히 만나겠소.》

몇푼의 사례금을 바라고 친절을 보이던 그 녀자는 눈을 내리깔며 돌아섰다.

(틀림없구나.)

이름까지 확인한 그는 놈이 사는 곳을 확인해야겠다고 속다짐하면서 곧 자리를 떴다.

밖으로 나온 그는 차집 맞은켠 잡화매대앞에서 그놈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얼마 안있어 차집에서 나오는 먹사마귀가 보였다.

그와 마주앉았던 난쟁이가 우산을 받쳐들고 함께 걸었다. 택시를 부르지 않는걸 보니 멀지 않은 곳에 집이 있는 모양이였다.

인석은 얼마간 간격을 두고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들이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렸다.

《고이시상, 다시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시끄럽다.》

《아무리 귀한 보물도 그자체가 돈은 아니잖습니까.》

《하지메, 바보인체 하지 말고 그만 지껄여!》

《…》

《이봐, 진귀한 보물은 세월이 흐를수록 하늘높은줄 모르고 값이 오르는 법이야.》

고이시는 몸에 밴 습관처럼 주위를 휘둘러보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비를 맞으며 묵묵히 걸어오는 외팔이가 눈에 띄였다. 놈은 그 외팔이를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상이군인으로 속단하였다.

난쟁이와 갈라진 먹사마귀는 다시한번 뒤를 돌아보고나서 벽돌담장을 두른 대문안으로 들어갔다. …

《…그때부터 임자를 찾아 일자리를 옮기면서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였네. 그러고보면 세상은 넓으면서도 좁거든.》

이야기를 듣고난 경행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다.

《당장 가서 결판을 냅시다!》

《콩밭에 서슬치겠군. 덤비면 한번 좋고 침착해야 아홉번 좋은 법일세. 그놈의 거처를 안 이상 실수가 없도록 잡도리를 잘해야 하네.》

인석은 침착하게 계속했다.

《우린 놈들이 체포령을 내린 〈징용기피자〉들인것만큼 고려청자기를 찾아가지고 현해탄을 넘을 때까지 사소한 실수도 없어야 하네.》

인석의 말이 옳았다.

고이시 사부로놈은 일제헌병대에서 피에 손이 절은 만만치 않은 적수이다. 그런 악한이 주인이 나타났다고 강탈한 물건을 선뜻 내놓을리 만무한것이다.

두사람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신중히 짜고드는 한편 필요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기로 하였다.

요즘 고이시는 신경이 칼끝처럼 예민해졌다. 문밖에 나서기가 두려웠고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하지만 술이 깨면 불길한 걱정거리는 손톱눈에 박힌 가시처럼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에게 불길한 소식을 날라온것은 사꾸라차집에서 접대원을 하고있는 고유끼였다.

그 녀자의 남편은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이듬해에 해

군에 징집되여 우지나항을 떠났는데 어느 한 해전에서 어뢰에 맞아 침몰하는 군함과 함께 물고기밥이 되고말았다.

조선에서 강탈한 문화재들을 팔아 적지 않은 돈을 긁어모은 고이시는 차집에서 사내들의 시달림을 받고있는 방종한 과부를 어렵지 않게 제놈의 녀편네로 만들수 있었다.

놈의 본처는 병신짝이 되여 나타난 남편이 하는짓이 역겨웠던지 자기의 재산을 갈라가지고 오래전에 본가로 가버렸던것이다.

차인석이 차집에 들렸던 날 저녁이였다.

고유끼는 앞이 툭 터진 기모노차림으로 저녁상을 마주한 고이시에게 몸에 밴 애교를 부렸다.

《오늘 하지메상과 무슨 재미난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 똥개같은 자식이 고려청자기를 팔아주겠노라고 코를 들이밀더군. 돈을 떼먹자는 심보지.》

《아유, 그 주제에… 이봐요, 나에게도 그 보물의 가치를 좀 설명해주세요.》

먹사마귀는 살이라도 베여줄것처럼 살랑거리는 고유끼의 실팍한 궁둥이를 너그럽게 두드려주었다.

《설명해주지. 보물의 가치를 모르는 추물들은 금덩어리도 막돌로 보기가 일쑤거든. 자, 보라구.》

자개박이세공을 한 탁자우에는 갖가지 골동품이 어깨를 겯주며 주런이 늘어섰는데 그가운데서 이채를 띠는것은 그윽한 정서를 내뿜는 조선의 고려청자기였다.

고유끼는 어떻게 되여 그 보물이 이 집안의 탁자우에 놓이게 되였는지 알지 못했다.

고려청자기를 조심스레 집어든 먹사마귀는 박식한체 지껄여댔다.

《일명 비색청자, 비색자기로도 불리우는 이 고려청자기가 세상에 명성을 떨친것은 만들어진 력사가 깊은데만 있는것이 아니다. 광택을 내면서도 맑은 물속의 흰차돌우에 비낀 푸른색과 같은 정갈하고 우아한 비취색은 만사람의 넋을 뽑는단 말이다.

그 황홀함이 오죽하면 고려의 이름난 한 문인의 입에서 〈푸르게 빛나는 옥은 푸른 하늘에 비치이네. 한번 보매 내 눈조차 밝아지는것 같아라.〉 하는 시가 절로 흘러나왔겠는가.》

력사유물에 대한 조예가 없는 고유끼의 눈에도 고려청자기는 훔쳐가지고 달아나고싶을 정도로 욕심이 나게 눈뿌리를 뽑았다.

술을 목구멍에 부어넣은 고이시는 빈 잔을 탁 놓으면서 통탄했다.

《조선사람들이 흠잡을데없이 훌륭한 고려자기를 척척 만들어쓰고있을 때 일본에서는 목기(나무그릇)나 개물그릇같은 토기밖에 만들지 못했으니 일본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

《듣고보니 하지메가 눈독을 들일만도 하군요.》

쓴입을 다시던 고이시는 말머리를 돌렸다.

《고려청자기를 비롯하여 세계가 인정하는 조선의 문화재들에는 조선민족의 넋이 깃들어있다. 그 넋이란 애국심인데 그것을 깡그리 없애치워야 조선이라는 땅덩어리를 먹었다고 말할수 있는거야.

돈이라면 제 에미도 팔아먹을 하지메같은 놈이 그걸 아는가. 그래서 내가 그자식을 똥개라고 한단 말이야.》

새삼스러운 눈으로 고려청자기를 여겨보던 고유끼는 문

득 낮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참 오늘 차집에서 당신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이 있던데 만났는가요?》

《차집에서?…》

하지메밖에 만난적이 없는 고이시는 모를 일이라는듯 아래입술을 삐죽이 내밀면서 눈을 들었다.

《그게 누군가?》

《일본말발음이 서툰걸 보니 조선사람이더군요.》

순간 고이시의 눈에서 싸늘한 랭기가 풍겼다.

《뭐, 조선놈이야?…》

《예, 외팔이더군요.》

《외팔이?!》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외팔이라면 차집앞에서부터 자기의 뒤를 밟던 젊은 사나이가 아닌가. …

저도모르게 속이 섬찍했다.

혹시 그놈이 려수항까지 따라왔던 청년이 아닐가? 그놈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그놈과 한통속일수도 있지 않는가.

뒤를 밟아 집주소까지 확인하고 사라졌으니 언제 벼락이 떨어질런지 모른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그는 고유끼의 옷자락을 와락 나꿔챘다.

《아니, … 왜 이러세요?》

《그 외팔이가 뭐랬어? 그대로 말해!》

공포에 질린 그 녀자의 얼굴에 침방울이 튕기고 역한 술냄새가 덮씌워졌다.

《당신의 이름을 묻기에… 찾아드리겠다고 하니 천천히 만나겠다고 하더군요.》

《그게 다야?》

《예, 정말이예요.》

《그 말을 왜 이제야 해!》

《잘못했습니다.》

《부실한 년!》

눈에 독이 오른 고이시는 쓸모없는 물건을 팽개치듯 그녀자를 콱 밀어던졌다.

고유끼는 음식상을 뒤집어엎으면서 한고패 나딩굴었다.

무섭게 이지러진 놈의 낯짝에는 식은땀이 내돋았다.

놈의 눈앞에는 려수항에서 불을 내뿜던 조선청년의 무서운 눈길이 벙끗 떠올랐다. 그 눈길은 시퍼렇게 날이 선 도끼날보다 더 무서운것이였다.

선불맞은 맹수처럼 씩씩거리면서 훌짝훌짝 눈물을 짜는 계집을 노려보던 먹사마귀는 전화기에 손을 뻗쳤다.

《경찰서에 대라!》

전화가 련결되자 그는 조선놈인 외팔이를 단속하고 결과를 알려줄것을 당부했다.

까닭모를 봉변을 당한 고유끼는 고려청자기를 안고 누구도 얼씬못하게 하는 뒤방으로 가는 절름발이를 겁에 질려 바라보았다.

이윽고 뒤방에서 나온 고이시 사부로의 손에는 날이 선 단검이 쥐여져있었다.

그것을 본 고유끼는 간이 콩알만 해서 오돌오돌 떨었다.

단검을 올려던졌다가 잡으면서 먹사마귀는 발작적인 목소리로 꽥 소리쳤다.

《쌍년, 방정맞게 콜짝거리지 말고 상을 거둬!》

방바닥에 널린 그릇들과 음식찌끼를 주섬주섬 거두는 그녀자의 눈에서는 걷잡을수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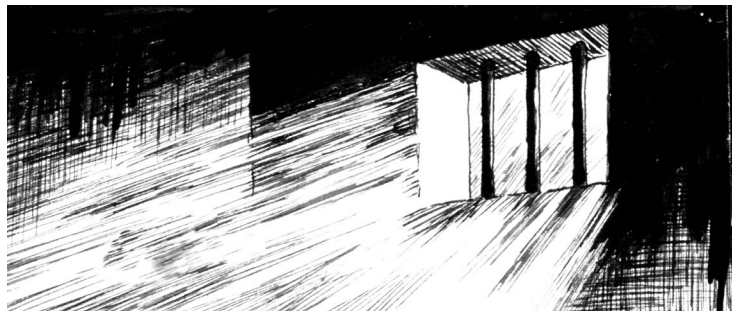
다음날에 경찰에서 알려온 소식은 더 큰 불안을 던져주었다.

《징용기피자》로 추측되는 그 외팔이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다는 소식이였다.

그 외팔이는 필경 고려청자기의 주인을 달고 나타날것이다.

보이지 않는 큰 집게에 성한 한쪽다리를 꽉 물리운것만같은 압박감에 모대기던 그는 전화로 야꾸자(불량배)두목인 하지메를 찾았다.

《나다. 네 수하에 힘깨나 쓰는 아이들이 몇이나 되지?… 다섯이라… 좋아. 할 일이 있으니 내 집으로 와주게. 지금 곧!》

고이시 사부로는 아래입술을 비죽이 내민채 하지메가 들어설 대문쪽을 이윽히 쏘아보았다.

해빛이 그리워

하늘은 점점 더 시커멓게 흐려왔다.

비를 머금은 차거운 바람이 터지더니 구름장이 무겁게 드리운 하늘에서는 비가 질금질금 내리기 시작했다.

한낮이 지나서부터는 우뢰질까지 하면서 대줄기같은 소낙비가 억수로 쏟아졌다.

물보라가 날리는 폭우속으로 두사람이 걸어가고있었다.

을씨년스러운 밤길을 걷는 그들은 먹사마귀를 찾아떠난 리경행과 차인석이였다.

그동안 그들은 그놈과의 결판을 낸 다음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려비를 마련하느라 어장에서 물고기밸을 따서 배합사료공장에 넘기는 역사질을 보름남짓이 하였다.

려비가 마련되자 후꾸시마쪽으로 품팔이떠난다는 소

문을 내돌린 그들은 그와 반대켠인 서남쪽으로 향하였다.

기차를 타면 목적지까지 인차 가닿을수 있었으나 안전한 길을 택하여 걷기로 한것이다.

이틀길이 넘는 먼길이였다.

비가 그칠줄 몰랐으나 둘이 걸으니 힘든줄을 몰랐다.

지금 걷는 길이 고향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니 경행의 머리속에는 고향집의 정다운 얼굴들이 삼삼히 떠올랐다.

경행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어느해 가을이였다.

땔나무를 하려 세 아들을 이끌고 금산에 오른 아버지는 쉴참에 순창일대에서 일제침략자들을 족친 최익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전라도에 주둔한 일본군대와 경찰의 주력이 집결되여있는 순창을 들이치고 크게 이긴 최익현으로 말하면 〈군자는 시비를 론하고 소인은 리해관계를 가린다〉는 격언을 깊이 명심하고 자기 수양의 기준으로 삼은 반일의병장이였다. 이 격언의 뜻이 뭔고 하니 수양있는 사람은 옳고 그른것을 론하고 속이 좁은 사람은 리롭고 해로운것을 따진다는 뜻이다.

하기에 그는 나라와 백성을 위한 일에 그것이 옳은것이기만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내대고 싸운 애국자였다.》

미더운 눈으로 자식들을 둘러보고난 아버지는 왜놈들에게 체포되여 일본으로 끌려가서도 조선사람의 지조를 굽히지 않은 최익현이 최후를 앞두고 남긴 시를 읊었다.

이 몸을 일으키여 북두성 빛나는 조국을 바라보니
백수로 잡힌 몸의 통분함을 억제할수 없어라
만번 죽은들 적국의 부귀를 탐낼소냐
오로지 일생에 내 나라 잊지 못하노라

대바르고 정직한 아버지는 말이 없는 사람이였다.

그래서 자식들은 물론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어머니도 아버지를 어려워하였다.

그런 아버지의 입에서 사람의 심금을 쩌릿하게 울려주는 시가 흘러나온것은 놀라운 일이였다.

아버지는 갑오농민전쟁당시 농민군지휘자였던 전봉준이 변절자의 밀고로 고향에서 그리 멀지 않은 순창군 피로리에서 원쑤들에게 체포되여 사형을 당하는 순간까지 애국적지조를 지킨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속에는 민족을 반역한 변절자의 추악한 말로도 들어있었다.

…변절자 김경천은 전봉준을 밀고한 대가로 벼슬이 올라가고 상까지 받게 되자 제놈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벌려놓았다.

그날밤 먹자판이 한창 벌어지고있을 때 《불이야!》 하는 다급한 웨침과 함께 삼단같은 불길이 타올랐다.

불을 지른것은 한선달이라는 부자집에서 머슴을 살던 영미라는 처녀였다. 그는 서울에서 전봉준이 사형을 당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에 이어 그의 부하였던 애인마저 억울하게 희생되였다는 전갈은 받자 변절자를 처단하기로 마음먹었던것이다.

불길이 얼마나 무섭게 타번졌던지 변절자인 김경천과 공

모자들은 모두 불에 타서 뒈지고말았다.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버지는 이런 말로 그루를 박았다.

《사람은 길지 않은 한생을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선사람의 넋을 깊이 간직하고 옳게 살기 위해 늘 채심하고 노력해야 한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하였는지 그때는 많은것을 모르고 지냈다. …

《…지금도 나는 고향에서 나를 지켜보고계실 아버지의 눈길을 느끼고있습니다.》

경행의 이야기는 인석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참 속이 깊은분이요. 이제 고려청자기를 안고 척 나타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소.》

그들은 걸음을 다그쳤다.

…한달전.

야꾸자두목인 하지메는 전화를 받자마자 고이시 사부로앞에 나타났다.

《고이시상,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앉게.》

전에없이 담배까지 권하는 친절을 보인 먹사마귀는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당분간 임자가 거느린 야꾸자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와있어야겠네.》

《우리 아이들이 할 일이란 뭔데요?》

《우리 집을 노리는 도적이 나타났네.》

《도적이요?》

눈이 퀭해진 하지메에게 먹사마귀는 두손가락을 펼쳐보였다.

《두놈일세. 둘 다 조선놈이야.》

그제야 하지메는 탁자에 자리를 차지하고있던 고려청자기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는것을 알았다.

《그놈들이 고려청자기를 노리는가요?》

《그건 네가 상관할바가 아니야.》

남을 등쳐먹는데 이골이 난 야꾸자두목 하지메는 누구보다 타산이 밝은 놈이였다.

《우리 아이들은 하마를 닮았는지 식성이 대단히 좋은데요.》

그것은 집을 지켜주는 값으로 기름진 음식을 늘 배터지게 먹여달라는 수작이였다.

다른 욕심도 있었다.

《그건 그렇고… 방구석에나 들어앉아있어가지고야 벌이가 됩니까? 그러니 보수도 후하게 약속해주어야…》

그러자 고이시는 눈살이 꿋꿋이 살아났다.

《야, 너 언제부터 치마바람 일구는 사창가의 계집년처럼 혀바닥이 얇아졌니. 현경찰서의 〈특고〉(《특별고등경찰》)아꾸따가와가 누군지 알아? 모를테지. 나의 말이라면 쥐구멍으로 소를 끌래도 끄는 사람이야!》

그 소리에 말재간을 부리던 하지메의 밭은 목이 쑥 움츠러들었다.

《특고》에 걸려들면 무사치 못하다는것쯤은 너무도 잘 알고있는 그였다.

고이시는 그냥 뭇질을 해댔다.

《네까짓것들은 감옥귀신을 만들던지 전쟁판의 일선

참호에 처박는것쯤은 전화 한통이면 알아봐. 날 돕는 일에 손이 시리거든 돌아가!》

제일 두려운 곳을 찔리운 하지메는 먹사마귀가 발바닥을 핥으라고 해도 핥아야 하는 신세가 되여버렸다.

《고이시상의 성미가 그렇게 급하신줄 몰랐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으니 노여움을 푸십시오.》

《내앞에서 다신 재수없이 놀지 말아.》

《예, 예. …》

고이시는 담배를 붙여물었다.

사실 그가 흰소리친 《특고》아꾸따가와로 말하면 이미 집을 나가버린 본처의 배다른 남동생인데 풋낯이나 아는 정도였다.

그것을 알리 없는 하지메는 한때 헌병대에서 글러먹은 고이시의 약은 수에 넘어가 설설기게 된것이였다.

하지메의 수작대로 다섯명이나 되는 불량배들을 집안에 대기시키자면 적지 않은 돈이 나간다는것을 타산한 먹사마귀는 손해를 적게 보면서 제 목숨을 건사할 궁리를 하였다.

《듣고보니 야꾸자들을 우리 집에 붙잡아두면 그 아이들의 벌이가 안되겠구만. 그러니 임자만 내곁에 있고 그 아이들은 전화를 하면 즉시 달려오게 하라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먹사마귀는 우는 아이의 눈물로 얼굴을 닦아주는 식으로 하지메를 주물러놓았다.

결국 하지메의 손탁에 놀아나는 야꾸자들을 제 주머니의 돈을 불어먹으면서 전화통결에 대기하는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며칠안으로 당장 들이닥칠것 같던 외팔이네는 한달이 되여오도록 그림자도 얼씬하지 않았다.

그런데다 오늘아침 경찰서에서는 보소반도의 지바현바다가에 나타났던 외팔이가 후꾸시마쪽으로 가버렸다는것을 알려왔다.

안도의 숨이 나갔다. 노루 제 방귀에 놀란 격이 되였다는 안도감이 머리를 쳐들자 먹사마귀는 곁에서 빈둥거리는 하지메가 거치장스러워졌다.

그날밤 고이시 사부로는 하지메와 마주앉았다.

《임자네 아이들이 아직 전화통을 지키고있나?》

《예, 오금이 쑤셔 죽을 지경이랍니다.》

《이젠 제볼장을 보라고 하게.》

먹구렝이같은 고이시에게 붙들려 갑갑하고 지루한 나날을 보내고있던 하지메는 귀구멍이 쑥 열렸다.

《이 집을 노리던 도적이 잡혔는가요?》

《〈특고〉에서 마음을 푹 놓으라는 소식을 받았네.》

《그 참 다행입니다.》

하지메는 졸개들에게 헤쳐가도 좋다는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나서 성큼 일어섰다.

《그럼 난 가보겠습니다.》

《뭐 다른 일이 없으면 하루 더 묵지.》

먹사마귀는 어서 사라졌으면 하면서도 말은 이렇게 하였다.

이때 대문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두드리는 소리는 먹사마귀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고유끼에게는 일정한 간격으로 두번씩 세번 문을 두드리라고 일렀는데 약속된 신호가 아니였던것이다.

《부인님이 온 모양입니다.》

《나가보게.》

하지메를 밖으로 내보낸 먹사마귀는 전화기곁에 붙어서서 창밖을 지켜보았다.

하지메는 아무 생각없이 걸었던 대문을 열었다.

순간 대문안으로 두 청년이 불쑥 들어섰다.

창밖을 내다보던 먹사마귀는 온몸에 소름이 쭉 끼치면서 가슴이 철렁했다.

그렇게도 가슴을 조이며 우려하던 외팔이와 고려청자기의 임자가 들이닥친것이다.

놈은 제꺽 송수화기를 들었다.

《경찰서에 대라. … 우리 집에 조선놈강도가 들었다. 여보시오…》

마당에 들어선 경행은 대문부터 닫아걸었다.

약자를 해치는 기질이 몸에 밴 하지메는 작은 눈알에 독을 품고 을러멨다.

《너희들은 뭐야?》

《넌 웬놈이냐?》

《이것 봐라. 야, 죽고싶은가!》

하지메가 허리춤에서 칼을 뽑는찰나에 인석의 주먹이 날았다.

《헉…》

허세를 부리던 하지메가 땅바닥에 나가떨어졌다.

인석은 놈이 떨군 칼을 집어들었다.

경행은 방문을 잡아챘다.

방안에 들어서니 사선을 헤치며 찾아헤매던 먹사마귀가 눈에 흰자위를 드러낸채 엉거주춤 서있었다.

놈의 손에는 칼이 쥐여져있었다.

무서운 공포로 하여 놈은 대들 엄두를 못내고 턱을 덜덜 떨었다.

인석이까지 성큼 들어서자 놈은 칼을 떨구었다.

《어… 어쩌자는거요?》

경행은 주먹이 나가는것을 가까스로 억제하면서 놈에게 다가섰다.

《나를 알겠는가?》

《아… 알겠습니다.》

경행의 주먹이 원을 그리면서 책상을 《탕》 하고 내리쳤다.

《어!…》

놈은 괴상한 비명을 지르면서 풀썩 주저앉았다.

주먹이 날아드는줄 알았던 모양이다.

인석이 놈의 덜미를 잡아 꿇어앉혔다.

경행은 책상을 내리쳤던 손을 들어 고이시놈을 향해 쭉 내뻗쳤다.

《결판을 내자고 왔다. 죄는 지은데로 간다는것쯤은 알고있겠지. 고려청자기를 내놔!》

《…》

《그걸 내놓지 않으면 네놈은 내 손에 죽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날카로왔다.

《예… 돌려드립지요. 나에게 시간… 시간을 좀 주십시오.》

놈은 시간을 끌기 위해 넉두리를 늘어놓았다.

《그 물건은 지금… 도꾜 우에노박물관 고증사… 가와노상에게 가있습니다. 예,… 고증서가 첨부되여야 진품

의 가치가…》

《요술을 부리지 말라!》

경행의 주먹이 어쩔새없이 놈의 낯짝을 들이쳤다.

놈은 소리도 못지르고 나동그라졌다.

전화종이 울렸다.

인석이 송수화기를 들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고이시상인가? 전화를 받고 경찰들을 출동시켰는데 도착했는가? 여보시오. …》

인석은 송수화기를 집어던졌다.

때를 같이하여 대문을 두들겨대는 소리와 함께 놈들의 고함소리가 들렸다.

《경찰이다!》

《대문을 열라!》

차인석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틀렸네. 어서 뒤문으로!》

경행은 방바닥에서 꿈틀거리는 먹사마귀의 더러운 낯짝에 침을 뱉았다.

《생쥐같은 놈,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지 말아. 퉤!》

대문을 들부신 경찰놈들은 안으로 쓸어들었다. 뒤창문을 타고넘은 두사람은 뒤울안의 쪽대문으로 달려갔다.

경행은 문고리를 벗기면서 쪽대문을 내찼다.

뒤문을 지키고있던 경찰놈이 문짝에 부딪쳐 뒤로 나딩굴었다.

다른 한놈은 인석이가 들이치는 주먹에 눈통을 얻어맞고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였다.

두사람은 뒤골목으로 내달렸다.

《서라!―》

호각소리가 울리고 어지러운 발자국소리가 뒤따랐다.

골목길이 갈라지는 곳에서 인석은 경행의 등을 떠밀었다.

《갈라지세. 함께 뛰면 둘 다 끝장이야!》

이 말을 남긴 인석의 모습은 벌써 보이지 않았다.

추격하는 놈들의 다급한 발자국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가까와지고있었다.

인석이 무사하기를 바라며 경행은 발길이 닿는대로 어둠속으로 잦아들었다.

그는 먼곳에서 들려오는 세방의 총소리를 들었다.

대낮에도 해빛이 들지 않는 비좁은 감방안에 10여명의 미결수들이 갇혀있었다.

감방안에는 변기통에서 풍기는 찌릿한 악취와 절망에 사로잡힌 미결수들이 내뿜는 한숨이 쉬쉬한 땀내와 뒤엉켜 숨이 턱턱 막혔다.

이 감방안의 미결수들은 놈들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처리해버릴 《불온분자》들이였다.

그들속에는 반년전에 체포되여 며칠전까지 지독한 고문을 겪은 리경행도 들어있었다.

그는 지금 아찔한 벼랑끝에 선 심정이였다.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딱지가 붙었다.

《전시법》을 위반한 《징용기피자》, 《대일본제국》의 《상이군인》인 고이시 사부로의 주택에 《불법침입》하여 살인을 시도한 《살인미수범》, 게다가 사상동향이 매우 불순한 《정치범》이라는 딱지까지 붙여놓았다.

그를 취급한 《특고》의 아꾸따가와놈은 강탈당한 문화재를 찾기 위해 무진애를 써온 리경행의 사리정연한 항변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거기에는 위험한 적수인 리경행을 없애버리라는 고이시사부로놈의 끈질긴 부추김도 작용하였다.

경행은 놈들에게 체포된지 여러달이 지나도록 차인석의 소식을 모르고있었다.

그가 미결수감방으로 옮겨오기 전날에야 아꾸따가와놈은 그의 질문에 응하였다.

《한가지 묻겠소.》

《뭔가?》

《차인석이 어떻게 되였는가?》

《경찰의 총에 맞아 죽었다.》

《?!》

그 말을 듣는 순간 경행은 입술을 깨물면서 눈을 감았다.

격분을 참을수 없었다. 눈을 번쩍 뜬 그는 불을 토하듯 소리쳤다.

《그를 죽인 살인자는 왜 살려두는가?》

그에 대한 놈의 대답은 철면피하기 그지없었다.

《조선초대〈총독〉 데라우찌는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고 했다. 그것도 모르는가. 우리는 너도 죽여버릴것이다. 지금 비밀리에 설계되고있는 비밀대상공사장이 네놈의 무덤이다. 망할 자식!》

분했다. 먹사마귀의 목대를 분질러놓지 못한 후회가 막심했다.

그때부터 그의 입은 굳게 닫아맨 철문처럼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그의 눈길은 한쪼각의 하늘만이 내다보이는 감방뙤창에 닿아있었다.

절망과 고독감이 리경행의 육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였다.

그날도 담벽에 뒤통수를 붙인채 지긋게 입을 다물고 있는 그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젊은 친구, 아주 실망한게 아닌가?》

《…》

《날 밝기 직전이 제일 어두운 법이지. 신심을 가지자구. 희망은 지척에 있소.》

리경행이 알건대 그는 놈들의 군수공장건설을 파탄시키기 위해 태공을 선동한 《불온분자》로 지목되여 체포된 사람이였다.

그는 말을 이었다.

《임자도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전설같은 소문을 들었겠지?》

《그분께서 백두산에서 왜놈들을 본때있게 족치고계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백두산에서 울리는 총성은 일본땅에도 울려오고있소. 지금 항간에는 왜놈들이 망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고있소.》

경행의 머리속에는 언제인가 길거리에서 만났던 중국사람이 들려준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는 리경행이 조선사람이라는것을 알자 엄지손가락

을 흔들어보이면서 조선의 빨찌산대장 **김일성**장군님 이거다. 그분이 무서워서 일제놈들이 벌벌 떤다, 이제 두고보라, 조선해방 문제없다, 멀지 않았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였다.

감방안의 사람들이 중년남자의 곁에 모여들었다.

그는 침착하고 신심에 넘친 어조로 계속했다.

《바로 얼마전, 부산과 일본의 시모노세끼사이를 오가는 관부련락선 〈고안마루〉3등침실천장에 〈조선독립대장 **김일성**〉이라고 쓴 글발이 나붙었댔소. 조국해방의 날이 가까와오고있습니다.》

순간 《야!—》 하는 환성이 터져올랐다.

그때부터 무겁고 숨막히는 공기에 짓눌려있던 감방안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의식을 잃은채 석탄화차에 실려있던 차인석을 살려내고 극진히 위해준 윤성우였다.

리경행에게서 그가 놈들의 총에 맞아 잘못되였다는 소식을 들은 윤성우는 못내 가슴아파하였다.

《참 훌륭한 청년이였는데… 조국해방의 날이 눈앞에 다가오는데 그날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되다니…》

윤성우는 고개를 떨구고 눈굽을 훔치는 리경행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기의 살점같은 문화재를 빼앗은 날강도놈들에게 목숨까지 빼앗기게 된 비극적운명은 우리에게 참다운 조국이 없었기때문이요.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만 계시면 우리 민족도 살고 민족의 재부도 빛을 뿌리게 될걸세.》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

경행은 가슴이 부풀어올랐다.

절망속에 한숨짓던 그의 가슴속에는 희망의 밝은 해빛이 흘러들었다.

그는 철창을 으스러지게 틀어잡았다.

아직은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였다.

하지만 경행은 어둠을 가시여줄 찬란한 해돋이를 그려보고있었다.

《둘째야, 잘 가거라!》

이 땅우에 무겁게 드리웠던 어둠을 가시여준 찬란한 태양이 누리를 밝히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대전은 일제침략자들을 격멸소탕하고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맞이하였다.

조선인민의 감격과 환희는 하늘땅에 차고넘쳤다.

《우리 인민의 영명한 령도자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해방 만세!》

《만세!—》

…

조국땅 삼천리강토를 진감한 해방의 환호성은 일본땅에도 높이 메아리쳤다.

조국해방!… 너무도 가슴벅찬 기쁜 일을 당한 사람들의 감격과 환희는 해솟는 바다처럼 끓어번졌다.

징용과 징병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명목으로 끌려왔던 사람들, 살길을 찾아 피눈물을 뿌리며 현해탄을 넘었던 사람들이 감격에 울고 감격에 웃으며 시모노세끼와 그 부근의 항구로 쉼없이 흘러갔다.

당시 일본신문에는 해방된 조국으로 쏠린 조선사람들의 열망의 일단을 말해주는 이런 제호가 실렸다.

《시모노세끼와 그 부근일대의 항구들 귀국하는 조선사람들로 대혼잡》

망국노의 쓰라린 설음을 안고 쫓기우고 밀리우며 시들어가던 사람들의 심정은 바람을 안은 불길과도 같은것이였다.

조국해방의 해발은 형무소감옥의 두터운 담벽안에도 비쳐들었다.

강도 일제의 패망으로 미결수감방의 조선청장년들을 비밀공사에 내몰아 그곳에 묻어버리려던 놈들의 비렬한 시도는 수포로 돌아가게 되였다.

경행은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일본이 항복한다고 일본왕 히로히도가 울면서 방송연설을 하였다는것도 그리고 두터운 담벽으로 둘러막힌 형무소철창속에서 풀려나온것도… 모든것이 꿈같이 느껴졌다.

다 죽게 되였던 목숨을 구원해준 위대한 어버이이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걷잡을수 없었다.

형무소를 나선 리경행과 윤성우는 그달음으로 고이시 사부로의 집부터 찾아갔다.

그런데 그놈의 집에는 낯선 늙은 내외가 살고있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고이시가 둬달전에 집을 팔아치우고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다고 했다.

일본이 패망하였으니 어느 순간에 얻어맞을지 모르는 보복이 두려웠던 모양이였다.

경행은 맥이 풀렸다.

두사람은 이 거리에서 잘못된 차인석의 소식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저녁해가 서쪽하늘을 피빛으로 물들이면서 서서히 기울어지고있었다.

앞에서 걷는 사람은 서른댓쯤 나보이는 김남규였고 두사람은 리경행과 윤성우였다.

놈들의 총에 맞아 쓰러진 차인석을 거두어준 사람이 바로 철도역에서 품팔이로동을 하던 김남규였다.

그는 지금 입에 올리기 괴로운 말을 번지고있었다.

《…총소리가 난 곳으로 가보니 피투성이가 된 젊은이가 쓰러져있습디다. 총질을 한 놈들은 그를 뒤골목에 내버린채 가버렸구요. 시체라도 거두어주어야 하겠기에 둘쳐업으려는데 신음소리가 흘러나옵디다. …

…한참만에 그가 하는 말이 죽지 않았으면 나를 찾아오는 젊은이가 있을것이니 그더러 고려청자기를 꼭 찾으라고 전해주… 이럽디다. 한팔이 없는 그 젊은인 눈을 뜬채 숨이 졌수다.》

경행은 눈앞이 흐려와 아무말도 할수 없었다.

입술을 어찌나 꽉 깨물었던지 입언저리로 피가 흘렀다.

성글게 돋은 풀잎들사이로 거무스름한 흙이 드러난 무덤이 나타났다.

인석의 무덤에 술을 붓는 경행의 어깨는 떨리고있었다.

《형님… 아, 가슴이 터져와 참을수가 없구나.》

비통하게 부르짖는 두볼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걷잡을새없이 굴러떨어졌다.

세사람은 고인의 무덤앞에 고개를 숙이였다.

숨가쁜 정적이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주위를 더욱 무겁게 했다.

소쩍소쩍…

어디선가 소쩍새가 구슬프게 운다.

이지러진 달이 그들의 머리우에 처량한 빛을 뿌리고있었다.

《이젠 어떻게 할 작정인가?》

윤성우가 물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이 늦어지더라도 먹사마귀놈을 찾아내겠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일세. 같이 움직이자구.》

그들의 말을 듣고있던 남규가 말하였다.

《그건 그리 어려울것 같지 않소.》

《?!…》

그는 계속했다.

《그놈이 달고다니던 고유끼라는 녀자가 며칠전에 사꾸라차집에 다시 나타났던데 아마 그놈의 행처를 알고있을거요.》

뜻밖의 소식이였다.

성우는 시간을 끌것없이 그 녀자부터 만나보자고 했다.

서둘러 산을 내린 그들은 사꾸라차집을 향해 걸음을 다

그쳤다.

손님이 그친 차집에 홀로 남아 뒤거둠질을 하던 고유끼는 뜻밖에 나타난 세사람을 놀라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죄는 도깨비가 짓고 벼락은 버드나무가 맞는 격으로 고이시가 저지른 죄악의 불티가 자기에게 튕기게 되였음을 직감하였던것이다.

당황한 기색이 어린 그 녀자의 얼굴은 몹시 창백하였다.

리경행이 다가서며 직판 들이댔다.

《고이시 사부로가 어디 있소?》

《…》

《당신의 남편말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듣기만 해도 역겨워요.》

경행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그건 대답이 아니요. 그놈이 어디 있소?》

《그는… 얼마전에 죽었어요.》

《뭐라구?!》

《와까야마현의 외진 어촌에서 정체모를 불량배들에게 칼침을 맞았답니다. 돈과 재물이 불러들인 응당한 벌이겠지요.》

《그렇게 둘러대라고 그놈이 시켰을테지. 바른대로 말하오.》

그 녀자는 걸상을 넘어뜨리면서 뒤걸음질 쳤다.

《왜 이러세요.… 그이상 자세한걸 알려거든 그곳 경찰서에 알아보세요.》

《사실이란 말이지?》

《예…》

고유끼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잦아들었다.

무슨 말인가 더 하려던 그 녀자는 얼굴을 싸쥐고 안으로 들어가버렸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두벌과부가 된 신세를 한탄하는지 죽어서까지 이런 시달림을 받게 한 독사같은 남편을 원망해서인지 주방칸에서 새여나오는 그 녀자의 흐느낌소리를 뒤에 남기고 그들은 밖으로 나왔다.

경행은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뱉이 불끈거렸다.

(이렇게 끝나고말았단 말인가?…)

그는 피우지 않던 담배를 붙여물었다.

그 일이 있은 때부터 경행은 담배를 지독하게 피우는 사람이 되고말았다.

그날밤을 역전근방의 《함바》자리에서 묵은 세사람은 제각기 헤여지게 되였다.

윤성우와 김남규는 헤여진 이후 소식을 모르는 안해와 아이들을 찾아가야 했고 리경행은 고향으로 가기 위해 시모노세끼로 떠나기로 한것이다.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작별이였다.

그들은 해방된 조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뜨거운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그들은 이역의 하늘아래서 맺어진 인연이 앞으로의 운명에 무엇을 가져다줄런지 아직은 알수 없었다.

경행은 기차를 갈아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그로부터 한달만에야 시모노세끼에 가닿을수 있었다.

시모노세끼로는 해방된 조국,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는 동포들이 끊임없이 밀려들었다.

시모노세끼만이 아니라 센자끼, 모지, 하까다, 사세

보항으로도 사람들이 홍수처럼 밀려들었다.

하지만 일본반동들은 동포들을 조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집단학살하는 치떨리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놈들이 감행한 대규모의 집단학살만행가운데는 《우끼시마마루》 폭침사건도 있다.

일제는 패망후 혹가이도에 강제련행되여 혹사당하고 있던 조선사람들과 재일조선인들을 조국으로 보내준다고 하면서 《우끼시마마루》에 태워 바다에서 폭파시켜 집단학살하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놈들은 일본해군특별수송선이였던 《우끼시마마루》에 조선사람들을 태우고 1945년 8월 22일 아오모리현 오미나또항구를 출발시켰다가 8월 24일 마이즈루항앞바다에서 폭파시켜 수천명의 조선사람들을 학살하였다.

놈들은 각종 비밀군사기지건설에 내몰았던 조선사람들을 모조리 죽임으로써 비인도적학대행위와 살인범죄의 진상도 영원히 묻어버리려고 이렇듯 야수적인 만행을 감행하였던것이다.

사태가 험악하게 번져지는 속에 그해도 저물어갔다.

그때까지도 그 수를 헤아릴수 없는 사람들이 배길을 기다리면서 한지에서 고생하고있었다.

이듬해에 접어들면서 남정들은 몇명씩 조를 무어 배(밀선)를 구하기 시작했다.

푼전을 모아 배를 사기도 했고 모자라는 돈을 벌기 위해 일감을 찾아 헤매기도 하였다.

배가 마련되면 밤을 타서 저주로운 일본땅을 떠나가

군 하였다.

리경행은 그해 늦가을에 이르러서야 겨우 마련한 작은 배에 몸을 실을수 있었다.

일행은 13명이였다. 그들은 배를 구하느라고 죽을 고생을 하였다.

기슭에서 가물거리던 불빛도 수평선너머로 사라지고 배는 난바다에 들어섰다.

밤이 깊어지면서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세계적으로 파도가 심한 해협으로 알려진 현해탄은 피눈물을 뿌리며 끌려갔다가 그리운 혈육들이 기다리는 제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조차 안정을 주지 않았다.

세찬 바람은 비를 몰아왔다.

얼굴을 때리던 비방울은 팔뚝같은 비줄기로 변하였다.

산더미같은 파도는 가랑잎같은 배를 아찔한 물마루우에 올려던지기도 하고 아가리를 쩍 벌린 밑으로 구겨박기도 하면서 사납게 심술을 부렸다.

사람들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난파선에 운명을 말긴채 정처없이 흘러가고있었다.

열흘나마 날바다에서 표류하던 그들이 제주도의 성산리 앞바다에서 어부들의 구원을 받게 된것은 참으로 기적이 아닐수 없었다.

시모노세끼에서 부산까지는 8시간정도 걸리는 배길이건만 그들은 열흘나마 풍랑속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였다.

섬사람들의 도움으로 어지간히 몸을 추세운 경행은 그곳을 떠난지 아흐레만에야 순창땅에 들어서게 되였다.

순창읍에서 도로를 따라 둬시간 걸으면 고향이다.

고향이 가까와질수록 경행은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아무리 다잡자고 해도 마음이 자꾸만 불안스러운 까닭은 무엇일가?

그것은 차인석의 죽음과 같은 돌이킬수 없는 참사를 겪으면서도 고려청자기를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데서 오는 자책감과 죄의식에서였다.

얼굴을 쳐들고 아버지와 어머니, 집안식구들앞에 나서기가 두려워졌다.

그의 마음을 아프게 긁어내리는것은 너무나도 쓸쓸한 고향풍경이였다.

강기슭에서 만난 동네아이들에게 말을 시켜보니 일본놈지주가 틀고앉았던 고래등같은 기와집에는 지주로 둔갑한 살쾡이같은 마름놈이 들어앉았고 집안식구들은 아직도 결방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놀라왔다. 왜놈들이 망해 자빠졌는데 이럴수가 있는가. …

날이 어둑어둑해질무렵 경행은 낯익은 고향집앞에 서있었다.

그의 표정은 밝지 못했다.

이윽고 뜰안에서 가벼운 인적기와 함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뉘신지… 누굴 찾나요?》

어릴적부터 귀에 익은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어머니와 눈길이 부딪치는 순간 경행은 목이 꺽 메면서 눈앞이 흐려졌다.

《어머니…》

《?!》

문득 굳어졌던 어머니의 얼굴이 확 밝아진다.

《이게 누구냐, 둘째야!—》

두팔을 벌려들고 어푸러질듯 달려온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사정없이 감싸안았다.

《네가… 네가 왔구나!》

이어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동생들과 누이들, 아버지가 뛰쳐나왔다.

《형이 왔다. 형!…》

《둘째야!》

어머니의 가슴에 한덩어리가 되여 엉겨붙은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두눈에는 물기가 돌았다.

어언 다섯해전… 왜놈에게 빼앗긴 고려청자기를 당장 찾아오겠다고 저녁도 한술 못들고 집을 나간 자식이 일본으로 끌려갔다는 끔찍한 소식이 날아든 때부터 어느 하루도 잊어본적이 없는 아들이였다.

자나깨나 눈이 빠지게 기다린 둘째가 몰라보게 성장한 딴사람이 되여 눈앞에 나타났다.

《아버지… 빈손으로 돌아온 못난 자식을 용서…》

아버지는 말끝을 흐리며 허리를 굽히는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꽉 그러안았다. 그리고는 거치른 손으로 실팍한 어깨를 한참이나 어루쓸었다.

주름살이 깊이 패인 아버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번뜩이고있었다.

왜놈의 간계에 속히운것이 너무 분해서 둘째에게 얼빠진 놈이라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집안의 가보를 찾겠다고 현해탄까지 건늘줄은 몰랐던 아버지였다.

험악한 이역의 하늘아래서 잘못된줄만 알았던 아들이 제집을 찾아 돌아온것이다.

《고생인들 오죽했겠냐.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한참만에 입을 연 아버지의 목소리는 갈리였다.

그날밤 집안식구들은 밤가는줄 모르고 둘째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야기의 갈피갈피에는 알몸으로 렬차에서 뛰여내리던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고 먹사마귀와 대결하다가 어두운 뒤골목에서 피를 뿌리며 쓰러진 차인석의 억울한 죽음도, 철창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가슴찢기는 고통의 나날도 있었다. …

마디마디가 죽음의 나락에서 몸부림치며 시들어가던 망국노의 비참한 수난사였다.

그믐밤처럼 어둡던 이 강산에 조국해방의 새아침을 안아오신 걸출한 령도자는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이시였다.

어머니는 왜놈의 감옥에서 다 죽게 되였던 아들을 다시 보게 해준 영명하신 장군님의 하늘같으신 은덕이 고마와 치마자락으로 연방 눈구석을 찍었다.

마라초를 갈아대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였던 아버지가 한참만에 입을 열었다.

《둘째야,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너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이 애빌 탓하지 말아라.》

《?!》

경행은 물론 온 식구가 숨을 죽이고 아버지를 지켜보았다.

《대를 물려오던 가보를 영영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 견딜수가 없구나.》

웬간해서는 아버지앞에서 말이 없던 어머니가 나직이 한마디 했다.

《여보 그만하시구려.》

그러거나말거나 아버지는 근엄한 어조로 아직은 몰랐던 가문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너희들은 대를 물려오던 집안의 가보에 깃든 깊은 사연을 다는 모를게다. 우리 가문의 조상들가운데 남원일대에서 손꼽히는 도자공(도자기제작기술자)이 한분 있었는데 그는 사람축에 들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어진 정사를 펴는 나라의 왕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온갖 성의를 다해 고려청자기를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간절한 소망은 끝내 이룰수가 없었단다. 백성들을 아껴주고 지켜주는 덕망을 지닌 위인이 없었기때문이였지.

〈임진왜란〉(임진조국전쟁)때였다.

남원땅에 기여든 왜놈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도자공에게 나라에 바치기 위해 만든 고려청자기를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그러자 그는 죽는 한이 있어도 나라와 민족을 제일 사랑하는 출중한 위인에게 드리자고 만든 보물을 미개한 섬나라 쪽발이놈들에게 주겠는가고 하면서 놈들의 낯짝에 침을 뱉았다.

악착한 왜놈들은 그를 죽여 바다에 처넣었단다. …

그후 그 후손들에 의해 우리 대까지 내려온 집안의 가보였다.

물론 소박한 자기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 백성들의 애국지성이 깃들어있는 그 보물을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께 드렸더라면 조상들앞에 얼마나 떳떳하겠느냐.

생각할수록 그것이 마음에 걸려 이 말을 하는게다.》

경행은 가슴을 파고드는 자책감에 얼굴을 들지 못하였다.

그는 울음이 섞인 목소리로 겨우 입을 벌렸다.

《아버지, 이 불효자식이 씻을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만해라. 너로서는 할바를 다했다고 본다. 악착한 왜놈들이 원쑤지.》

마라초를 갈아대면서 아버지는 말머리를 돌렸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소리에도 문밖을 내다보면서 이밤도 아들을 기다리고있을 인석의 어머니를 찾아뵙고 인사를 잘하거라. 대바른 젊은이가 눈도 감지 못한채 잘못되였으니 내가 죄를 지은것만 같구나. 그 고이시란 놈이 뒈지긴 했지만 말이다.》

《날이 밝으면 제꺽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잠자리에 들었으나 리경행은 잠이 오지 않았다.

잠들지 못하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그동안 집안이 겪은 풍파를 말해주었다.

…어느 제사공장에 징용으로 끌려갔던 셋째누이(리복희)는 페인이 되여 돌아왔는데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있다.

굶기를 밥먹듯 하는 집안이여서 입을 하나 더느라고 마흔고개를 바라보는 홀애비에게 살림을 보냈던 맏누이(리귀순)는 보름만에 생리별을 당하였다. 남편이 징병에 끌려갔던것이다.

그로부터 몇달만에 죽었다는 기별을 받은 그는 청상과부가 되여 결방집으로 돌아왔다.

손아래동생들인 진천이, 금행이, 오행이는 뼈가 굳기 전부터 진날, 마른날 가릴새없이 부모를 도와 땅을 허비건만 모진 세월은 어느 하루도 번한 날을 가져다주지 않았다.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자들의 《군정통치》는 인민들에게 더 가혹한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있었다.

리경행은 앞이 꽉 막힌 절벽을 마주선 심정이였다.

(아, 이것이 사무치게 그려보던 내 고향이였단 말인가?…)

길이 어둡다.

싸늘한 바람이 인적없는 밤길을 걷고있는 리경행의 옷자락을 잡아챈다.

그는 지금 서울행 기차를 타기 위해 남원으로 가고있다.

…달포전, 뜬눈으로 밤을 새운 그날도 경행은 이 길로 인석의 고향인 남원으로 갔었다.

집은 텅 비여있었다.

얼마전에 그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던것이다.

인석을 대신하여 주인없는 무덤앞에 술을 부은 경행은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한참이나 어깨를 떨며 엉엉 울었다.

어깨가 축 처져서 집으로 돌아온 그는 이튿날부터 산을 오르내리며 부지런히 땔나무를 하였다.

하루는 아버지가 그를 불러앉히였다.

《이번엔 어디로 갈 작정이냐?》

《서울서 기자를 한다는 형님을 만나보겠어요.》

아버지가 선선히 응했다.

《네가 그럴줄 알았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만나

뵈옵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은분들과 손을 맞잡고 일하는 형을 찾아가면 등탈이 없을게다. 형과 의논하여 바른길을 택하거라.》

다시 집을 나서는 아들을 바래주려 멀리까지 따라나온 어머니는 그전처럼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어서 가거라. 사내가 큰 맘 먹고 집을 나섰으면 장한 길을 걸어야지.》

《어머니, 내 다신 어머니 속을 태우지 않겠어요.》

《안다. 둘째야, 까치가 울적마다 너의 소식을 기다리겠다.》

《안녕히 계십시오.》

서글퍼지는 마음을 눅잦히면서 어머니와 아들은 헤여졌다. …

남원역에서 잠시 숨을 돌린 렬차는 서울을 향해 달렸다.

썰렁한 3등차칸안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희미한 불빛들이 나타났다가는 뒤로 멀어지군 하는 차창밖을 내다보면서 경행은 이제 만나게 될 형님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상봉의 기쁨보다도 형님의 친구인 차인석이가 당한 불행을 전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쓰리고 아팠다.

번거로운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자기쪽을 지켜보는 어떤 사나이의 이상한 눈길을 감촉했다.

그와 눈길이 마주친 경행은 튕기듯 자리에서 몸을 솟구쳤다.

《이게 누군가?… 석근이!》

《경행아, 너 살아있었구나!》

우석근은 단단한 이마를 리경행의 이마에 대고 한바

탕 비벼대고나서 주먹으로 가슴을 툭 질렀다.

《만날 사람은 이렇게 만나는구나. 어디로 가는 길인가?》

《형님을 만나려 서울로 가네. 자, 앉자구.》

자리를 같이한 그들은 토목공사장에서 헤여진 이후의 소식을 나누었다.

경행의 이야기를 듣고있던 석근이가 놀라운 사실을 말하였다.

《잘못 알고있군. 그놈이 살아있네. 먹사마귀말이야.》

《뭐?! 그게 무슨 소린가?》

《그놈에게 속은 생각을 하면… 에익!》

…한달전 후꾸이역근방에서였다.

뒤늦게야 귀국의 길에 오른 석근은 뜻밖에도 언제인가 경행에게서 들은 먹사마귀와 맞다들게 되였다.

성미가 불같은 석근은 놈의 코등에 주먹찜질을 안기면서 당장 고려청자기를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코등에 벼락을 맞은 먹사마귀는 코피를 문대기면서 생사람을 잡는다고 엄살을 부리며 아부재기를 쳤다.

《이건 정말 너무합니다.… 그 물건은 나를 찾아온 주인에게 〈사죄〉를 하고 정히 돌려주었단 말이요. 정말입니다.》

왁작 떠들어대는 통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주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우겨대니 석근은 할 말이 없게 되였다.

《더러운 놈의 족속, 이걸 그저!》

이마로 놈의 상판대기를 지끈 들이받은 석근은 땅바닥에서 디굴디굴 구는 그놈의 몸뚱이에 침을 탁 뱉고 돌

아섰다. …

우석근의 말을 들은 경행은 가장 아픈 곳을 찔린 사람처럼 입을 앙다물었다.

돌처럼 굳어진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그놈이 살아있다니…

석근의 입에서는 놀라운 소리만 튀여나왔다.

《이보라구, 난 현해탄을 다시 넘으려고 결심했네.》

《?!…》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왜나라땅엔 내가 집을 떠난 뒤 징용에 끌려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유복동생이 있네. 그애를 찾아가지고 북반부로 가려네.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말일세. 이것은 며칠전에 아버지곁에 묻힌 어머니의 마지막당부였네.》

《언제 떠나려나?》

《서둘러야지.》

《집주소를 적어주게.》

《그러세. 그 주소에 며칠이나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그로부터 10여일이 지난 어느날.

둘째네 곁방집으로 한통의 편지가 날아들었다.

보낸 사람의 주소가 적혀있지 않는 편지였다.

온 집안식구가 편지의 글줄을 더듬는 아버지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경행이가 보낸 편지였다.

…아버지, 놀라지 마십시오.

형님을 만나려 집을 나설 때까지도 이렇게 엄청난 결심을 하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서울로 달리는 기차안에서 만난 우석근이라는 친구에게서 뒈진줄 알았던 고이시 사부로놈이 살아있다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였습니다. 놀랍기도 하고 분통이 터져서 피가 거꾸로 흐르는것 같았습니다.

나의 눈앞에는 억울하게 숨진 인석형님의 당부가 되살아났고 그에게 죄를 지은것 같다고 하시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귀전을 두드렸습니다.

생각할수록 울컥울컥 치미는 분노를 참을수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나를 맞아준것은 우익깡패들에게 테로를 당하여 죽음의 문어구에 이른 형님의 참혹한 모습이였습니다.

지금 미제와 반동세력들은 각계각층 인민들속에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의 위대성과 자주정치로선을 선전하고 민주세력의 단합을 위하여 투쟁하는 애국적민주인사들과 진보적인 기자, 언론인들에 대한 암살과 테로행위를 날로 악랄하게 감행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애국적인 문필활동을 벌리던 형님도 놈들의 탄압의 대상이 되였던것입니다.

나는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긴 문화재강탈자이며 살인자인 먹사마귀놈과 결판을 내고야말겠다는 결심을 형님에게 터놓았습니다.

형님은 말하였습니다.

…경행아, 우리 민족의 참다운 조국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이시다.

사람에게 있어서 조국에 자기를 바치는것보다 더 큰 자

랑과 행복은 없다. 마음을 크게 먹어라.

나는 네가 한집안의 가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제 침략자들에게 강탈당한 민족의 문화재를 찾아내는 애국의 길에 한몸을 내대기 바란다.

조국이 기다리는 참된 아들이 되거라. …

이렇듯 소중한 부탁을 남긴 형님은 나의 두손을 꾹 잡은채 눈을 감았습니다.

…뜻있는분들과 함께 형님의 장례를 치르고 우석근을 찾아가니 현해탄을 건늘 밀선이 기다리고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조국땅 마지막기슭에 서있지만 목적지는 은혜로운 장군님의 품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꿋꿋이 오래오래 사시면서 조국에 한생을 바칠 결심을 품고 먼길을 가는 이 아들의 앞길을 축복해주십시오.

부산에서 둘째 리경행 올림.

편지에서 눈을 뗀 아버지는 몸을 일으켜세우더니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였다.

그리고는 아득한 산발너머 먼 동남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둘째야, 잘 가거라!》

남모르는 길에서

…
내 숨결 이어준 그 품이 없다면
이 몸은 바람에 진 락엽같으리
장군님 안겨준 영원한 삶있어
나의 심장 불태우네

아— 축복받은 나의 삶이여 나의 삶이여
…

—노래 《축복받은 나의 삶》에서—

소쩍새 우는 밤

눅눅한 바다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는 모래불에 두사람이 앉아있었다.

마흔고개를 바라보는 김남규와 리경행이였다.

《임자도 많이 변했구만. 그래 몇살인가?》

《스물일곱입니다.》

《그렇군. 우리가 헤여진 때로부터 3년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들은 각이한 운명의 길을 걸어온 어제날의 회포를 나누었다.

바다는 안정을 잃은듯 쉼없이 넘실댄다.

경행의 머리속에는 밀선에 몸을 싣고 멀어져가는 고국산천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몇해전의 쓸쓸한 가을밤이 어제런듯 삼삼히 떠올랐다.

…

일행은 다섯이였다.

부산에서 얼마간 떨어진 영도섬기슭을 떠날 때만 하여도 잔잔하던 바다는 밤이 깊어질수록 사나와졌다.

머리를 풀어헤친 거센 파도는 기승을 부리며 배전을 날아넘어 얼음알같은 물보라를 사정없이 들씌웠다.

시퍼렇게 언 석근은 물이 줄줄 흐르는 얼굴을 손바닥으로 연방 내리쓸면서 투덜거렸다.

《제길, 바다귀신이 될 생각은 없는데 이놈의 바다가 무슨 일을 칠 잡도리군.》

일행은 뼈속까지 얼어드는 추위속에서 필사적으로 물을 퍼냈다.

뭍이 가까와지자 그들은 배의 발동을 끄고 노를 젓기 시작했다.

석근이가 우려하던 일은 기슭에 발을 올려놓은 순간에 터졌다.

어둠속에서 별안간 《누구야!》 하는 고함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바다가를 순찰하던 경찰놈들이였다.

석근은 경행의 어깨를 콱 떠박질렀다.

《뛰라!》

순식간에 흩어진 그들은 발길이 닿는대로 내처 달리였다.

《땅! 땅!》

총소리가 거퍼 울렸으나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경행은 키를 넘는 새초밭으로 뛰여들었다. …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한사람은 총에 맞아 죽고 두사람이 붙잡혔다는 소문이 돌더군요. 그때 우석근이도 잘못되였는지…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후 난 떠돌이생활을 하면서 못해본 일이 없습니다.》
《고생이 많았구만.》
《스스로 사서 하는 고생이여서 그런지 꿈만합니다.》
《원 사람두, 고생을 사서 할 멋이야 있나.》
《고생끝에 락이라는데 끝을 볼 날이 있을겁니다.》
경행은 남규에게 문화재수집에 목표를 걸게 된 사연을 간단히 말해주었다.
사연을 알게 된 남규는 경행을 대하는 품이 달라졌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만. 진작 그말부터 할것이지. 솔직히 말해서 난 일본으로 다시 발길을 한 임자를 바로 보지 않았댔네. 용서하라구.
왜놈이 득실거리는 섬나라에서 애국의 장한 뜻을 품은 임자를 보니 제 밥벌이나 겨우 하는 나로서는 머리가 숙어지는구만.》
《이러지 마십시오.》
남규는 손을 내저었다.
《아닐세. 조국에 한생을 바칠 일거리를 찾은 사람은 헌옷을 입어도 고상한 법일세.》
어느덧 해가 기울고있었다.
남규는 경행을 자기 집으로 이끌었다.
두.사람은 터갈라진 포장도로를 따라 갖가지 간판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번잡한 골목으로 들어섰다.
김남규의 집은 《동포마을》로 불리우는 뒤골목에 있었다. 널판자로 울바자를 둘러친 낡은 판자집이였다.
마당안으로 들어서는데 저자바구니를 끼고 집을 나서던 처녀가 웃음이 남실거리는 어조로 묻는다.
《아저씨, 지금 오세요?》

《오냐, 날이 저무는데 어딜 가냐?》
《찬거리가 변변치 않아서…》
남규는 안주머니에서 얼마간의 돈을 끄집어냈다.
《마침 잘됐다. 귀한 손님이 왔는데 솜씨를 보여라.》
귀한 손님에게 눈길을 보내는 처녀와 시선이 마주친 경행의 얼굴에는 놀라운 빛이 언뜻 스치였다.
《?!》
《어마나!…》
처녀도 놀라 얼굴을 붉히며 손으로 입을 가린다.
알릴듯말듯 고개를 숙여보인 처녀는 널문밖으로 종종걸음을 놓았다.
남규는 머리를 기웃거렸다.
《아는 사인가?》
《아… 아니요.》
《모를 일이군.》
남규의 말에 의하면 처녀는 나가사끼에 미국놈들이 떨군 원자탄이 폭발할 때 어머니를 잃은 후 언니네 집에서 함께 사는 전순옥이였다.
음식손이 좋은 처녀는 찬거리가 변변치 않았으나 성의껏 저녁상을 차렸다.
경행은 오래간만에 술잔을 비우면서 음식을 맛있게 들었다.
저녁상을 물리고 웃방에 잠자리를 편 남규는 먼저 드러누웠다.
《난 한잔하면 눈이 들어붙군 해서 먼저 눕겠네.》
《좋은 습관입니다.》
《내 임자더러 하숙비 내란 소리 안할테니 이 방에 거

처를 정하게.》

《그렇게야 어떻게?…》

《다 큰 처제가 있어서 그런건 아니니 달리 생각지 말게. 차인석이란 사람은 임자를 돕다가 목숨을 잃었는데 이까짓 방 한칸이 뭐겠나. 처하구두 의논이 있었네. 우리 순옥이두 싫지 않은 눈치더군.》

《고맙습니다.》

《허허… 이젠 자자구.》

경행은 남규내외의 진정이 고맙기 그지없었다.

남규는 이내 곯아떨어져 가볍게 코를 골았다.

이때 아래방에서 언니와 동생이 주고받는 말소리가 도간도간 들려온다.

《순옥아, 아저씨가 나더러 너에게 말을 시켜보라더구나.》

《어마나, 무슨 말?…》

《거짓말 안하지?》

《아저씨의 분부대로 말을 시켜봐. 난 거짓말을 할게 없으니…》

《너 아저씨가 데리고온 총각을 어떻게 아니? 눈치가 다르더래.》

경행은 저도모르게 숨을 죽이고 귀를 강구었다.

《언니, 그 사람이예요. 보름전 길거리에서…》

《그래?… 어쩌면…》

…그날은 류달리 많은 사람들이 붐비던 일요일 저녁무렵이였다.

오다와라에 살고있는 한 일본사람의 집에 고려물형자기에 속하는 참대순모양의 포도무늬청자상감주전자가 있

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다가 랭대를 받고 돌아오던 경행은 길거리에서 조선처녀를 희롱하는 일본불량배들을 보게 되였다.

숱한 사람들이 있으면서도 그 놈팽이들의 복수가 두려워서 누구도 말릴 엄두를 내지 못하고 구경만 했다.

체통이 다부지게 생긴 놈팽이와 볼편에 칼자리가 난 주걱턱이 처녀를 협박하고있었다.

《아릿다운 아가씨, 우리한테 가서 술을 부을테냐 아니면 이 거리바닥에서 편포짝이 될테냐? 헤헤헤…》

경행은 속에서 불뭉치같은것이 꿈틀거렸다.

성큼성큼 다가간 그는 두목인듯한 놈의 팔을 움켜잡았다.

《이놈아, 어디 내앞에서 다시 짖어봐라!》

《이건 또 웬 시라소니야!》 하면서 주먹질을 하려 들던 주걱턱이 경행의 뒤발질에 가슴을 걷어채우고 길바닥에 뻐드러졌다.

경행은 그쪽에 눈길도 주지 않고 붙잡은 놈을 지그시 쏘아보았다.

《좀스러운 놈들, 사내는 녀자앞에서 허세를 부리지 않아.》

《아야야!》

상통을 찔그리며 고개를 돌린 난쟁이는 별안간 눈을 흡뜨면서 괴상한 소래기를 내질렀다.

뼈가 으스러지게 팔을 틀어잡은 젊은이가 언제인가 외팔이와 함께 고이시의 집에 들이닥쳤던 조선청년이라는것을 알아챘던것이다.

경행이도 그놈을 제꺽 알아보았다.

《마침 잘 만났다.》

높지 않은 음성이였으나 턱떨어진 개처럼 입이 흉하게 벌어진 하지메는 아래도리를 떨고있었다.

《형… 형님, 잘못했습니다.》

혀가 돌아가는대로 주절대던 하지메는 팔을 탁 나꿔챘다.

팔소매가 뚝 떨어지자 놈은 냅다 뛰였다.

그러자 주걱턱을 비롯한 다른 놈팽이들도 어느새 바퀴새끼들처럼 뿔뿔이 달아뺐다.

그놈을 놓친것이 분했다.

한때 먹사마귀의 손탁에서 놀아나던 놈이니 그놈이 있는 곳을 알수도 있을것이였기때문이였다.

불량배들에게 걸려들었던 처녀가 놈들이 사라진쪽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경행에게 다가서며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였다.

《고맙습니다.》

슬그머니 돌아다보니 몸매가 곱고 동그란 눈에 볼우물이 인상적인 처녀였다.

그때까지 손에 들려있던 팔소매를 휙 집어던진 경행은 처녀에게 별로 할 말이 없었다.

《어서 가보십시오.》

《…》

…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경행은 아래방에서 소곤거리는 이야기가 왕청같은데로 번져지는 바람에 당황해났다.

그는 숨을 죽이고 귀를 벌리였다.

《순옥아, 네 보기엔 그 총각이 어때?》

《어마나, 언닌 정말…》

《그 총각이 제발로 널 찾아온걸 보니 하늘이 정해준 연분이 아닐가?》

《제발로 찾아왔을게 뭐야. 아저씨가 데리고왔지.》

《애, 일이 잘될라면 별나게 아귀가 척척 들어맞는단다. 그게 연분이라는거야.》

《…》

《너만 싫지 않다면 내가 좀 나서볼가?》

《난 몰라.》

《싫지는 않은 모양이구나. 호호…》

《돌지 않았어. 웃방에서 들으면 웃겠네.》

《코고는 소리가 예까지 들리는데 웃긴 누가 웃어. 꿈속에서나 웃겠는지.》

《언닌 내가 미운가봐. 연분이니 뭐니 하는건 날 내쫓자는거지 뭐야.》

《속으로 좋아하면서도 호호… 아야야… 때리긴 왜 때리니?》

…

그 소리를 듣느라니 경행은 제풀에 웃음이 나왔다.

그는 장가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었다.

어느새 술이 말짱 깼는지 잠이 오지 않는다.

경행은 소리없이 일어나 담배를 붙여물었다.

그는 마음속에서 울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연분이고 뭐고 당치않은 일이야. 내가 살림이나 펴자고 현해탄을 넘어온것은 아니지 않는가. …

그는 재털이에 몇모금 피운 담배불을 비벼끄고 자리

에 누웠다.

먼산 어디선가 소쩍새가 운다.

쥐죽은듯 고요한 밤의 적막을 흔들어놓는 소쩍새의 울음소리를 듣노라니 작은 입을 옥물고 불량배들을 무섭게 노려보던 처녀의 오돌찬 모습이 눈앞에 어려왔다.

그 처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있을가?…

어인 일인지 한두해에 끝을 볼수 없는 멀고먼 길을 그 처녀가 함께 걸을수 있을가 하는 엉뚱한 생각이 머리를 쳐든다.

갈래많은 생각이 번거롭게 겹쳐드는 잠들수 없는 밤이였다.

웃방에 거처를 정한 리경행은 어느날 사품을 정리했다.

사품이라야 모서리가 닳아진 낡은 가죽트렁크속에 넣어가지고 다니던 옷가지들과 그동안 수집한 여라문점의 문화재들이였다.

그가운데서 이채를 띠는것은 세점의 도자기였다.

고유한 고려자기들인 돋을무늬백자와 13세기부터 약 100년간에 많이 제작된 검은자기 그리고 물형자기에 속하는 오리모양의 연적이였다.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하면서 힘들게 한점한점 손에 넣은 귀중한 문화재들이였다.

그것들을 수집하기까지에는 발이 닳도록 걸음을 많이도 걸었다.

그 보물들을 구경하러 남규내외가 웃방으로 올라왔다.

《그거 참 희한한걸. 방안이 다 환해지는구만.》

남규는 혀를 차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의 안해가 아래방에 대고 소리쳤다.

《순옥아, 너도 올라오너라.》

발끝을 보면서 웃방으로 조심스레 올라온 순옥은 치마자락으로 통통한 다리를 감싸안으며 언니곁에 앉았다.

그 역시 진귀한 유물들에 눈길을 박은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눈으로 보는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처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 고려자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그의 언니도 맞장구를 쳤다.

《나도 그걸 부탁하려던 참이예요.》

세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쏠리였다.

경행은 침착하려고 왼심을 쓰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 민족의 자랑인 고려자기는 높은 예술성으로 하여 세계 중세력사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고있습니다. 고려자기를 대표하는 자기는 비취옥의 우아한 푸른색을 내는 비색청자와 거기에 상감을 한 청자기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고려사람들은 바로 청자기에 천하제일의 비색을 내는데 성공하였을뿐만아니라 상감기법으로써 자기공예기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상감은 그림도 아니고 조각도 아닌 재치있는 수법을 빌어 화학적장식효과를 보게 한데 독특한 묘기가 있습니다.》

리경행을 웃음어린 눈으로 바라보던 순옥은 얼른 눈

을 내리깔면서 언니에게 속삭였다.

《언니, 우리끼리 듣기는 아쉬운 이야기군요.》

《정말 그렇구나.》

경행은 아쉬운 표정을 숨기지 못하면서 계속했다.

《이자리에서 고려청자기를 보여드리지 못하는것이 유감이군요. 우리 집에서 대를 물려오던 가보는 국화꽃이 만발한 상감청자였습니다.

도적질에 이골이 난 왜놈에게 그 보물을 빼앗긴지도 어느덧 10년이 되여옵니다.

나는 그 고려청자기를 꼭 찾고야말것입니다.》

남규가 한마디 하였다.

《쪽발이놈들에게 빼앗긴 나라의 재보를 제 살점이 떨어진것보다 더 중히 여기고 그 일에 몸을 내댄다는게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지. 어쨌든 임자는 쉽지 않은 사람일세.》

그러자 경행은 얼굴을 붉히며 가볍게 손을 내저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민족이 창조한 력사와 문화유적, 문화재를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며 길이 빛내여주시는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십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새 조국건설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평양시책임일군들을 부르시여 문화유적들을 복구하고 잘 보존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고 **김일성**종합대학터전을 잡아주실 때에는 처음 정한 곳이 옛날 고구려의 토성자리임을 알아보시고 력사유적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한낮이 기울도록 터전을 다시 잡아주셨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

그의 이야기는 강서세무덤으로 이어졌다.

강서세무덤은 그 구조형식이 잘되였을뿐아니라 벽화가 특출하게 우수한것으로 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진 고구려의 벽화무덤이다.

강서세무덤이 세상에 알려진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였으나 문헌상으로 기록되기 시작한것은 20세기초부터였다.

이 무덤이 세상에 알려지자 1905년 일제어용학자 세끼노라는자는 무덤안에 있던 고구려시기의 유물들을 들추어냈으며 중무덤천정고임돌의 벽화를 파괴하여 가져가는 등 범죄적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놈들의 죄행으로 하여 무덤안으로 비물이 스며들고 습기가 차서 벽체에 심한 손상이 가고 귀중한 벽화까지 퇴색되여가고있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새 조국건설의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강서세무덤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무덤벽화내용과 그 화법, 무덤의 건축기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그 보존을 위한 강령적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벽화를 그린 솜씨가 훌륭하며 1 500여년이 지났는데도 채색이 선명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재능에 의하여 창조된 고구려고분벽화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다고 보존관리를 잘하도록 이르시였다.

경행이가 들려준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사실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6년 4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의 법령으로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제정하도록 하신데 이어 이를 실천하는 기관으로서 《북조선고적보존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하시였으며 공화국이 창건된 후인 1949년 8월 2일에는 내각결정으로 《물질문화유물보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시여 일체 문화유물은 인민의 소유라는것을 선포하시고 문화유물에 대한 조사, 보존, 연구사업을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유산의 보존관리에 깃든 현명한 령도와 고귀한 가르치심은 그의 굴할줄 모르는 정신력의 원천으로 되였다.

리경행의 이야기는 저도모르는 사이에 순옥의 마음을 세차게 흔들어놓았다.

오래 사귀여도 믿을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번 만나서도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는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처녀의 눈에 안겨든 총각은 모든것을 맡길수 있는 사람이였다. 키는 작고 옷차림은 수수해도 얼마나 돋보이는가.

처녀의 가슴속에 일어난 파도는 잦아들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한지붕아래서 한가마밥을 먹어도 웃방에 든 청년은 보기가 힘들었다.

어느 하루도 한가한 시간이 없이 경행은 늘 분망한 나날을 보냈다.

기차를 타고 며칠씩 여러 지방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문화재를 가지고있는 일본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제의 조선문화재략탈행위의 진상을 폭로하는 한편 설득력있게 상대방을 굴복시켜 그들이 끼고있던 유물을 찾아

가지고 돌아서군 했다.

전문적으로 그 일만 할수도 없었다.

문화재수집을 위해서뿐아니라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 있어야 했다.

그리하여 그는 기차방통에서 석탄을 싣거나 부리우는 힘에 부치는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지긋지긋하였지만 힘든줄을 몰랐다.

그에게 새힘을 북돋아준것은 하숙집처녀인 순옥이였다.

그 처녀는 밤늦게까지 언니를 도와 재봉기를 돌리면서 경행을 기다렸고 그가 돌아오면 가마안에 들여놓았던 따끈한 음식을 챙겨주군 하였다.

덟은 옷을 빨아 손질하느라 밤을 꼬박 밝히기도 하였다.

신세만 자꾸 지는것이 마음에 걸려 은근히 속을 태우던 경행은 상점에서 깜찍하게 생긴 구두를 한컬레 샀다.

처녀가 천이 해진 신발을 깁는것을 보았던것이다.

구두를 사들고 오긴 했는데 정작 처녀에게 주자니 쑥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다음날 일찌감치 집을 나서면서 처녀의 낡은 신발과 슬쩍 바꾸어놓았다.

구두는 처녀의 발에 꼭 맞았다.

두사람의 가슴속에서는 첫사랑의 새싹이 이미전부터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있었다.

사랑은 마음의 등불이였고 생활의 힘이였다.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밤의 고요를 흔들어놓던 어느날 그

들은 한적한 동뚝길을 나란히 걸었다.

혼자 있을 때에는 마음속으로 처녀와 많은 말을 주고받았으나 정작 맞서고보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퍼그나 흘렀으나 누구도 선뜻 입을 떼지 못하였다.

은근히 자존심이 살아오른 경행은 피우던 담배를 던져버리며 우뚝 멈춰서더니 처녀의 앞을 막아섰다.

《아무말이나 좀 하오.》

《…》

발끝에 눈길을 박은 처녀의 입은 열릴것 같지 않았다.

경행은 처녀와 마주선채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헤쳐놓았다.

《지내봐서 알겠지만 난 아무것도 줄것이 없는 사람이요. 말하자면 집도 일자리도 없이 줄창 떠돌아다니는 빈털터리란 말이요.》

《…》

《그런데… 거기선 뭘 보구 나같은 사람에게 마음을 기울이는가 말이요.》

순옥은 잔잔한 어조로 또박또박 속에 품고있던 말을 하였다.

《…나에겐 마음속에 조국을 안고 사는 흐려지지 않은 량심이 더없이 소중했어요. 그것을 자랑으로 여겨주세요.

난 그저… 힘껏 도와드리고싶어요.》

이윽하여 둘은 또다시 동강난 이야기를 이어놓지 못한채 천천히 걸음을 옮기였다.

이번에도 먼저 입을 벌린것은 경행이였다.

《고맙지만 난 무척 힘에 부치는 먼길을 택한 사람이여서 다른 사람까지 고생시킬 생각을 하면… 그게 제일 두렵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순옥은 조용하면서도 확신에 넘친 어조로 입을 열었다.

《강을 따라 가고가느라면 꼭 바다를 보게 될거예요.》

경행은 처녀의 진정이 무척 고마왔다.

그는 처녀의 손을 꽉 잡았다.

《순옥이, 고맙소.》

소쩍소쩍…

소쩍새 우는 소리는 그냥 들려온다.

여느때에는 처량하게 들리던 밤새의 울음소리였건만 두 사람에게는 정답게만 느껴졌다.

그해 초가을의 어느날에 그들은 소박한 결혼식을 치르었다.

바다로 향한 생활의 흐름은 거세차게 줄달음치기 시작했다.

물러설수 없는 길

세번째로 자리를 옮긴 고이시 사부로의 집은 번잡한 거리에서 얼마간 떨어진 뒤골목에 있었다.

키를 넘는 세멘트담장에는 거미줄같은 담쟁이덩굴이 어지럽게 달라붙었다.

한밤중에 웬 사나이가 이 집 대문앞에 나타났다.

밭은 목을 움츠린 사나이는 대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개가 사납게 짖어댔다.

잠시후 자박자박하는 발자국소리가 가까와지더니 잠내나는 녀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고이시상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하지메가 왔다고 전하시오.》

《잠간 기다리세요.》

대문은 한참만에 열렸다.

하지메가 문턱을 넘어서자 그 녀자는 대문을 안으로 닫아걸었다.

하지메는 코도 내밀지 않는 먹사마귀에게 눈먼 욕을 퍼부었다.

(흥, 그 주제에 속은 살아서 바람개비같은 헌 계집년을 또 갈아댔군.)

몇해째 얼씬하지 않던 하지메가 밤걸음을 하게 된데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었다.

한때 자기를 사냥개처럼 부려먹던 능구렝이에게 골탕을 먹이고 돈까지 우려낼 작정이였다.

잠옷바람인 고이시는 시답지 않은 낯으로 그를 맞았다.

《본지 오래군. 헌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 밤중에 나타났나?》

하지메는 모욕적인 수작에 밸이 불끈거렸지만 여유작작하게 담배부터 꼬나물었다.

《고이시상, 친구는 백명도 적지만 원쑤는 한명도 많다는 말을 들어보셨는가요?》

먹사마귀도 담배를 꼬나물더니 비자루같은 연기를 내불었다.

《그새 말재간이 퍽 늘었구만.》

《난 말재간이나 부리자고 온게 아닙니다.》

촉각이 예민한 먹사마귀는 이 돈벌레가 심상치 않은 불꾸레미를 안고왔다는것을 직감했다.

눈거죽을 들어 젊은 계집에게 턱짓을 하자 하루꼬라는 녀자는 고개를 까딱하고는 얼른 부엌으로 나갔다.

담배가 절반도 타기 전에 간소한 술상이 들어왔다.

하루끄는 허리가 잘쑥한 유리잔에 술을 부었다.

《들자구.》

고이시가 먼저 잔을 들었다.

빈속에 도수높은 술을 단숨에 들이킨 하지메는 제손으로 빈잔에 술병을 기울이며 지껄였다.

《맑은 정신에 말재간을 마저 부리겠습니다.》

《들어주지.》

《그놈이 당신을 찾고있습니다.》

《그놈이라니?…》

《고려청자기를 내놓으라고 외팔이와 함께 달려들었던 젊은놈 말입니다.》

《엉?!》

고이시는 얇은 얼음장우를 건느다가 얼음이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놀란 사람처럼 등골이 오싹했다.

공포에 질린 놈의 눈앞에는 다른 얼굴도 떠올랐다.

후꾸이역근방에서 고려청자기를 내놓으라고 성난 소처럼 들이받던 젊은 조선놈(우석근)의 모습이였다.

몇달전에 그놈을 본 때로부터 바늘을 삼킨것처럼 속이 껄끔한데 홍두깨같은 소식이 또 날아든것이다.

상서롭지 못한 일이 생겼다는것을 페부로 느낀 하루끄의 얼굴도 파랗게 질렸다.

제손으로 술을 부어마시던 하지메는 안주를 질근질근 씹으면서 구운 가재처럼 빨갛게 익은 상판대기를 쳐들었다.

《하지만 걱정마십시오. 나에겐 앉은자리에서 그놈을 제낄수 있는 든든한 덫이 있으니까요.》

《그게 정말인가?》

《그전처럼 이 하지메를 우습게 보지 마시우.》

하지만 지금 상대를 우습게 보는것은 먹사마귀가 아니라 하지메였다.

그의 말마디에서 한가닥의 희망을 느낀 먹사마귀는 엉치를 끌며 바투 나앉았다.

《그게 어떤 덫인데?》

《이 잘난 술이나 한잔 마시고서야 어디 말할 재미가 있습니까.》

돈을 쓰라는 수작이였다.

놀아대는 꼴이 발기발기 찢어죽이고싶도록 밉살스러웠지만 로회한 먹사마귀는 어깨를 낮추었다.

《모든건 다 값이 있는 법이지. 그래 얼마를 달라나?》

낚시를 물었다고 생각한 하지메는 벌쭉 웃기까지 하며 두손을 들어 열손가락을 펴보였다.

《열장이라… 주지.》

고이시는 허리춤에 차고있던 돈주머니에서 돈뭉치를 내밀었다.

《자, 이젠 그 덫이 어떤것인지 내놓게.》

《예쁘게 생긴 조선계집년앞에서 나를 망신시킨 그 젊은놈은 역시 담이 크긴 크더군요.

이전에 일본륙군대신을 해먹던 아라끼 사다오의 저택을 뚫고 들어가 부엉이고간같은 서재에서 여러가지 유물, 자료들을 자그만치 두자동차분이나 빼냈더란 말입니다.》

듣고보니 하지메가 큰소리를 칠만도 했다.

하지만 먹사마귀는 풋강아지같은 불량배따위에게 쉽게 업히울 작자가 아니였다.

그는 하지메를 보이지 않는 함정으로 슬슬 몰아갔다.

《음, 그게 사실이라면 그놈은 적어도 무기징역을 면하

지 못할거네.》

《그럼요. 여부가 있습니까!》

《그게 언제 있은 일인가?》

《한달이 넘었지요.》

《그런즉 그놈이 하는 일을 처음부터 알고있었구만.》

《아 그러믄요.》

《임자 큰일 했구만. 괜찮아.》

고이시는 드디여 하지메를 궁지에로 몰아넣기 시작했다.

《임자도 그놈처럼 감옥귀신이 될 차비를 하게.》

《뭐라구요?!… 물에 빠진 놈 건져놓으니까 내 물건 내놓으라 한다더니 당신은 그보다 더하구려. 더러워서… 난 가겠수다.》

고이시는 손바닥으로 술상을 탕 쳤다.

《야, 그렇게 엄중한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있으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건 〈불신고죄〉고 한달나마 숨겨온건 〈방임죄〉야!》

《?!…》

《게다가 〈대일본제국〉에 충실했던 〈상이군인〉을 협박하여 돈까지 빼앗아낸 〈인권유린죄〉!…

야! 피할 구멍이 있거든 어디 혀바닥을 계속 나풀거리며 말재간을 부려봐!》

《아, 그건…》

손바닥을 뒤집듯 사정이 달라졌다.

졸지에 우거지상이 되여버린 하지메는 안주머니에 집어넣었던 돈뭉치를 두손으로 섬겨바치며 무릎을 꿇고 빌붙는 신세가 되고말았다.

《고이시상, 내가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제발…》

《개똥같은 새끼, 썩 나가라!》

제가 놓은 덫에 제가 걸려들게 된 하지메는 쫓기는 개신세가 되여 밭은 목을 꺾은채 어두운 골목길을 터벅터벅 걸어갔다.

독사눈을 사납게 흘긴 먹사마귀는 전화로 경찰을 찾았다.

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있을 때 윤성우와 헤여진 리경행은 안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고있었다.

가정을 이룬 그들이 도꾜교외의 단칸짜리 판자집으로 옮겨앉은것은 몇달전이였다.

그 집을 구해준 사람은 윤성우였다.

여러해만에 다시 만난 그는 문화재수집을 위해 뛰여다니는 경행을 적극 도와나섰다.

그의 도움을 받아가며 경행은 일본땅에 흩어져있는 민족문화재수집을 위한 민간단체인 물질문화보존협회도 내오게 되였다.

문화재수집사업은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하루는 일본사람인 야마모도라는 학자가 경행을 찾아왔다.

그로 말하면 동경제국대학 문학과를 나온 량심적인 지성인이였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경행은 한때 제국주의일본의 륙군대신자리를 타고앉아 악명을 떨친것으로 하여 수급전범자로 락인된 아라끼 사다오의 집에 조선에서 략탈한 력사유물, 자료들이 적지 않게 잠겨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야마모도가 그를 찾아온것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내가 그림의 떡같은 말을 한것 같소.》 하는 야마모도에게 경행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아닙니다. 나는 그자의 수중에 들어있는것을 전부 찾아야 하겠습니다.》

야마모도는 펄쩍 뛰였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랬다구 함부로 나서지 마오. 웬간한 인물들도 감히 마주서기를 꺼려하는 그 늙다리에게 잘못 걸려들면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오. 더우기 그자는 조선에 대한 적대적감정이 뿌리깊은 악한이란 말이요.》

《나에게는 오구라 분지라는 일본이름이 있으니 그걸 써먹겠습니다.

범을 잡자면 범의 굴에 들어가야 합니다.》

《범을 잡기는 고사하고 범에게 먹히울가봐 그러는거요.

아라끼는 중국대륙과 몽골을 평정한 다음 로씨야까지 타고앉을 야심을 품고있던 철저한 반공광신자였소.

군국주의 일본민족이 아닌 족속들은 무자비하게 죽이라고 부르짖던 폭군이니 잘 생각해보는게 좋겠소.》

《선생이 우려하는것보다 더 무서운 봉변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 침묵을 지키기에는 량심이 허락치 않습니다.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을 따라 조국을 찾기 위해 불바다를 헤쳐온 혁명선렬들은 조국을 위하여 청춘을 바치고 목숨도 바쳤는데 량심이야 왜 못바치겠습니까.》

그의 이야기는 정의감이 강한 야마모도에게 큰 충격

을 주었다.

그후 리경행은 물질문화보존협회 성원의 자격으로 전 륙군대신 아라끼 사다오를 찾아갔다.

하지만 첫걸음부터 문앞에서 거절을 당하였다.

열번, 스무번… 어디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접어들었지만 어림도 없었다.

성미가 불같은 사람이 어깨가 축 처져서 집으로 들어서는것을 측은하게 여겨보던 전순옥이 하루는 참다못해 말을 비치였다.

《백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지만 이번 일만은 성사될것 같지 않으니 손을 떼는게 어때요?》

《백번이고 천번이고 그놈이 손을 들 때까지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소.》

순옥은 어이가 없어 눈을 가볍게 흘기였다.

《당신은 정말 고집불통이예요.》

《여보, 다시는 그런 말로 마음을 흔들어놓지 마오. 내가 만일 손을 털고 주저앉으면 저세상에 간 차인석형님이 일어나 뺨을 칠거요.》

말이 없는 남편한테서 속이 뜨끔한 말을 들은 순옥은 자책감에 얼굴을 붉히였다.

경행은 끈질기게 그자를 찾아갔다.

아라끼는 서른번째만에야 문을 열어주었다.

교제과정에 아라끼는 리경행을 간단치 않은 일본사람으로 믿었던지 수만권에 달하는 장서를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드디여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경행은 며칠밤을 꼬박 새우면서 귀중한 자료들을 손에 넣었다.

그가운데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과 관련한 력사자료들과 일제의 조선침략 및 반일운동탄압에 대한 인쇄물들, 각종 문서들을 비롯하여 조선지하자원도, 압록강철교도면, 민족고전 등 귀중한 유물들이 200여건이나 들어있었다.

당시 수급전범자로 락인된 아라끼는 다른데 신경을 쓸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일제침략자들의 극악한 범죄행위를 반증하는 가치있는 자료들을 손에 넣게 된 경행의 기쁨은 이루 형언할수 없었다.

그는 만일의 경우를 예견하여 안해와 함께 가치있는 자료, 유물들을 윤성우의 집으로 조용히 옮겨놓았다.

윤성우로부터 그것을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리경행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날밤,

고이시 사부로의 전화신고를 받은 경찰에서는 야꾸자두목인 하지메를 호출하였다.

하지메가 서면으로 증언한 내용은 이러했다.

…나는 오구라 분지라는 일본이름을 가진 조선청년 리경행이 전 륙군대신이였던 아라끼 사다오를 만나기 위해 그의 저택으로 찾아가는것을 여러번 목격하였으며 그것이 수상하여 은밀히 주시하였습니다.

…아라끼의 승인을 받아 장서를 정리한 그자가 낡은 도서 두자동차분을 집으로 날라간것은 달포전이였습니다.

※ 그자가 조선문화재수집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필경 크게 노린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

경찰에서는 하지메를 구속하였다.

먹사마귀가 노린대로 그는 빠질 구멍이 없었던것이다.

며칠째 잠풍하던 날씨는 밤이 깊어갈수록 맵짠 추위를 몰아왔다.

아늑한 방에서 담배를 피우던 경행은 벽에 걸린 기러기떼를 형상한 그림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는 안해에게 물었다.

《자지 않고 무슨 생각을 하오?》

《잠이 오지 않는군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하늘을 나는 저 기러기떼를 보느라니 날개가 있어도 난 날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무슨 수수께끼같은 소리요?》

《알아맞춰봐요.》

안해는 동그란 얼굴에 볼우물을 파면서 남편을 바라본다.

경행은 자신이 없는지 벙글벙글 웃으며 머리를 기웃거렸다.

《모르겠는걸. 망짝을 지지 않은 다음에야 왜 날지 못한단 말이요?》

《그럼 혼자 날아가세요.》

《무슨 소릴, 기러기는 자기의 짝이 날지 못하면 혼자 날아가지 않소. 그런데 난 당신의 남편이란 말이요. 혼자 날아가다니…》

《호호…》

얼굴을 붉히며 무슨 말인가 할듯말듯 하던 순옥은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이였다.

《여보, 우리에게 새 식구가 생겼어요.》

《?!》

그제야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아차린 경행은 류다른 희열로 얼굴이 환해졌다.

《여보, 이왕이면 아들을 낳으라구.》

《그건 뜻대로 할수 없는거예요.》

《아들도 좋고 딸도 좋으니 어서 낳소. 허허…》

사뭇 마음이 즐거워진 경행은 오래간만에 기분이 좋아서 유쾌한 롱담까지 했다.

그는 더더욱 정이 가는 안해의 손을 따뜻이 감싸쥐였다.

사납게 불어치는 바람소리를 들으며 어렴풋이 잠이 들었던 경행은 문을 두들겨대는 소리에 눈을 떴다. 안해도 잠을 깼다.

《드디여 나타났군. 경찰놈들이요.》

《예?!》

문을 열고 나가니 세명의 경찰이 당장 덮칠 태세로 서 있었다.

상관인듯한 좁쌀눈이 체포령장을 내보였다.

《리경행씨, 당신은 체포됐소.》

《무슨 근거로 체포하는거요?》

《가보면 알게 될겁니다.》

놀라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안해에게 경행은 태연한 미소를 보냈다.

《걱정마오. 별일 없을테니.》

웃옷을 걸치면서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놈들이 집을 수색할거요. 잡아먹을것처럼 위협도 하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딱 잡아떼오. 그리고 성우형님을 절대 찾아가지 마오.》

《알겠어요.》

밖에서는 놈들이 빨리 나오라고 고아댔다.

경행은 안해를 와락 그러안았다.

순옥은 남편의 넓고 억센 가슴에 얼굴을 깊숙이 파묻고 가볍게 흐느꼈다.

《기다리겠어요.》

《몸조리를 잘하오.》

경행을 련행하는 경찰차는 얼어붙은 새벽공기를 흔들어놓으며 멀어져갔다.

경행은 낮에 밤을 이어 가혹한 심문을 받았다.

경찰측에서는 군부의 거물급이였던 아라끼의 저택에서 흘러나간 각종 자료들과 문서들, 문화재들을 찾아내려고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것이 아라끼의 서재에서 먼지를 쓰고있을 때는 별다른것이 없었지만 조선사람의 손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하나하나가 장차 죄많은 일제의 조선침략사를 단죄하는 력사적인 증거문건으로 되는것이다.

이렇게 놓고보면 놈들이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울수밖에 없는 중대사건이 아닐수 없었다.

리경행에 대한 조사가 끈질기게 계속되였다.

질문; 아라끼의 저택에 침입한 목적을 대라.

대답; 나는 강도나 절도범이 아니다. 나는 침입한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장서를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질문; 서재에 있던 비밀자료, 비밀문서, 유물들을 어디로 빼돌렸는가?

대답; 난 그런걸 본적이 없다.

질문; 두자동차나 실어가지 않았는가?

대답; 그것은 장서를 정리해준 감사의 표시로 아라끼에게서 받은 낡은 도서들이였다. 그걸 제지공장에 파지로 넘기고 구차한 살림에 보탬을 좀 하였을뿐이다.

제지공장에도 알아보고 아라끼에게도 확인해보면 알게 아닌가? 당신들은 처음부터 알고있었다는데 왜 립회하지 않았는가?

질문; 질문할 권리는 나에게만 있다. 대답만 하라.

대답; 나는 그이상 대답할게 없다.

…

1946년 5월 3일부터 1948년 11월 22일까지 도꾜에서는 군국주의일본의 중요전범자들을 처벌하는 국제군사재판이 진행되였다.

이것이 력사에 널리 알려진 도꾜군사재판(정식명칭 극동군사재판)이다.

재판끝에 내려진 판결에 의해 악명높은 군국주의괴수 도죠 히데끼 등 7명에게는 교수형, 16명에게는 종신금고형 그리고 2명에게는 각각 20년금고형과 7년금고형이 언도되였다.

조선인민과 인류앞에 씻을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일본전범자들에 대한 판결이 이정도로 가볍게 막을 내린것은 일본군국주의의 재생과 재무장화를 노린 미제의 교활하고 음흉한 침략책동의 산물이였다.

전 일본륙군대신이였던 아라끼도 인류앞에 무서운 재난을 들씌운 수급전범자로서 응당한 징벌을 받았다.

리경행은 배심이 든든하였다.

제때에 손을 쓰길 얼마나 잘했는가.

이제는 모든것이 그에게 달려있었다.

놈들은 그에게서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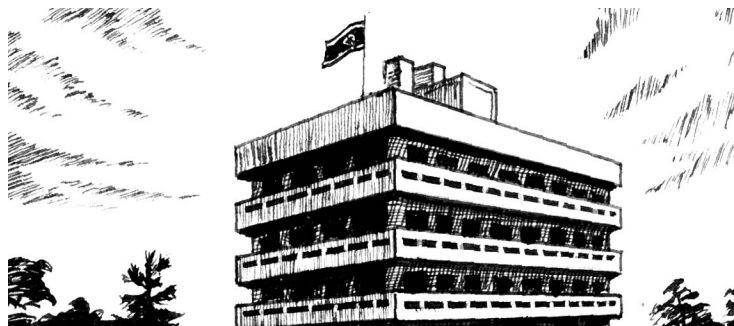
그의 집도 수색하고 보이지 않는 그물을 쳐놓고 전순옥의 뒤도 밟아보았으나 증거를 쥘수 없었다.

헛물을 켠 놈들은 악에 받친 나머지 리경행에게 밀선을 리용하여 일본땅에 발을 들여놓은 《불법입국자》, 일본사람의 이름을 악용한 《리력기만자》, 문화재수집을 걸고 일본사람들을 모욕하고 협박한 《인권침해자》 등 별의별 죄를 과장날조하여 징역형을 언도하였다.

그에게 가해진 형벌은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민족차별과 적대시정책이 얼마나 비렬한가를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라고 해야 할것이다.

경행은 두터운 담벽으로 둘러막힌 형무소감방으로 옮겨졌다.

어둡고 고약한 냄새가 풍기는 감방벽 한쪽에 나있는 손바닥만한 쇠살창문으로 내다보이는 밖에서는 칼바람이 태질을 하고있었다.

두텁게 얼어붙은 얼음장밑에서도 흐름을 멈추지 않는 강물처럼 조국을 안고사는 리경행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래일은 새날이 시작된다

감방복도를 급히 걸어오는 간수의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감방문이 열리고 신경질이 몸에 밴 간수가 결핵환자처럼 여윈 얼굴을 들이밀었다. 놈의 표독스러운 눈길이 경행에게 날아들었다.

《927번 나오라! 이송이다.》

천천히 몸을 일으킨 경행은 불안한 표정으로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눈인사를 보내고나서 감방문턱을 넘어섰다.

밖에는 철함같은 호송차가 기다리고있었다.

시즈오까형무소에 억류되여있던 경행은 다른 형무소로 이송되여가는 차안에서 조선전쟁이 일어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알게 되였다.

미제가 조선전쟁을 도발하자 일본반동들은 전쟁참가

를 《정부방침》으로 규정하고 《유엔군을 협력한다.》는 구실밑에 수많은 무력을 조선전선에 들이미는것과 함께 일본 전령토를 미제침략군의 병참기지, 보급기지, 수리기지, 출동기지로 제공하였다.

요시다반동정부는 미제의 지시에 따라 조선전쟁의 첫 시기에 구일본군 장령들과 장교 200명을 조선에 파견한데 이어 4 000여명의 《황군》출신 장병놈들을 모집하여 일본에 있는 미군특수훈련소들에서 훈련시킨 다음 미제24사단과 미제1기병사단에 배속시켜 조선전선에 들이밀었다.

일본반동들은 수많은 군사인원을 《재일조선인부대》, 《의용군》 등으로 가장시켜 조선전선에 파견하였으며 1951년 2월까지만 해도 무려 14만명이상에 달하는 일본인을 징집하였다.

일본은 미제의 지령에 따라 지상군뿐아니라 공군, 해군, 기술인원들도 조선전선에 수많이 파견하였다.

그무렵 형무소당국은 조선놈들은 어디서나 뭉치기를 잘하는 위험한 세력이라고 하면서 조선청년들을 일본땅에 널려있는 여러 형무소들에 갈라놓는 놀음을 벌리였다. 놀라운것은 형무소에 조선청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였다.

리경행이 이송되여간 형무소에만도 수감자 700여명중 150여명이 조선청년들이였다.

이것은 일본의 인구수와 재일조선인 인구수를 대비해볼 때 실로 놀랍고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었다.

이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일본반동정부가 조선사람들을 얼마나 차별하고 혹심한 생활난에 몰아넣고있는가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다.

대낮에도 굴속같이 컴컴한 감방안은 한증탕같이 무더웠다.

더러워질대로 더러워진 마루짝에는 빈대와 벼룩이 새까맣게 배겨있었다. 그것들은 낮이고 밤이고 가림없이 기여나와 사람들을 물어뜯었다.

두터운 담벽으로 둘러막힌 형무소는 인간세계와 완전히 담을 쌓고있었다.

고독하고 숨막히는 옥중생활에서 제일 기다려지는것은 그리운 혈육들의 모습과 바깥소식이다.

물론 형무소에 정해진 면회날자가 있다.

하지만 인정사정없는 간수가 지켜보는 속에서 철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서는 면회시간은 너무도 짧았다.

갓 태여난 아들애를 업고 기차를 갈아타면서 먼길을 찾아온 안해에게 경행은 말하였다.

《이제부터는 고생스러운 걸음을 하지 말고 편지를 하오. 나는 당신이 적어보내는 글줄을 더듬으면서 당신의 얼굴도 보고 다정한 목소리도 들을수 있소. 출옥할 때까지 내가 하던 일을 당신이 맡아주오.》

순옥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다잡으면서 선선히 대답했다.

《꼭 그렇게 하겠어요.》

그때부터 경행은 안해의 편지를 기다리군 했다.

편지를 받는 날은 명절처럼 마음이 즐거웠다.

그는 보풀이 일도록 편지를 들여다보군 하였다.

…여보, 당신이 지어보낸 리영성이란 아들의 이름이 내 마음에도 꼭 들어요.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겠

어요.

…어제 성우아저씨가 손수레에 땔감과 얼마간의 식량을 구해가지고 찾아와서 답답하던 가슴이 활 열리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조선전쟁을 일으킨 미국놈들이 전전선에서 연방 두들겨맞고있다는 통쾌한 소식이였어요.

지금 일본당국이 제공한 아까다기지의 미군야전병원으로는 인민군대의 불벼락에 만신창이 된 시체들과 부상자들이 수송기에 실려 무더기로 들이닥친다고 합니다.

악취풍기는 시체에서는 구데기가 와글거리고 성한 곳이 없이 터지고 찢기고 부러진 부상자들이 울부짖는 울음소리, 비명소리, 아우성소리에 거기에 동원된 일본간호부들은 모두 미칠지경이라고 합니다.

쓸개빠진 일본당국은 간호부동원도 모자라는지 죽어가는 미국놈들을 위한 헌혈과 모금운동이라는것까지 전국적범위에서 벌려놓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인민군부대들에 미제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타격소멸함으로써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윤성우아저씨는 자신있게 말씀하셨어요.

《경행동무에게 전하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조선인민은 이긴 전쟁을 하고있다고 말이요.》

…순옥이,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감격적인 소식을 받아든 나는 온밤 잠을 이룰수 없었소.

장기징역형을 언도받았을 때에도 놀라지 않았지만 청소한 우리 공화국에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

력이 덤벼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눈앞이 아찔하고 속이 떨리였댔소. 화가 치밀어서 밥그릇까지 집어던졌으니까. … 벙어리처럼 말도 안하고 말이요.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이 부족했기때문이요.

하지만 이젠 배심이 든든하오.

일본반동놈들까지 미제와 한짝이 되여 아무리 날쳐보아라. 우리 인민은 반드시 이긴다!

손바닥만한 철창으로 비껴드는 한줄기의 아침해살을 받으며 나는 승리한 조국의 위대한 모습을 보았소.

아, 작은 구멍으로 보아도 해빛은 눈부시였소!

…영성이 아버지, 나도 보람찬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문화재수집사업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한 당신의 당부를 명심하고 한달나마 먼길을 걸었어요.

더러 굶기도 하고 비내리는 밤에 남의 집 처마밑에서 어린것을 꼭 부둥켜안고 잠들었다가 지나가던 동포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답니다.

낯선 고장에서 고약한 쪽발이들의 수모도 받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모래불에서 금싸래기 찾듯 애쓴 보람이 있어 간또지방에서 고려시기의 화금자기 한점을 수집하였어요.

그리고 16세기 학자 리률곡의 자필원고의 출처를 알게 되였어요. 곧 찾아 떠나겠어요.

…멀지 않아 사나운 추위가 들이닥칠거예요.

당신이 앓아누울가봐 마음이 놓이지 않는군요.

부디 건강하세요.

…순옥이, 정말 고맙소. 장한 길을 꿋꿋이 걷고있는 당신에게 절이라도 하고싶소.

지금 감방벽에는 성에가 하얗게 끼고 혹심한 추위는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의 의지를 위협하고있소.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형집행정지로 출옥해볼가 하여 미쳐버린 정신병자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사람도 있소.

나는 얼마전에 독감에 걸려 며칠동안 고통을 겪었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소.

나의 건강법은 별게 아니요. 아기주먹만한 감옥밥이라도 입맛이 있건없건 끼니를 번지지 않고 잘 씹어넘기는 것이요.

그런데 늘 허기증에 시달리는 수감자들은 국은 국대로 밥은 밥대로 들이밀어주는 족족 삼켜버리군 하오.

위에 이발이 없다는것을 모르는지 그저 목구멍으로 넘겨뜨리면 뒤처리는 위가 다 한다는 식으로 속단하고있소.

그런 사람들은 영낙없이 위병에 걸리게 되고 나중에는 페인이 되고마오.

미리 말해두지만 당신도 변변치 못한 끼니라도 번지는 일이 없도록 하오.

보다 중요한 건강법은 기어이 살아서 있는 힘껏 우리 민족의 문화재와 력사유물을 찾아가지고 승리한 조국으로 가야 한다는 굳은 신념을 간직하는것이요.

…이 형무소로 이송된지도 어느덧 2년이 가까와오고 있소.

사흘전에 나는 형무소 간수장놈에게 불리워갔댔소.

그놈으로 말하면 간또대지진때 조선인대학살에 피눈이 되여 미쳐날뛰면서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일본도로 어린애들의 목을 자르고 그것도 성차지 않아 임신부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끄집어내여 짓밟아 죽인 살인마요.

좁은 이마밑에 살기띤 눈알이 박힌 그놈은 지껄여댔소.

《무죄를 주장한 네놈의 세번째 상소도 기각되였다. 그리 알고 감방안에서 소동을 벌리지 말아.

여긴 사상이 불순한 너같은 조선놈들의 마지막거주지란 말이야!》

《과시 피에 절은 간수장다운 수작이요. 별로 놀랍지 않소.》

《누구앞에서 감히 훈시질인가. 나쁜 놈의 자식!》

《여보시오. 이런 마지막거주지에 거주할 사람은 바로 당신같은 살인자들이요.》 했더니 악에 받쳐 펄펄 뛰더군.

나의 의지를 꺾어보려고 기승을 부리지만 어림도 없소.

한밤중이면 멀리서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군 하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면 달밝은 밤에 마당 한가운데 모기쑥을 피워놓고 아홉남매가 빙 둘러앉아 아버지의 옛이야기를 듣던 고향의 밤이 그리워지고 강을 따라 가고가느라면 꼭 바다를 보게 될거라고 하던 당신의 정겨운 목소리도 귀전을 두드리오.

당신이 그립고 아들의 모습이 그립소.

…

봄기운이 느껴지는 어느날 아침이였다.

푸근한 하늘에서 소리없이 떨어지는 성근 눈송이를 맞으며 경행은 형무소철문을 나섰다.

(사나운 겨울은 가고 마지막눈송이가 떨어지는구나.)

형무소측에서는 그가 형기를 마치고 출옥한다는것을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아 맞아주는 사람도 없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음산한 하늘을 올려다보던 경행은 지나가던 동포청년이 권하는 담배를 받아들었다.

여러해 입에 대보지 못해서 담배생각이 그닥 간절한것은 아니였지만 한대 붙여물었다.

그것은 그렇게도 고대하던 출옥의 기쁨에서 오는 흥분된 심정에서였다.

담배연기를 날리며 저주로운 형무소를 바라보던 경행은 뜻밖에도 그안에서 터벅터벅 걸어나오는 간수장놈을 보았다.

출옥한 리경행과 맞다들린 그놈은 제딴에도 상대를 마주보기가 멋적었던지 주걱턱을 슬그머니 돌렸다.

경행은 서리맞은 뱀처럼 기가 죽은 그놈에게 한마디 던졌다.

《이렇게 만나니 이놈의 형무소가 나의 마지막거주지라고 을러메던 간수장님의 말이 생각나는군요.》

문득 굳어진 그놈은 탁 풀어진 눈을 아래로 떨구며 김빠진 소리로 웅얼거렸다.

《숨길것도 없지. 난… 철직되였소. …》

후에 안 일이지만 피에 절은 살인자를 형무소 간수장자리에 올려앉혔다는 비난의 목소리에 민심이 소란스럽게 번져지자 놈들은 이 늙다리를 철직시키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경행이가 집에 도착한것은 어둠이 내려앉은 늦은저녁이였다.

널판자로 울타리를 두른 좁은 마당안에 들어서니 불

빛이 흘러나오는 집안에서 여럿이 웅성거리는 말소리가 들린다.

혹시 집을 삭갈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때 방문이 열리였다.

먼저 문턱을 넘어서던 사나이가 마당에 서있는 리경행을 알아보고 환성을 올렸다.

《아니, 이게 누군가!》

방안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을 등진 사나이가 맨발로 뛰쳐와 두어깨를 와락 붙안는다.

《이 친구야, 날세, 나야!》

《엉?! 석근이!》

《경행이!》

《살았구만. 반갑네.》

그들은 다시한번 뜨겁게 포옹하였다.

성격이 좋은 석근은 마치 자기가 경행이를 모시고오기라도 한듯 청높은 목소리를 내질렀다.

《자— 여기 누가 왔나 보우!》

그들의 상봉을 지켜보던 성우가 얼굴에 웃음을 가득 담고 경행의 손을 덥석 잡는다.

《왔구만.》

《보고싶었습니다.》

《형무소에 알아보니 곧 출옥할거라고 해서 밤차로 떠나려던 참이였소.》

그립던 남편의 얼굴을 지켜보며 볼우물을 파는 순옥의 두볼로 눈물방울이 주르르 굴러내리고있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이야 당신이 했지.》

정작 마주서니 다른 말이 나오지 않는다.

경행은 안해의 등에 업힌 어린 아들을 닁큼 안아올렸다.

《어디 우리 영성이 한번 안아보자.》

어린것은 낯가림도 하지 않고 고사리같은 손을 내흔들며 방싯방싯 웃는다.

입을 하 벌리고 그 광경을 바라보던 석근이가 고개를 젖히며 껄껄 웃는다.

《놀랍군. 〈네가 리경행의 아들이구나.〉 하면서 내가 안아줄 땐 덴겁을 해서 울어대더니 나보다 무뚝뚝한 제 아버지한테 안겨선 방끗방끗 웃는구만. 하하…》

그의 익살에 모두 즐겁게 웃었다.

이윽하여 그들은 음식상에 둘러앉았다.

순옥은 남편앞에 두부음식을 놓아주었다.

두부가 옥고를 푼다는것이였다.

성우는 술을 돌려부은 순옥의 손에서 술병을 달래서 그의 잔에도 부었다.

《오늘은 기쁜 날인데 함께 듭시다.》

그들은 즐거운 기분으로 잔을 비우고나서 우석근의 이야기를 들었다.

…

밀선에서 내려 뭍에 올라서자마자 해안을 순찰하던 경찰의 추격에 든 아슬아슬한 그밤에 간신히 추격에서 벗어난 석근은 날이 샐무렵에 어느 시내로 스며들었다.

그의 머리속에는 한시바삐 멀리로 자취를 감추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였다.

때마침 자그마한 술집앞에 서있는 풍을 친 짐차가 눈에 띄였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

주위를 살피며 차에 기여오른 그는 풍을 들치고 짐짝틈에 배기였다.

얼마 안있어 발동을 건 자동차는 시내를 벗어나 둬시간 남짓이 달렸다.

기세좋게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멈춰섰다.

가만히 풍을 들치고 내다보니 차를 단속한것은 마주오던 경찰차였다.

말린 명태처럼 바짝 마른 경찰이 운전사에게 물었다.

《수상한 사람을 태우지 않았는가?》

《그런 사람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차를 수색해야겠다.》

《좋을대로 하구려.》

그 말을 듣는 순간 석근은 숨이 꺽 막혔다.

(잡혔구나!)

가까와지던 발자국소리가 멎더니 경찰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운전사, 술 마셨는가?》

《예, 식사전에 소주를 한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면 벌금을 내라.》

《먹자는 귀신은 먹이랬는데 내라면 내야지요.》

벌금을 받아낸 경찰이 돌아서자 자동차는 부르릉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싹 긴장했던 석근의 몸은 땀에 푹 젖었다.

(개놈들, 사방에 수사망을 펼쳤구나.)

불안스러웠다. 순간도 마음을 놓을수 없었다.

자동차는 경사가 급한 고개길을 힘겹게 기여오르고있었다.

차에서 내린 석근은 수풀속으로 종적을 감추었다.

《…그후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다가 이 성우형님을 만나게 되였고 경행의 소식도 알게 되였네.

내가 찾아헤매던 동생은 8.15전에 죽음의 고역장이였던 히라오까언제공사장에서 콩크리트혼합물에 묻히여 잘못되였더군.

생각할수록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 이야길 하자면 끝이 없을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윤성우는 좌중을 둘러보고나서 의미심장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기쁜 소식을 말하겠소.

이역의 어두운 하늘아래서 고생속에 모대기던 우리 동포들의 앞길에 희망찬 앞날이 펼쳐졌습니다.》

《?!》

세사람은 놀라움과 의혹이 가득 실린 눈으로 윤성우를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희열이 넘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조국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 동포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재일조선인운동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소.》

《**김일성**장군님께서요?!…》

너무도 희한한 뜻밖의 소식이여서 모두의 놀라움은 컸다.

이루 형언할수 없는 격정에 휩싸인 경행은 목이 꺽 메여올랐다.

윤성우는 말을 이었다.

《전쟁의 준엄한 환경속에서도 재일조선인운동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일조선인운동이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족적애국운동으로 되여야 한다는 현명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소.》

앞이 탁 트이는 가르치심을 받아안게 된 그들은 일시에 《야!―》 하고 환성을 터쳤다.

경행은 안해의 손을 잡아흔들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족적애국운동!…

이 길만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르는 길이고 조국을 빛내이는 길이요. 여보, 우리 일을 더 잘합시다.

조국이 바라는 사람, 조국이 기다리는 사람이 되잔 말이요!》

《그럽시다.》

순옥은 손수건으로 눈굽을 찍으며 방안이 환해지도록 밝게 웃는다.

의협심이 강한 석근의 심정도 마찬가지였다.

《이 석근이도 민족의 재보를 찾는 일을 힘껏 돕겠네.》

《고맙네.》

얼마나 좋은 밤인가.

어느덧 멀리서 새벽닭이 울어대는 소리가 이른새벽의 대기를 흔들어놓으며 새날의 시작을 알리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재일조선동포들의 의사와 리익을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가 결성되였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참다운 해외교포조직을 가지게 된 재일조선인운동은 새로운 전환의 길에 들어서

게 되였다.

주체조국의 해외공민으로서의 당당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문화재수집사업을 벌려나갈수 있게 된 리경행부부는 기쁨중의 기쁨, 사변중의 사변을 받아안은것이다.

뜻깊은 그날 경행은 안해의 손에 《해방신문》(《조선신보》의 전신)을 쥐여주며 말했다.

《여보, 큰소리로 읽소.》

《아이참, 아까부터 두번세번 보시지 않았어요.》

《그래두 크게 한번 더 읽으라니까.》

《호호… 그럼 귀를 벌리고 잘 들으세요.》

전순옥은 신문을 펼쳐들고 대서특필한 기사를 소리내여 읽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는 드디여 해살도 한결 눈부시여 신록이 춤추는 5월 25일 름름히 새 출발을 했다.

우리들은 이제야 진실로 전체 조선인민들이 걸어가는 승리에 찬 거창한 총로선우에 확고부동하게 올라서게 되였다.

…이것은 오로지 영명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모신 우리들만이 능히 달성할수 있는 자랑이며 또하나의 승리이다.

…우리는 이날을 얼마나 고대하고 주목했던가!…》

깊은 감회속에 안해의 랑랑한 목소리를 듣고있던 경행은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감격스러운 오늘을 맞고보니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아서 당신더러 한번 더 읽으라고 했소.

산골짜기의 시내물처럼 흘러가던 우리는 드디여 대하가 되여 넓고넓은 바다의 품에 안기였소.》

《어쩌면… 나도 그 말을 하고싶었어요.》

얼굴에 웃음을 함뿍 담은 순옥은 쌔근쌔근 단잠을 자는 충성이(몇달전에 태여난 둘째아들)의 두볼을 다독이며 정겨운 목소리로 속삭이였다.

《우리 귀염둥이야, 잠만 자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소리내여 웃기라도 하려무나.

우리의 조국은 은혜로운 장군님의 품이란다.》

새날을 맞이한 그때로부터 리경행과 전순옥은 총련조직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속에 문화재수집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갔다.

먼길을 걸어도 힘든줄을 몰랐다.

어디를 가도 동포들이 있는 곳에는 총련조직이 있었고 자기 일처럼 그들의 문화재수집사업을 도와나섰다.

벅차게 흘러가는 나날속에 그들부부는 왜놈들의 손에 들어갔던 리률곡, 김옥균의 필적을 비롯하여 다양한 품종에 각이한 모양의 자기류와 금속공예품, 민족고전, 의학서적 등 적지 않은 문화재를 수집할수 있었다.

대 결

어느덧 단풍이 붉게 타던 계절이 바뀌여 날씨는 추워졌다.

짧은 겨울해가 서둘러 산너머로 기울어지고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다.

두달만에 집으로 돌아온 경행은 밤이 이슥하여 마당에 들어섰다.

집안에서 안해가 부르는 노래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온다.

안해의 노래를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는 그로서는 놀랍기도 하고 희한하기까지 했다.

리경행은 느슨한 웃음을 머금고 토방에 걸터앉았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계수나무 한그루 토끼 한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나라로
…

노래가 끝나자 짜락짜락하는 박수소리에 이어 《엄마, 햐얀 쪽배가 왜 서쪽나라로 가나?》 하는 큰아이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 일본땅에서 바다건너 멀리 서쪽에 우리 나라가 있단다. 우리 조선은 산좋고 물맑은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란다.

멀지 않아 아버지랑 엄마랑 우리모두가 산같이 큰 배를 타고 그리운 조국—아버지장군님의 품으로 간단다.》

《야!—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

아이들은 너무 좋아 환성을 올린다.

총련이 결성된 후 일본에서는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실현을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화국창건 10주년기념 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해외공민들이 조국으로 돌아오는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민족적권리이며 그들이 조국에 돌아와 생활할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보장하여주는 것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의무라고 하시면서 재일동포들의 귀국실현을 위한 투쟁을 크게 고무하여주시였다.

시대의 벅찬 흐름을 타고 안해와 아이들의 마음은 벌써 그리운 조국으로 달리고있었다.

《얘들아, 잘들 있었냐?》

벙글벙글 웃으며 들어서는 아버지를 보자 아이들은 승벽내기로 휘감겨돌아간다.

《아버지, 엄마 노래불렀다.》

《그래, 아버지만 못들었구나. 허허…》

순옥은 남편의 어깨에서 배낭을 벗기였다.

《오셨군요. 객지에서 고생 많았겠어요.》

그동안 경행은 우석근이와 함께 눈이 많이 내리는 혼슈서북부와 혹가이도일대를 편답하면서 문화재수집에 시간을 바쳤다.

《고생은 좀 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그놈을 찾았소.》

《그놈이라니요?》

《먹사마귀, 고이시 사부로놈 말이요.》

《그래요?》

《등잔밑이 어둡다고 멀지 않은 곳에 박혀있었더군.》

경행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이 기차에서 내린것은 어슬어슬한 저녁이였다.

석근은 역에서 얼마간 떨어진 조용한 맥주집으로 경행을 이끌었다.

《들어가 한고뿌 하자구.》

《그럽세.》

그들은 조용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속이 클클하던김에 시원한 맥주를 들이킨 경행은 명태쪼박을 씹으면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옆의 식탁에 나란히 붙어앉은 녀인들에게 눈길이 닿았다.

그중 한 녀인의 낯이 익었던것이다.

(내가 저 녀자를 어디서 봤던가?…)

생각이 날듯 하면서도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

그의 거동을 여겨보던 석근이가 한눈을 찡긋하며 롱을 걸었다.

《뭘 보나, 딴눈을 파는건 좋지 않아.》
경행은 손가락을 입술에 곧두세웠다.
그제야 심상치 않은 기미를 느낀 석근은 녀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두 녀인의 얼굴에는 심각한 빛이 어려있었다.
나이가 좀 들어보이는 녀인이 말하고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강도는 여전히 강도로 남아있는거예요.
나를 차던진 그놈은 당신도 진창속에 처박을거예요. 하루꼬, 내가 당신을 만나자고 한것은 나처럼 되여서는 안된다는걸 깨우쳐주고싶어서예요.》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면서 듣고있는 하루꼬의 두볼로 눈물방울이 흘러내렸다.
그 녀자는 눈물에 젖어 축축한 눈을 들었다.
《고마워요. 고유끼, 언니는 한숨과 절망속에 모대기던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주었어요.
피묻은 손으로 남을 등쳐먹는데 이골이 난 고이시놈의 손아귀에서 일생을 망치고싶지 않아요. 기회를 타서 그놈의 집에서 뛰쳐나오겠어요.》
《그래야 해요. 사람은 돈이나 재물, 권세가 아니라 마음을 따라야 하는거예요.》
경행은 낯익은 녀인이 고이시 사부로에게서 버림을 받은 고유끼라는것을 알아볼수 있었다.
사꾸라차집의 접대부였던 고유끼는 세번째로 먹사마귀에게 걸려든 하루꼬라는 불행한 녀자에게 더러운 인간의 롱락물이 되여서는 안된다는것을 절절히 호소하고있었다.
자본주의사회가 강요한 기구한 운명의 길에서 불행을 강

요당한 두 녀인은 얼마간 가벼워진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석근은 높뛰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놀랍구만. 10년나마 찾던 먹사마귀의 꼬리를 여기서 잡다니… 이거야말로 막 던진 돌이 굴뚝에 들어간 셈일세.》

《이건 막 던진 돌이 굴뚝에 들어간것과 같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일세. 그건 그렇고 하루꼬의 뒤를 밟자구.》

그들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고유끼와 헤여진 하루꼬는 걷잡을새없이 솟구치는 눈물을 연신 훔치면서 맥없이 걸어가고있었다.

다른 또하나의 소름끼치는 골치거리가 그 녀자를 괴롭히고있었다.

며칠전이였다.

길목을 지키고있던 하지메가 하루꼬의 앞을 막아서서 빈정거렸다.

《그새 퍽 예뻐졌는걸. 집에 아직 고려청자기가 있는가요?》

《있더군요. 그건 왜 묻는가요?》

《그 물건은 욕심을 낼만큼 값이 나가는거요. 하루꼬아가씬 그 물건때문에 큰 화를 당할거요.》

《무슨 끔찍한 말을…》

하지메는 손가락마디를 딱딱 꺾으면서 그냥 주절거렸다.

《감옥에 들어갔던 그 보물의 주인인 조선사람이 고이시상을 추적하고있는데 불원간 덮쳐들거요. 만만치 않은 적수니까.

그가 먹구렝이같은 고이시의 덜미를 잡는 날이자 값

진 고려청자기를 주인에게 떼우는 날이고 하루꼬는 과부가 되는 날이란 말이요.》

불량배는 험한 수작을 웃으면서 엮어댔다.

아직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기생집출입이나 하는 추물인 하지메는 울적한 기분에 사로잡힌 그 녀자의 손목을 잡는것으로 본성을 드러냈다.

《내 말을 듣소. 고려청자기를 가지고 나와 함께 남쪽지방 미야자끼로 가자구. 내 하루꼬가 바라는 멋들어진 남편이 되여주지. 어드래?》

《이걸 놔요!》

《대답을 해. 두사람이 바라는건 실패하지 않는단 말이야.》

《듣기 싫어요!》

하지메가 아무리 달콤한 넉두리를 늘어놓아도 하루꼬는 그가 고이시보다 별로 나은데가 없는 쓰레기같은 인간이라는것쯤은 알고있었다.

바라던 대답을 받아내지 못한 하지메는 위협조로 못을 쳤다.

《두고보자. 흥, 달리는 될수 없을게다.》

구역질나는 집, 하지메의 협박…

하루꼬는 사람같지 않은것들의 롱락물이 되여버린 자신이 협오스러워 막 죽고싶은 심정이였다.

담쟁이덩굴이 뒤엉킨 대문앞에 이른 그 녀자는 짐승의 소굴앞에 선것처럼 바재이다가 문을 두드렸다.

리경행과 우석근은 어두운 벽체뒤에 몸을 숨기고 그 녀자를 지켜보았다.

대문은 몇번 더 두드려서야 열렸다.

독기가 서린 얼굴을 내민 먹사마귀는 하루꼬의 얼굴에 역한 술냄새를 들씌웠다.

《바람난 화냥년처럼 밤늦게 어딜 싸다니다가 인제야 나타났어. 내 오늘 네년의 그 알량한 버릇을 뚝 떼줄테다.》

겁에 질린 그 녀자를 탁 덮쳐 안으로 떠박지른 먹사마귀는 대문을 후려닫았다.

눈앞에서 얼른거리는 그놈을 본 석근은 당장 일을 칠 심산으로 펄펄뛰였다.

《이 구석에 처박혀있었구나. 어디 내 손에 죽어봐라.》

《덤비지 말게. 오늘은 그냥 가세.》

《그냥 가다니?》

경행은 웃었다.

《놈의 집을 안 이상 뭐가 그리 급해서 코밑이 더부룩한 꼴을 하고 마주설텐가. 공화국공민의 자격으로 환한 대낮에 당당하게 결판을 짓자구.》

《하긴 그렇군.》

래일 다시 만날것을 약속한 그들은 거뜬한 기분으로 헤여졌다. …

순옥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다.

《세상은 넓어도 그런 놈이 숨어있을 자리는 없군요.》

《죄는 지은대로 가기마련이지.》

《여보, 래일 나도 함께 가겠어요.》

《갑시다. 생각같아서는 그놈을 우리 고향집뜨락에 꿇어앉히고싶소. 아버지의 속이 후련하게 말이요.》

이때였다.

다급한 발자국소리가 가까와지더니 방문이 벌컥 열렸다.

석근이였다.

《빨리 나오게. 어서!》

경행은 밖으로 뛰쳐나갔다.

순옥은 속이 떨리고 심장이 활랑거렸다.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터졌구나.)

바삐 걸으며 석근은 사연을 말해주었다.

…래일 다시 만나기로 하고 경행이와 헤여진 석근은 얼마간 걷다가 이상한 예감이 들어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방금 경행이와 마주섰던 옆집 모서리에서 웬 그림자가 얼씬했다.

불길한 예감이 갈마들었다.

(어떤 놈이 우리뒤를 밟았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계획을 엿들었을수도 있지 않는가.)

경행이네 꼬리를 문것은 하지메였다.

놈은 맥주집앞에서 고유끼와 마주앉은 하루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있다가 그 녀자의 뒤를 따르는 경행이와 석근이를 발견하고 뒤를 밟았던것이다.

두사람이 하루꼬가 들어간 집을 확인하고 헤여지자 어둠속에서 나타난 하지메가 석근의 눈에 들었던것이다.

석근은 전주대뒤에 붙어섰다.

잠시 서성거리던 사나이는 발길을 돌리였다.

석근이가 붙어선 전주대옆을 지나친 작달막한 사나이는 큰길쪽으로 반달음을 놓았다.

술집앞에 이른 난쟁이는 키가 꺽두룩한 동료를 불러내더니 이마를 맞대고 수군거렸다.

(저놈들이 선손을 쓰자는게 아니야?)

아니나다를가 두놈은 먹사마귀네 집으로 향하였다.

이리하여 한달음에 달려와 경행이를 불러낸 석근이였다.

이래저래 속이 뒤틀린 고이시는 초저녁에 말없이 나갔다가 밤이 이슥하여 나타난 하루꼬를 무섭게 닦아세웠다.

《솔직히 말해. 어딜 갔더랬지?》

《밖에 잠간 나갔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댔다지 않아요.》

먹사마귀가 휘두르는 지팽이가 하루꼬의 어깨를 내리쳤다.

《앗!》

《그 아는 사람은 네년을 꼬여낸 똥개같은 하지메, 그 개자식이지? 지금 네년의 낯짝엔 술기운이 돌고있어. 네년도 그 똥개도 다 죽여버리고말테다!》

아픔을 참으며 쏘아보는 그 녀자의 눈에 비낀것은 사람이 아니라 악취풍기는 오물을 들쓴 미친개였다.

《쏘아보면 어쩔테냐. 골동품 한개값만도 못한 갈보년아!》

분별을 잃은 먹사마귀는 그 녀자의 머리끄뎅이를 거머쥐고 마루밑에 내동댕이쳤다.

언땅에 태질을 당한 하루꼬는 이를 사려물고 몸을 일으켜세웠다.

살이 끔찍하게 갈라진 이마에서는 선지피가 흘렀다.

《쌍년, 죽고싶지 않거든 무릎을 꿇고 빌라!》

《개만도 못한 놈아, 난 인간답게 살고싶다!》

마루우에 뻗치고 선 놈에게 찬서리가 날리는 목소리

로 내쏜 그 녀자는 홱 돌아섰다.

《이년아, 서라!》

그 녀자는 대문을 활 열어젖힌채 밖으로 사라졌다.

기를 못펴고 설설기던 계집에게 버림을 받은 먹사마귀는 독한 술을 목구멍에 쏟아부었다.

망할 년, 죽일 년… 혀가 돌아가는대로 악담을 퍼붓던 놈은 술상에 코를 박았다.

사위는 쥐죽은듯 고요했다.

아무일도 없었던듯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고있었다.

이때 대문이 슬며시 열리더니 두 사나이가 바람처럼 새여들었다.

체통이 다부진 난쟁이와 키가 껑충한 놈인데 둘 다 복면을 했다.

신을 신은채 집안에 들어선 그들은 침을 흘리며 곤드라진 고이시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난쟁이가 그놈의 주머니를 뒤지며 열쇠를 찾기 시작했다.

이상한 감촉을 느낀 먹사마귀가 펄쩍 놀라며 얼굴을 쳐들었다.

《누구야!》

순간 키다리의 구두발이 그의 동가슴을 걷어찼다.

《악!》

비명을 지르며 방바닥에 한고패 딩군 먹사마귀는 시꺼먼 천으로 복면을 한 두 사나이를 보는 순간 머리칼이 곤두섰다.

우직스럽게 생긴 놈이 날이 선 칼끝을 고이시의 턱밑에 들이댔다.

《고려청자길 내놔!》

먹사마귀는 급한 대목에서도 머리를 쓸줄 알았다.

《한발 늦었소. 집을 뛰쳐나간 계집년이 그걸 가지고 달아났소.》

이번에는 난쟁이의 주먹이 코등을 들이쳤다.

두놈이 사정없이 내리찍는 발길질에 입술이 터지고 눈잔등이 부어올랐다.

《그년에겐 빈주먹밖에 없었다. 열쇠를 내놔!》

강도들의 솜씨를 알고있는 먹사마귀는 눈앞이 아찔했다. 다른 출로는 없었다.

《어서 내놔!》

키다리가 꽥 소리쳤다.

고이시는 한번도 제몸에서 떼놓은적이 없는 보물함 열쇠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괴춤에서 떼내여 방바닥에 내던졌다.

허리를 굽힌 난쟁이가 열쇠에 손을 뻗치는 순간 찬바람을 일구며 두사람이 쑥 들어섰다.

《엉?!…》

피가 질벅한 입을 쩍 벌린 고이시 사부로는 괴상한 신음소리를 내질렀다.

눈에 불이 달린 리경행과 우석근을 알아보았던것이다.

열쇠를 집으려던 난쟁이도 눈알이 뒤집혔는지 흰자위만 보였다.

키다리의 어깨우에서 칼날이 번뜩했다.

석근이가 날아드는 칼날을 슬쩍 피하면서 팔굽으로 놈의 등허리를 내리쳤다. 허우대가 큰 키다리는 방바닥에 코를 박으며 뻐드러졌다.

경행은 난쟁이의 얼굴에서 복면을 나꿔챘다.

검은 천이 쭉 찢어지면서 하지메의 낯짝이 드러났다.

《알만한 놈이군. 날강도의 집에 좀도적이 코를 들이밀었구나.》

자기를 개치듯한 놈팽이가 하지메라는것을 안 먹사마귀가 손에 잡히는대로 재털이를 집어던졌다.

《개자식!》

재털이는 하지메의 이마를 때렸다.

《악!》

이마를 덮쳐쥔 손가락짬으로 피가 흘렀다.

석근이가 죽는 시늉을 하는 하지메의 궁둥이를 발로 툭 찼다.

《저놈을 끌고 썩 사라져!》

《예, 예…》

접이칼처럼 허리를 꺾어보인 하지메는 방바닥에 개처럼 늘어진 키다리를 질질 끌고 문밖으로 사라졌다.

경행이네가 한발만 늦었어도 고려청자기는 다른 도적놈의 손에 들어갈번 했다.

선손을 써서 고려청자기부터 앗아낸 다음 하루꼬까지 제것으로 만들 작정을 하고 들이닥쳤던 하지메로서는 벼락치듯 들이닥친 두사람이 놀랍기만 했다. 키다리와 짜고 든짓이 비렬한지라 그 어디에 상소할수도 없는 꼴이 되고 말았다.

경행은 좀도적들에게 얻어맞아 스산한 몰골을 하고 우들우들 떠는 고이시놈을 증오가 번뜩이는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고이시 사부로, 나는 존엄높은 공화국공민의 자격

으로 네놈의 죄많은 강탈행위를 결산하러 왔다!》
리경행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다.
죄많은 과거를 안고있는 고이시 사부로의 낯짝에는 식은땀이 빠직빠직 내돋았다.
놈은 리경행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다.
《죽을 죄로 잘못했습니다. … 제발…》
석근이가 그 꼬락서니를 보다못해 한걸음 성큼 내짚었다.
《께끈한 놈의 족속, 이걸 그저!》
와뜰 놀란 먹사마귀는 발길이 날아드는줄 알고 두팔을 허둥거리며 앉은 뒤걸음질을 쳤다.
경행의 어조는 단호했다.
《이놈아, 죄는 혀바닥으로 씻는게 아니다. 고려청자기부터 내놔!》
《예, 예… 잠간…》
먹사마귀는 허리를 굽석거리며 방바닥에 나딩구는 열쇠를 집어들었다.
자개박이문양이 새겨진 큼직한 함통에 잠근 자물쇠를 여는 놈의 손은 풍을 만난것처럼 화들화들 떨리고 있었다.
두손에 받쳐든 고려청자기를 주인에게 내미는 놈의 볼따귀에서는 가는 경련이 일었다.
고이시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토했다.
그 한숨속에는 량심의 가책이 아니라 조선사람의 넋을 짓밟아버리지 못한채 자기가 졌다는데서 오는 쓰디쓴 패배감이 뒤섞여있었다.
경행은 18년만에 찾은 고려청자기에 눈길을 박고 한

참이나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비취옥과 같은 은은한 광택을 내면서 고상하고도 웅심깊은 정서를 자아내는 밝은 푸른색…

그의 머리속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형님과 누이들, 동생들의 정겨운 모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리고 민족의 넋이 깃든 이 고려청자기를 찾아가지고 그리운 고향으로 함께 가자던 차인석의 열정에 넘치던 다감한 모습도 눈앞에 밟혀왔다.

고려청자기!… 그것은 빼앗길수 없는 민족의 넋이였고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깃든 민족의 재보였다.

경행은 눈을 들어 상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것으로 결산이 끝났다고 속단하지 말라!》

《…》

《고려청자기는 돈으로 계산할수 없는 우리 민족의 넋이고 자랑이다. 네놈은 그것을 강탈한 날강도이며 나의 가정, 나의 청춘시절에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긴 비렬한 인간쓰레기이다.

그리고 의로운 조선청년인 차인석의 목숨을 앗아간 용서할수 없는 살인자란 말이다!》

경행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곁에서는 눈에 불이 달린 석근이가 당장 박살을 낼듯이 후들거리는 주먹을 부르쥐고있었다.

먹사마귀는 이자리에 언론계의 기자들이 쓸어들지 않은것이 천만다행으로 여겨졌다.

놈은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애걸하였다.

《나에게서 무엇을 바랍니까?…》

《바라는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요구한다! 〈골동품수

집가〉의 너울을 쓰고 현해탄을 넘나들면서 강탈한 우리 문화재들을 전부 반환하라!》

《…》

《나는 어제날의 망국노가 아니라 당당한 공화국공민의 자격으로 말하는거다!》

당당하게 울리는 그 목소리는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던 하지메따위의 으름장보다 더 무서운 선언이였다.

먹사마귀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뿜었다.

변명할 여지도 없었고 빠질 구멍도 없었던것이다.

《똑똑히 알아두라. 강도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에서 문화재들을 수없이 파괴, 략탈한 죄악을 우리 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반환, 배상하게 될 그날은 반드시 올것이다!》

다리를 절룩거리며 보물함으로 비척비척 다가간 고이시 사부로는 그우에 손을 얹은채 목대가 부러진듯 고개를 푹 떨구었다.

고이시는 여러점의 자기류와 도서들인 《리조시기의 회화》, 《소화정치비사》 등 수십점의 가치있는 력사유물, 자료들을 돌려주지 않을수 없었다.

놈의 두손은 눈에 알리게 부들부들 떨리고있었다.

그놈의 집을 나선 리경행과 우석근의 발걸음은 날듯이 가벼웠다.

얼빠진 몰골을 하고 서있던 먹사마귀는 어둑시근한 방구석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쓰디쓴 패배감이 고이시의 가슴을 아프게 허비였다.

정기를 잃은 두눈은 흐리멍텅하였고 낯짝은 갱핏한 볼

편에 도드라진 먹사마귀처럼 시꺼멓게 질려있었다.

그것은 사형선고를 받은 죄수의 몰골과 흡사하였다.

이상하게도 그의 머리속에 맨 먼저 떠오른것은 총창에 배를 찔린 조선청년이 추켜올렸던 곽지로 자기의 몸뚱이를 내리찍으며 노려보던 불이 달린 무서운 눈빛이였다.

이어 보물을 탐내는 자기의 코등에 주먹을 안기면서 조선이라는 이 땅의 영원한 정복자가 되자면 민족의 넋을 밑뿌리채 없애버려야 한다고 악의에 차서 부르짖던 헌병장교의 비참한 말로도 번개치듯 되살아났다.

한 농가에 달려들어 단지형의 고려자기를 강탈한 그 장교는 그에 항거하는 젊은 녀인의 머리에 질려있는 은비녀마저 빼앗으려고 더러운 손을 뻗치다가 식칼에 찔려 개죽음을 당하였다.

그 비참한 말로에서 뒤늦게나마 교훈을 찾았어야 하는 고이시였다.

존엄높은 공화국의 공민이라는 당당한 긍지와 자부심과 배심을 가지고 눈앞에 나타났던 리경행은 그가 알고있던 어제날의 식민지나라 청년이 아니였다.

놈의 입에서는 《으악!—》 하는 발작적인 울부짖음이 터져나왔다. 미친 사람처럼 눈에 피발이 선 그는 바람벽에 머리를 마구 짓쪼으며 추악한 비명을 질러댔다.

《아!…》

리성을 잃은채 미친듯이 악을 쓰던 고이시는 급소를 찔리운 맹수의 울부짖음을 방불케 하는 괴상한 비명을 내지르며 방바닥에 어푸러졌다.

코에서 흘러나온 검붉은 피가 입밖으로 흐르는 거품

과 뒤섞여 얼굴이며 앞자락에 스산하게 게발렸다.

침략의 하수인이 되여 조선인민앞에 피로 얼룩진 죄악을 수없이 저지른 고이시의 죄많은 한생의 종착점은 이렇듯 비참했다.

아무리 뒤를 돌아보아도 인간답게 떳떳이 자부할만한 한쪼각의 추억조차 없었다.

게다가 죄의식도 량심의 가책도 없었으니 그것은 죄많은 일본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축소판이기도 했다.

정신병자처럼 절망속에 몸부림치는 그놈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눈빛은 차거웠다. 동정은 고사하고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었다.

안으로 걸린 대문을 이따금 두드리는것은 세금을 독촉하러 다니는 사람뿐이였다.

문을 닫아맨 어둑시근한 집안에서 악취를 풍기는 고이시의 추악한 시체가 발견된것은 그로부터 얼마후의 일이다.

며칠이 지난 어느날.

한낮의 날씨는 바람 한점없이 따스하였다.

나지막한 산말랭이의 묘지 상돌우에 고려청자기가 놓여있었다.

우석근, 윤성우와 함께 차인석의 묘지를 찾은 리경행은 병을 기울여 잔에 술을 부었다.

고인을 추모하여 고개를 숙인 일행가운데는 영성이와 충성이를 데리고온 순옥의 모습도 있었다.

《인석형님, 고려청자기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왔습니다. …》

무덤앞에 무릎을 꺾은 경행의 목소리는 갈리였다.

그윽한 빛을 내뿜는 고려청자기에는 죽고사는것을 가리지 않고 한몸을 내댔다가 눈도 감지 못한채 이슬처럼 사라진 차인석의 뜨거운 애국의 넋도 질게 어려있었다.

경행은 푸른 산 저 멀리 고향하늘을 이윽히 바라보았다.

그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차인석의 목소리를 듣고있었다.

얼른거림은 푸른 옥의 빛이요
령롱함은 수정의 모습이다
치밀한 옥은 살결과 같고
손을 대이매 옥살결을 만지는것과 같아라
…

기다려다오

조국에로의 귀국실현!…

감격의 환호성은 온 일본땅을 뒤흔들었다.

흥분의 회오리에 휩싸인 사람들은 만세를 웨치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 학대와 멸시속에 살아오던 우리앞에
> 영명하신 수령님 어지신 마음으로
> 귀국하는 바쁜 길 활짝 열어주셨네
> 번영하는 조국에서 같이 살자 부르시네
> …

흥겨운 노래가락은 이사짐을 꾸리기 시작한 리경행의 집에서도 흘러나오고있었다.

얼씨구 좋아 고향 가세
절씨구 좋아 고향 가세
…

온 일본땅이 환희에 넘쳐 들썩거리는 판이니 어른아이 할것없이 모두 신바람이 났다.

《영성아, 충성아. 우리도 이제 세밤만 자면 산같이 큰 배를 타고 그리운 조국으로 간단다.》

경행이가 벙글벙글 웃으며 세손가락을 펼쳐보이자 아이들은 너무 좋아 껑충껑충 뛴다.

경행은 그동안 수집한 문화재부터 품을 들여 짐을 꾸리였다.

순옥은 밤이 깊어서야 집에 들어섰다.

그는 총련 도꾜도시부세지부 조직부장사업을 맡아보고있었으므로 집에 붙어있을겨를이 없었다.

《충성이 아버지, 혼자서 수고해요.》

《지금 오우. 난 일없으니 좀 앉구려.》

《난 이번에 제93차로 귀국하는 성원들의 부단장으로 사업하게 되였어요.》

경행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어깨가 무겁구만. 여보, 아무 걱정말고 맡은 일을 잘하오.》

《알겠어요.》

선자리에서 간단히 요기를 한 순옥은 곧 집을 나섰다.

《미안하군요. 난 또 나가봐야겠어요.》

《어서 가보우.》

《그럼 사흘후에 니이가다항에서 만납시다.》

나흘째 되는 날.

니이가다항에서는 출항을 알리는 귀국선의 배고동소리가 길게 울리고있었다.

손에손에 공화국기발과 꽃다발을 든 환송의 열파는 설레는 바다처럼 세차게 끓어번졌다.

귀국선에 몸을 실은 순옥은 아득히 멀어지고있는 부두에 눈길을 박은채 화석처럼 굳어졌다.

한사람이 배에 오르지 않았던것이다.

…귀국선이 떠날 림박이였다.

붐비는 사람들속을 헤집고 어디론가 사라졌던 남편이 다시 나타났는데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순옥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어서 배에 오르세요.》

대답을 피하면서 주위를 둘러본 그는 딱한 표정을 짓고 잠시 망설이더니 안해를 끌어당겼다.

《여보, 아이들과 함께 먼저 조국으로 가오.》

《무슨 소리예요? 그럼 당신은?…》

《목소릴 낮추오.》

무슨 말인가 더 하려던 그는 순옥의 손을 꽉 잡았다 놓더니 등을 떠밀었다.

《그럼 잘 가오.》

《아니, 충성이 아버지!…》

하지만 사람들의 물결속에 잦아든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잠시후 배고동이 울리고 귀국선은 니이가다항을 떠났다. …

순옥은 별생각이 다 들었다.

(무슨 일일가? 갑자기 마음이 달라졌을가?… 아니, 그럴수 없어. 말 못할 사연이 있는게 분명해. 그게 뭘가?…)

《엄마.》 하는 소리에 순옥은 생각에서 깨여났다.

영성이와 충성이가 빤히 올려다본다. 큰것이 울먹거리며 물었다.

《엄마, 아버진 우리랑 함께 가지 않나?》

순옥은 얼굴에 웃음을 지어보이려고 애쓰면서 어린것들을 한아름에 품어안았다.

《애들아, 아버지도 우리와 함께 조국으로 가고있단다.》

거짓을 모르는 아이들의 얼굴은 그제야 밝아졌다.

순옥은 아이들에게 한 말이 거짓말로 될수 없다는것을 믿고있었다.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은 가장 소중한것을 잃어버린듯 허전하기 그지없었다.

같은 시각, 잔물결이 기슭을 치는 부두가에 굳어진 리경행은 수평선너머로 멀어지는 귀국선에서 눈길을 뗄수 없었다.

조국!… 가고싶은 곳이였다.

한시도 잊은적 없고 꿈결에도 그립던 조국이였다.

저도모르게 눈앞이 뿌애졌다.

그는 울고있었다.

…가족과 함께 귀국선에 오를 차비를 서두르던 리경행은 윤성우를 만나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였다.

《경행동무, 이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조선아악〉의 출처를 알아냈소.》

《예?!… 그게 정말입니까?》

《사실이요.》

《조선아악》은 리조 500년 궁중음악자료로서 매우 귀중한 국보이다.

리왕직아악부에 보관되여있던 이 문화재 역시 조선민족문화의 존재를 깡그리 말살하려고 미쳐날뛰던 일제침략자들의 략탈의 대상에서 제외될수 없었다.

출처가 묘연하여 영영 찾을 길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었던 아악보에 대한 소식은 경행으로 하여금 귀국을 미룰 결심을 내리게 하였다.

윤성우는 말하였다.

《잘 생각해보고 결심하오. 귀국의 길에 오른 안해와 아이들의 심정도 생각해야지. 〈조선아악〉을 위해 여기에 남으면 몇달이 걸릴지 몇년이 걸릴지 기약할수 없단 말이요.》

《힘에 부칠겁니다. 실패할수도 있구요. 하지만 조국을 위한 일에 리해관계를 따진다면 자기 어머니에게 값을 흥정하는것이나 다른게 뭐겠습니까. 조국에는 진정만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서 〈조선아악〉의 출처나 알려주십시오.》

윤성우는 가서 안해를 만나보라고 등을 떠밀었다. …

이렇게 되여 안해와 작별하게 된 경행이였다.

수평선으로 멀어지는 귀국선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그의 마음은 조국으로 달리고있었다.

조국이여, 이 아들을 기다려다오. …

얼기설기 금이 간 포장도로를 따라 화려한 광고와 간판

을 내건 려관, 식당, 상점들이 어깨를 비벼대며 비좁게 늘어섰다.

그가운데 네온장식을 요란스럽게 한 고층건물이 토목건축주식회사였다.

턱밑에 군살이 진 대머리인 시미즈사장은 푹 잠기는 쏘파에 몸을 잠근채 담배연기를 날리고있었다.

밤늦도록 술을 마신탓인지 수북한 눈섭밑에 감추어진 눈빛이 게슴츠레하다.

말쑥한 얼굴에 애교적인 웃음이 잔즐거리는 녀서기가 들어왔다.

《사장님, 밖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손님인데?》

《조선사람입니다.》

《조선사람?… 용건은 뭐라던가?》

《사장님에게 직접 말씀드리겠답니다.》

《기다리라고 해.》

《네. 그럼…》

녀서기를 내보낸 시미즈는 《제길, 드디여 올것이 온 모양이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에게는 한명의 조선사람이 찾아올만한 기막힌 사연이 있다.

몇해전이였다.

다급하게 울어대는 전화종소리에 송수화기를 든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집에 불이 났다는 녀편네의 다급한 전화였다.

로환으로 운신을 못하는 어머니걱정보다도 약차한 재산이 불속에 잠겼다니 눈앞이 아찔했다.

승용차를 달려 집에 이르니 숱한 구경군들이 쉬파리떼처럼 모여들었는데 기자들까지 돌아치고있었다.

체통이 배부른 물독같은 녀편네는 다행히도 운수가 좋았다고 하면서 사태를 설명하였다.

…석유곤로를 뒤집어엎는 바람에 방바닥에 번진 불길은 순식간에 가구며 옷가지를 태우며 천반으로 번져졌다.

《불이야!》

불이 났다는 고함소리를 듣고 이웃집사람들이 쓸어들었지만 그들은 불붙는것을 보러 온 구경군들이였다.

시미즈사장의 권세는 굴뚝같았지만 그가 지독한 수전노라는것을 알고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선뜻 나설념을 하지 않았다.

바로 이때 불속에 뛰여들어 재난을 막아나선 사람이 있었다.

불은 꺼지고 집은 구원되였다. 위험이 가셔진 다음에 찾아보니 그 사람은 제갈길을 가버린 뒤였다.

녀편네와 구경하던 이웃들이 알고있는것은 그가 조선사람이라는것뿐이였다.

시미즈는 그 사람이 나타나면 뭉치돈을 아끼지 않고 단단히 사례를 하겠다고 장담했다.

그가 허세를 부린것은 명색이 사장이라는 체면도 있었지만 본심은 불붙는것을 구경하려고 모여든것들이 괘씸해서 내뱉은 수작이였다.

그런데 그의 검은 속심을 들여다본 누군가가 큰소리로 이렇게 빈정거렸다.

《그러니 점심밥을 싸들고다니며 그 사람을 찾아 〈속이 후한〉 사장님앞에 맞세워야겠는걸.》

그제야 시미즈는 공연히 입빠른 객기를 부렸다고 혀바닥을 깨물었다.

이웃들의 따돌림을 받고있는 시미즈는 그것들이 정말 그 조선사람을 앞세우고 나타날가봐 은근히 가슴을 조여오던 중이였다.

이윽고 그를 찾아온 손님이 침착한 자세로 시미즈의 눈앞에 나타났다.

문화재수집을 맡아보는 재일조선공민이라고 자기 소개를 한 리경행은 조선강점시기 일제에 의하여 략탈당한 문화재를 찾으러 왔다고 자기의 립장을 밝혔다.

사례금문제를 어물쩍해버릴 생각에 옴해있던 시미즈로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아닐수 없었다.

《문화재라니… 그런 말을 왜 나한테 하는거요?》

《사장님, 〈조선아악〉을 내놓으시오.》

《엉?!… 그… 그건 우리 집안의 가보요.》

리경행의 눈초리는 번들거리는 시미즈의 대머리를 찍어넘길 도끼날처럼 날이 섰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조선에서 략탈한 우리 민족의 재보가 어떻게 당신네 집안의 가보로 된단 말이요. 그런 말을 입에 올리기가 부끄럽지도 않소?》

말문이 막힌 시미즈는 그걸 찾겠으면 거액의 돈을 내놓으라고 딱 잘라맸다.

과연 언어가 통하지 않는 수전노였고 구두쇠같은 인간이였다.

《다시 만납시다.》

시미즈는 위압감이 풍기는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조

선사람의 뒤모습을 초점이 흐린 눈으로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침부터 기분이 잡친 그는 전화로 서기를 찾았다.

《다시는 그 불청객을 들여놓지 말아. 절대로!》

며칠이 지나갔다.

아무일도 없었던듯 조용한 나날이 흘러갔다.

《조선아악》을 내놓으라고 찾아왔던 사나이는 열흘, 보름이 지나도록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시미즈는 어쩐지 그것이 더 불안스러웠다.

경행은 시미즈와의 두번째 대결을 준비하고있었다.

원쑤는 약한 곳을 치랬다고 시미즈라는 수전노의 약한 고리는 무엇이겠는가?…

흔히 린색한 수전노들에게는 벗이 없는 법이다. 시미즈도 례외로 될수 없다고 판단한 경행은 조선문화재략탈행위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는 한편 그가 살고있는 집주변의 이웃들에게 주의를 돌리기 시작했다.

어느 일요일 늦은아침이였다.

음악평론가라는 사나이와 술잔을 기울이면서 《조선아악》을 팔아넘길 흥정을 하다가 새벽녘에야 잠자리에 들었던 시미즈는 드살이 센 녀편네가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밸이 살아났다.

《이건 왜 아침부터 귀가 아프게 양양거리는거야?》

《흥, 이놈의 집에 경사가 났지.》

《경사라니?…》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

녀편네는 뚱뚱한 허리에 두손을 척 걸어붙이고 눈을 빨

면서 큰 입을 놀려댔다.

《당신이 이웃들앞에서 뭉치돈을 안겨주겠다고 흰소리친 그 조선사람이 찾아왔단 말이예요.》

《뭐?! 우리 집 불을 껐다는…》

《그래요. 입심사나운 이웃들까지 한마당 밀려왔다는데 어디 재간껏 쫓아보내요!》

《엑, 빌어먹을!》

자리를 차고일어난 시미즈는 창가림을 젖히였다.

마당에는 과연 숱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웅성거리고 있었다.

《?!…》

놀라운것은 그들속에 회사에 찾아와 《조선아악》을 내놓으라고 들이대던 사나이가 서있는것이였다.

세면도 못하고 기신기신 밖으로 나온 시미즈에게 리경행이 먼저 말을 걸었다.

《시미즈상, 우리의 상봉이 뜻밖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난 당신을 내 집으로 청한 일이 없는데… 아침부터 이건 뭐요?》

《손님대접이 너무 야박하구만.》

《이 사람이…》

이때 시미즈내외가 제일 미워하는 이웃집 마사오령감의 입이 터졌다.

《여보시오, 안주인이 말을 안합디까? 이 사람이 바로 당신의 집에 큰불이 났을 때 불속에 뛰여들어 재난을 막아준 그 사람이란 말이웨다.》

《…》

시미즈는 이 늙다리를 찔 늘어지게 두들겨패주고싶었지만 혀바닥을 깨무는수밖에 없었다.

경행은 서두르는 기색이 없이 여유작작하게 들이댔다.

《난 당신이 모른척 하고 아닌보살을 할것 같아 보다싶이 증인들을 앞세우고왔으니 이웃들이 다 보는데서 돈을 주시오.》

《?!》

《제 입으로 큰소릴 쳤으면 책임을 질줄도 알아야 하지 않을가요? 손이 얼마나 큰지 봅시다.》

《…》

시미즈는 낯이 화끈화끈 달아올랐다. 등골에서는 땀이 줄줄 흘렀다.

빙 둘러선 사람들은 자기들을 천시하면서 업수이 여기는 린색한 시미즈를 깨고소한 표정으로 지켜보며 술렁거렸다.

《갑자기 벙어리가 됐나.》

《예구, 덩지가 아깝군.》

…

《예로부터 거짓말하는 입은 구린내나는 구멍이라고 일러왔소.》

이렇게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려놓은 경행은 그에게 그가 《조선아악》의 값을 요구한 액수에 달하는 돈을 불렀다.

억이 막힌 시미즈는 눈알이 꼿꼿해졌다.

《그건… 그건 너무합니다.》

《걷어치우시오. 당신은 피에 손이 절은 강도이며 략탈자요! 방금전에 당신은 청한 일이 없는데 내가 찾아왔

다고 했는데 일본침략자들은 조선사람들이 청해서 조선땅에 기여들어 파괴와 략탈을 감행하였는가?

당신이 저지른 문화재략탈행위는 가장 비렬하고 추악한 범죄란 말이요!》

리경행은 조선에서 감행한 시미즈의 죄악을 낱낱이 까밝혔다.

그러자 술렁거리던 사람들이 법석 끓었다.

《저게 사람이요?》

《그놈의 집에 불을 콱 질러야 해.》

…

인심을 잃으면 더 잃을것이 없다더니 시미즈는 궁지에 몰려 쩔쩔맸다.

문가에 버티고 서서 눈총을 쏘던 시미즈의 녀편네는 어느 구석에 들어박혔는지 코도 내밀지 못하였다.

경행은 사리정연한 어조로 립장을 밝혔다.

《몇해전, 바쁜 길을 가던 내가 불붙는 집에 뛰여든것은 근로하는 일본사람의 집인줄 알았기때문이였소. 하기에 사례금같은건 바라지도 않았댔단 말이요. 그런 의미에서 당신이 장담한 뭉치돈대신 우리의 〈조선아악〉을 내놓으시오.》

《…》

《그때 불붙는 집안에는 운신을 못하는 당신의 어머니가 있었소. 그런데 아직도 저울질을 하는거요?》

숱한 사람들의 면전에서 수세에 몰린 시미즈는 빠질 구멍이 없었다.

그의 입에서는 김빠진 소리가 새여나왔다.

《그걸 드리겠소. … 안으로 들어갑시다.》

《좋습니다.》

조국의 귀중한 재보인 《조선아악》을 찾아쥔 리경행은 너무 기뻐 온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는 조국으로 떠날 준비를 서둘렀다.

어느날 그가 들어있는 려관으로 한 일본사람이 찾아왔다.

기름을 바른 머리카락을 살짝 갈라넘긴 마흔이 훨씬 넘은 신사풍의 사나이였다.

《안녕하십니까.》

《뉘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음악평론가 하또리 류따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사나이는 찾아온 목적을 털어놓았다.

《우린 쉽게 의사가 통하리라고 봅니다.》

《말씀하십시오.》

《리조 500여년의 음악자료들이 기록되여있는 〈조선아악〉의 가치는 실로 대단한것입니다. 나와 손을 맞잡고 돈을 벌어봅시다.》

《보다싶이 난 지금 조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알고있습니다. 귀국을 얼마간 미루었으면 합니다.》

하또리 류따로는 곰살스럽게 말을 이었다.

《미루는것은 그만두는것을 의미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손을 잡기만 하면 남부럽지 않은 갑부가 될수 있습니다. 기회란 새와 같은것이여서 날아가기 전에 붙잡아야 한답니다.》

《?…》

《어서 결심하십시오.》

경행은 조국의 재부를 팔아 황금을 얻느냐 아니면 애국의 지조를 지키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갑부라… 갑부가 된단 말이지. …)

지금까지 고지식하고 정직한 마음을 간직하고 곧게만 걸어온 경행은 삶의 보람이 돈이라는 저울대에 오른것 같아 기분이 나빴다.

《평론가선생, 하나 물읍시다. 실례이지만 돈으로 살수 있는것은 무엇이나 눅거리라는 말을 들은적이 있습니까?》

《듣느니 처음입니다.》

《세상에 돈으로 살수 없는것이 무엇인지는 알고있겠지요?》

《그런것도 있는가요?…》

《이 섬나라에는 없겠지만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넋입니다.》

《?!》

웃음이 넘실거리던 하또리의 눈빛이 점점 굳어졌다.

경행은 침착하면서도 조용한 어조로 말머리를 돌렸다.

《지금 도꾜국립박물관에는 우리 나라의 문화유물이 4만점이나 버젓이 비치되여있습니다.》

《글쎄… 그렇다고 합니다. …》

《네즈박물관에도 일본자본가였던 네즈라는자가 략탈해온 우리 나라 도자기와 기타 진귀한 문화유물이 수천점이

나 소장되여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지방도시에 불과한 오사까의 오사까시립동양도자미술관에도 근 800점의 조선도자기들이 있습니다. 당신도 그것이 일본〈국보〉라고 생각합니까?》

《…》

하또리는 입이 얼어붙었는지 대답을 못했다.

경행은 계속했다.

《그 문화재들에는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발전과정에 형성되고 계승된 우리 민족의 문화전통,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습니다. 강도 일제는 우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한 책동의 한 고리로 조선문화재파괴와 략탈행위에 미쳐날뛰였습니다.》

…일제는 조선강점초기에 벌써 고적유물탐험가 세끼노라는자를 두목으로 하는 조사단을 무어 10년간에 걸쳐 전조선령토에 있는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전면적이며 전문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였고 총 15권에 달하는 《조선고적도보》를 작성하였다. 이 목록에 기초하여 《통감》 이등박문은 조선문화유물 《조사, 수집》령을 발포하고 조선민족유산략탈을 법적기초우에서 국가적으로 감행하였다.

일제가 조선강점시기 200여기의 왕릉, 1만 1 000여기의 고분에서 파낸 보물의 량은 막대하였다. 이등박문은 공민왕릉에서만도 10여차량의 보물을 파갔다.

《…근 반세기에 걸치는 조선식민지통치시기 우리 나라의 문화재에 대한 일제의 무지막지한 파괴, 략탈행위는 특

대형범죄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제아무리 일본 〈국보〉라고 자랑을 해도 거기에는 우리 민족의 넋이 깃들어있는것이지 일본의 넋이 깃들어있다고 감히 말할수 있겠습니까?》

《…》

《그리고 지금 일본에 있는 40여개의 조선종가운데서 30여개이상이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여있는데 거기서 울리는 종소리 역시 어디까지나 조선민족의 넋이지 섬나라의 넋이 될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고보면 그 종소리는 우리 민족의 문화전통과 넋을 짓밟고 민족의 말살을 노린 천추에 용납 못할 일제의 죄악을 단죄하는 규탄의 웨침으로 될것입니다.》

《…》

고개를 수그린 하또리는 여전히 입을 닫아맨채 진땀을 빼고있었다.

《당신과 론쟁할 생각은 없지만 한마디만 더 합시다. 우리 인민은 돈 없이는 살수 있어도 사회주의조국이 없으면 살수 없습니다. 당신의 조국은 돈이지만 나의 조국은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이십니다.》

하또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입을 열었다.

《솔직한 심정을 말하건대 나는 당신의 모습에서 〈대일본제국〉을 격파하고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은 조선인민의 강의한 정신력과 밝고 창창한 래일을 보았습니다.

김일성장군님을 위대한 수령으로 모신 당신이 참말로 부럽습니다. 서글프게도 나의 모국인 일본은 저지른 죄악이 많은 나라입니다. 옳게 계승할만한 민족의 얼이 없거니와

민족을 바로 이끌만한 인물도 없지요. …》

《솔직한 심정을 말해주어 고맙습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워버릴수도 묻어버릴수도 없습니다. 일본은 피에 절은 죄악을 조선인민앞에 성근히 사죄하고 배상하며 략탈해간 문화재들을 전부 반환해야 할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일본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말끝을 흐리면서 가는 한숨을 내불고 난 하또리는 자리에서 무겁게 몸을 일으켰다.

《저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잘 가시오.》

불청객을 돌려보낸 경행은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였다.

눈앞에는 흰갈매기들이 날아예는 푸른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졌다.

그의 마음은 조국의 푸른 하늘을 날으고있었다.

그로부터 몇달후 그립던 조국의 품에 안긴 리경행은 안해와 아이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다.

그가 가지고온 두개의 트렁크에는 천만금으로도 그 가치를 헤아릴수 없는 2 000여점에 달하는 귀중한 문화재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안주시 문봉동의 양지바른 산기슭에 자리잡은 아담한 단층집에서는 밝은 불빛이 흘러나오고있었다.

리경행과 전순옥은 조국으로 안고온 수천점의 력사유물, 자료들을 전부 나라에 바치기로 하고 밤늦도록 그 준비를 하고있었다.

《여보, 한가지 말씀드리고싶은것이 있어요.》

순옥은 아까부터 매만지던 고려청자기를 내보이며 말을 이었다.

《저… 이것만은 집에 건사했으면 해서… 대를 물려오던 가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찾느라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고생인들 얼마나…》

경행은 종시 말을 맺지 못하는 안해의 심정이 리해되였다. 고려청자기에는 너무도 많은 가슴아픈 사연이 비껴있었다. 그것을 집안의 가보로 보관한다고 해도 탓할 사람은 없었다.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던 경행은 안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은 아버지에게 안고가겠다고 벼르던 이 가보를 조국으로 안고온 나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소. 우리의 운명을 지켜준 그 품이 없었더라면 당신이나 나나 이역의 거치른 땅에 영영 묻혀버리고말았을거요.

고려청자기를 나라에 바치는것은 온 나라 대가정의 어버이이신 우리 수령님과 당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영원히 따르려는 애국의 순결한 량심과 의리라고 생각하오.》

남편의 말마디는 순옥의 마음속 깊은 곳을 뜨겁게 파고들었다.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면서 낯이 화끈 달아올랐다.

《여보, 내 생각이 짧았어요. …》

《됐소, 됐소. 자, 당신의 손으로 정히 포장하오.》

《알겠어요.》

행복의 창가에는 오래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수천점에 달하는 력사유물, 자료들을 모두 나라에 바친 그들은 그것을 공민의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였고 내놓고 자랑 한마디 하지 않았다.

남모르는 들가에 남모르게 피여난 한떨기의 꽃과도 같이 아름답고 고결한 그들의 애국적소행은 수십년세월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있었다.

사랑의 령마루

풀벌레들이 울어대는 무더운 여름밤이였다.

시내에서 얼마간 떨어진 청천강기슭의 한적한 동뚝길로 한 녀인이 총총히 걸어가고있었다.

남편을 찾아떠난 전순옥이였다.

주변협동농장에 김매기를 도와주러 갔던 공장사람들은 어둡기 전에 모두 돌아왔는데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예나 지금이나 남편이 늦어지면 빈집에 혼자 앉아있지 못하는 그였다.

맏아들 영성이는 이미 세간을 났고 둘째 충성이는 인민군대에 탄원하여 군사복무를 하다보니 더욱 그랬다.

안주견직공장에서 직맹위원장, 로동과장으로 사업하고있는 리경행은 일이 바쁜 속에서도 문화재수집사업을 계속해오고있다.

한생을 력사유물수집사업에 바쳐 **김일성**조선의 오랜 력사와 슬기를 떨치는데 이바지하는것이 그들부부의 드놀지 않는 결심이였다.

사회주의조국의 고마움을 가슴뜨겁게 느낄 때마다 문화재수집사업을 더 잘하여 태양민족의 유구한 력사를 빛내일 각오와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여기에는 남다른 사연이 깃들어있다.

그들부부가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닌 이듬해에 있은

일이다.

갑자기 병원에 실려간 리경행에게 위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순옥의 근심은 컸다.

이럴 때 중앙병원에서 유능한 의료집단과 의약품을 실은 구급차가 달려오고 협의회에 이어 곧 수술이 진행되였다.

환자에게 수혈을 비롯한 적극적인 치료대책이 취해졌다.

건강을 회복하고 병원문을 나서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순옥은 어깨를 들먹이며 눈물을 쏟았다.

일본사회같으면 엄두도 낼수 없는 조국의 무상치료제의 혜택이 너무도 고마왔던것이다.

그때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굽이 축축히 젖어든다.

나지막한 둔덕을 넘어 굽인돌이길에 접어들었을 때 어둠속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이요?》

《아니, 어딜 가셨다가 인제야 오시우?》

《밤골이라는델 갔댔소.》

《아니 거기가 어디라구…》

경행은 땀에 젖어 번들거리는 이마를 쓱 문지르며 소리없이 웃는다.

순옥은 손수건을 내밀었다.

《등에 진건 뭐요? 이리 주시우.》

《그냥 가자구. 조심히 다루어야 하는 보물이요.》

《보물이요?》

《그럼! 고생한 보람이 있소. 힘든줄 모르고 왔다니까.》

순옥은 등에 진 물건에 손을 뻗쳤다.

《인줘요. 보물이라니 보구싶어 어디 견디겠수?》

《그럼 좀 쉬여갈가.》

남편이 가지고온것은 오랜 유물인 씨아(목화의 씨를 빼는 기구)였다.

그날 함께 일하던 한 농장원에게서 밤골이란 마을에 오랜 유물이 있다는 말을 들은 그는 60리길을 찾아떠났다.

해가 기울무렵에야 그 마을에 이른 그는 어렵지 않게 집을 찾을수 있었다.

그 집주인은 우리 나라에 목화씨를 퍼뜨린 문익점이 살던 고장 사람의 후손이였는데 16세기에 목화씨를 뽑던 당시의 그 유물을 건사하고있었다.

경행은 말하였다.

《사회제도가 좋으니 그 집안사람들도 참 좋은분들입디다. 이 유물의 가치를 설명하니 선뜻 내주더란 말이요.》

《먼길에 힘들었겠어요. 옛수.》

순옥은 들고온 빵을 남편의 손에 쥐여주었다.

가루음식을 좋아하는 경행은 그것을 달게 넘기면서 달밝은 하늘에 보석처럼 반짝이는 별들을 이윽히 바라보았다.

《이런 밤길은 아무리 걸어도 힘든줄 모르겠소. 구름우에 올라선 기분이요. 보구려. 별들도 우릴 보고 활짝 웃고있지 않소.》

《호호… 정말 방끗방끗 웃는군요.》

량주는 귀한 물건을 맞들고 도란도란 말을 주고받으

며 나란히 걸었다.

먼산에서 들려오는 소쩍새의 울음소리도 노래처럼 들려오는 유정한 밤이였다.

그후 그 유물은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 전시되였다.

세월은 흘러…

년로보장을 받은 그들의 머리에도 희슥희슥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국가적혜택을 받으며 여생을 편안히 보내야 할 나이에도 그들부부는 력사유물발굴수집사업에서 손을 놓지 않았다.

유물의 국보적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에게 애국심을 심어주군 하였다.

언제인가는 요덕군에 사는 한 주민이 오랜 문화재를 보관하고있다는 소문을 듣고 기차를 갈아타면서 한달음에 그를 찾아간적도 있었다.

그 가정에는 퍽 오래전의 기와를 대를 이어오며 건사해오고있었다.

그 기와를 만든 시기를 식별한 리경행은 어린애처럼 환성을 올렸다.

《이게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 압니까. 내가 애써 찾던 기원전시기의 락랑기와란 말이요!》

집주인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처럼 오랜 국보적가치가 있는 유물을 찾아낸다는것은 흔치 않은 일이였다.

리경행에게서 그 유물의 가치를 알게 된 주인내외는 그 유물을 내놓아야 하는 아쉬움보다 한점의 유물을 위해 먼길을 걷고도 우주를 얻은듯 기쁨을 금치 못하는 그들부부

의 뜨거운 애국심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들부부는 전국각지에 발자취를 남기면서 문화재수집사업을 직심스럽게 계속하였다.

그 길은 걷고싶어 걷는 길, 가고싶어 가는 길, 애국의 한길이였다.

리경행부부는 여러해를 넘기면서 애써 수집한 귀중한 력사유물들을 위대한 수령님 탄생 80돐때에는 200여점,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 55돐때에는 150여점을 나라에 정히 기증하였다.

이렇듯 그들의 애국심은 인생말년에도 마를줄 모르는 샘처럼 순결하였고 시들줄 모르고 향기를 내뿜는 꽃과도 같이 아름다왔다.

사심없이 애국의 한길을 곧바로 걸을수 있은 힘의 원천은 무엇이였던가.

그것은 나라와 민족의 력사를 중시하시고 력사유물을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전통을 빛내일 한마음으로 한생을 력사유물과 력사자료수집에 바쳐온 그들의 애국적소행과 숨은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여 리경행에게는 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칭호를, 전순옥에게는 높은 국가수훈을 수여하도록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사랑의 령마루에 올라선 리경행의 눈굽으로는 뜨거운것이 자꾸자꾸 솟구쳐올랐다.

입만 벌리면 울음이 왈칵 터져나올것만 같아 입을 열수가 없었다.

(아버지, … 어머니, … 결방살이신세라도 면해보겠다고 맨주먹으로 눈굽을 닦으며 고향을 떠난 이 둘째가 은혜로운 태양의 품에서 오늘은 나라의 영웅이 되였습니다. …)

벅차오르는 격정에 심장이 쿵쿵 흉벽을 울린다.

복은 홀로 오고 화는 쌍으로 온다고 일러왔건만 그들에게는 크나큰 영예와 행복이 련이어 겹쳐들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들부부가 귀중한 문화재들을 나라에 바쳤다는것을 보고받으실 때마다 그들이 바친 유물들로 개인전시회를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서 열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뿐만아니라 리경행로인의 생일 70돐때에는 친히 생일상도 보내주시는 은정깊은 사랑을 거듭 베풀어주시였다.

정녕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는 절세의 위인의 친어버이사랑이였고 믿음이였다.

우리의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애국심을 간직한 참다운 인간들만이 받아안을수 있는 축복받은 삶이였다.

…

생각할수록 가슴이 젖어들고 눈굽이 뜨겁게 달아오른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을 받으며 살아온 한생보다 더 큰 자랑과 행복이 또 어디 있을가.

아름다운 추억은 미래를 안고있는 법이다.

아름다운 추억을 위하여 삶의 순간순간을 애국에 살려거든 전세대들처럼 어버이수령님의 조국을 빛내이기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라!

순옥은 자식들에게 하고싶은 말을 자꾸자꾸 곱씹었다.
어느덧 새날이 푸름푸름 밝아오고있었다. …

온 나라 강산에 봄빛이 가득 흘러넘쳤다.
파랗게 열린 하늘에서 따뜻한 해빛이 쏟아져내렸다.
산과 들에 온갖 꽃이 다투어 피여나고 청천강기슭의 장대터우에 우뚝 솟은 백상루주변에도 갖가지 꽃들이 활짝 피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찾아 삼가 인사를 올리고 충정의 맹세를 다진 전순옥일가는 이 루정에 올라 평양의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에 눈굽이 달아올랐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태양민족의 미래는 얼마나 밝고 창창한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격정이 솟구쳐올랐다.
《애들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가장 충직하게, 가장 진실하게 받들어나가는 길에 선군으로 빛나는 우리 조국의 강성부흥과 태양민족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
자나깨나 이것을 심장에 새기고 땀도 바치고 사색도 열정도 모든것을 조국에 바치며 순간순간을 애국에 사는 참다운 인간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였고 어머니의 간절한 당부

이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자식들의 마음속에 깊이깊이 새겨졌다.

인간의 진정한 높이는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자기의 량심을 깡그리 바치는 참다운 애국에 있는것이다.

한생을 값있게 살아온 한 영웅의 애국의 넋은 후대들에 의하여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승리의 년대로 빛내여나가는 이 땅에 애국의 발자욱을 아름답게 새겨갈것이다.

중편실화

고려청자기

(재판)

집 필 및 편 집 김상복

그 림 리철근 장 정 박철남

편 성 정향애 교 정 리금주

내 곳 금성청년출판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주체101(2012)년 6월 5일

발 행 주체101(2012)년 6월 10일

ㄱ—26216 값 90원

ISBN 978—9946—21—323—1